

QA시스템
聖經研究
시리즈
13
역대상

기독교지혜사

성서연구원

BIBLE RESEARCH GROUP

역대상

1 Chronicles

다윗이 가로되 이는 여호와와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22:1)

וַיֹּאמֶר דָּוִד זֶה הוּא בַּיִת יְהוָה הָאֱלֹהִים יְהוָה
מִזְבֵּחַ לְעֹלֹת לְיִשְׂרָאֵל:

역대상 차례

역대상 서론	〈15제〉	… 273
제 1 장 아담에서 야곱까지의 족보	〈31제〉	… 279
제 2 장 유다 가계(家系)의 족보	〈19제〉	… 287
제 3 장 다윗 가계(家系)의 족보	〈15제〉	… 292
제 4 장 유다의 단편적인 족보와 시므온의 가계(家系)	〈15제〉	… 297
제 5 장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의 족보와 거주지	〈13제〉	… 302
제 6 장 레위 자손의 가족들과 그 성읍들	〈18제〉	… 306
제 7 장 잇사갈,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반, 에브라임, 아셀의 자손들	〈12제〉	… 312
제 8 장 베냐민 지파의 족보	〈 8 제〉	… 316
제 9 장 예루살렘의 주민들과 사울의 가계(家系)	〈16제〉	… 319
제 10 장 사울의 전사(戰死)	〈 9 제〉	… 324
제 11 장 다윗의 즉위와 예루살렘 정복 및 다윗의 용사들	〈10제〉	… 327
제 12 장 다윗의 군대	〈16제〉	… 331
제 13 장 다윗의 법궤를 기둥으로 옮기다	〈13제〉	… 337
제 14 장 다윗의 명성과 블레셋 정벌	〈10제〉	… 340

제 15 장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법궐	〈16제〉	343
제 16 장	다윗과 백성들의 감사 제사	〈18제〉	348
제 17 장	성전을 세우려는 다윗의 소망	〈15제〉	353
제 18 장	다윗의 정복 사업	〈13제〉	357
제 19 장	다윗이 암몬과 아람을 정복하다	〈13제〉	360
제 20 장	다윗이 암몬과 블레셋을 격파하다	〈6 제〉	363
제 21 장	인구 조사를 행한 다윗의 죄	〈20제〉	365
제 22 장	성전 건축을 위한 다윗의 준비	〈13제〉	370
제 23 장	레위인의 수효와 각자의 직무들	〈20제〉	374
제 24 장	레위인들을 24반열(班列)로 나누다	〈9 제〉	380
제 25 장	다윗이 찬양대를 세우다	〈10제〉	384
제 26 장	다윗이 문지기와 유사(有司)와 재판관을 임명하다	〈16제〉	388
제 27 장	다윗이 거느린 군대 조직과 정치 분담	〈15제〉	393
제 28 장	백성들과 솔로몬에게 남긴 다윗의 유언	〈20제〉	398
제 29 장	솔로몬의 등극과 다윗의 임종	〈23제〉	404

역대상 특별 자료 차례

역대상 서론 <연구 자료>	유대인들의 성경 분류와 역대기	278
제 1 장 <화보 자료>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아브라함	286
제 3 장 <지도 자료>	다윗의 왕도(王都) 헤브론	296
제 4 장 <화보 자료>	목자와 양 떼	301
제 7 장 <본장의 요절>	315
제 8 장 <연구 자료>	바알(Baal) 과 관련된 이름들	318
제 10 장 <본장의 요절>	326
제 12 장 <연구 자료>	구약 시대에 나타난 성령의 은사	336
제 14 장 <화보 자료>	기름 부음 받는 다윗	342
제 15 장 <연구 자료>	다윗 성(City of David).....	347
제 17 장 <본장의 요절>	356
제 20 장 <본장의 요절>	364
제 21 장 <본장의 요절>	369
제 23 장 <화보 자료>	저울을 다는 애굽인	379
제 24 장 <화보 자료>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	383
제 25 장 <연구 자료>	여호와 찬양에 사용된 악기들	387
제 28 장 <연구 자료>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교회와의 차이점	403
제 29 장 <화보 자료>	패물(佩物)	410

역대상서론

1. ㉠ 역대기의 명칭에 대하여 설명하라.

- ㉠ (1) 역대상과 역대하는 본래 한 권의 책으로서 히브리어로 <디브레 하야뎀> 곧 '각 시대의 말들' (words of days) 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다. 이러한 히브리어 명칭은 본서의 성격에 맞는 귀절(대상27:24)을 본 딴 것이다.
- (2) 현재의 성경처럼 역대기가 상·하 두권으로 구분된 것은 B. C. 150년경에 쓰여진 70인역(LXX)에서부터이다. 그때 70인역이 사용한 이름은 <파랄레이포메논>이다. 이 뜻은 '간과(看過)된 일들'인데 열왕기에서 빠뜨린 것들을 보충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 (3) '역대기' (Chronicon) 라는 이름은 라틴어 성경을 번역한 초대 교부 히에로니무스(Hieronymus, A. D. 340? - 420; 제롬과 동일인)로부터 시작되었다. 열왕기에 보면(왕상14:19; 15:7, 23) 관용구로서 <디브레 하야뎀> 앞에 <세페르>란 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세페르>는 '날들의 시건들', '사건들의 흐름'이란 의미로 쓰였다. 그래서 히에로니무스는 <세페르 디브레 하야뎀>을 '흐름의 사건들의 책' 곧 '역대기'라고 한 것이다.
- (4) 후대의 종교 개혁자 루터(Luther, A.D. 1483-1546)도 '역대기'란 이름을 사용하였다. 그 이후 이 이름이 일반화되었다.
- (5) 따라서 '역대기'란 이름에는 열왕기의 역사를 보충하는 보충적인 의미와 시대의 사건들로서 연대기적인 의미가 다 들어있다.

2. ㉠ 역대기의 저자는 누구인가?

- ㉠ (1) 역대기에는 저자를 확실히 알 수 있을만한 분명한 언급이 없다.
- (2) 그러나 유대인의 전승과 랍비들에 의하면 에스라서와 역대기는 에스라가 썼다고 한다.
- (3) 이것은 역대기의 끝맺는 말과 사건이(대하36:22, 23) 에스라의 서론과 첫 사건으로 등장하기 때문이다(스 1:1-30).
- (4) 이 견해는 현대의 권위있는 구약 학자인 올브라이트(W. F. Albright)에 의해서도 확인되었다. 그는 두 책에서 족보의 빈번한 사용, 제사 의식과 절차에 대한 강조가 같고 모세의 율법에 충실하다는 것과 문체와 형식이 같다는 것을 밝혔다.
- (5) 그래서 에스라서와 역대기 저자는 동일인으로 인정되고 있다. 다만 율법에 능통하고 제사 의식과 절차에 밝고 역대 문헌들을 쉽게 인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저자라고 추측할 뿐이다.
- (6) 이러한 추측과 일치하는 사람은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스 7:6)이며 '제사장' 겸 '서기관'(느 12:26)인 에스라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역대기의 저자를 에스라로 본다.

3. ㉠ 역대기가 기록된 연대는 언제인가?

- ㉠ (1) 역대기에는 기록 연대를 확정지을 만한 분명한 언급이 없다.
- (2) 다만 본문의 마지막 사건과 족보 그리고 에스라서에 의해 본서의 연대를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 연대는 B. C. 450년경으로 추정된다.
- (3) 그 까닭은 ① 본문에 B. C. 538년에 바사 왕 고레스가 반포한 유대인 포로의 귀국 허가 조서가 기록되어 있고(대하36:22) ② 본문의 족보 중에 B. C. 537년 유대인을 이끌고 귀국한 여고냐 왕의 손자 스룹바벨과 B. C. 500년경의 인물들인 스룹바벨의 두 손자 블라다와 여사야(대상 3:21)까지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③ 또한 에스라가 역대기에 이어서 에

스라서를 썼다면 에스라서의 기록 연대(B.C. 456-444)와 비슷하게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4) 이 연대 외에 다른 연대를 주장하는 학설들이 많으나 모두 신빙성이 희박하다.

4. **㉠**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의 목적은 무엇인가?

- ㉠** (1) 열왕기와 사무엘서 등이 선지자적(예언자적) 입장에서 선민의 윤리 생활을 교훈하기 위하여 역사를 서술했다면 역대기는 제사장적 입장에서 신정(神政) 체제의 재건을 촉구하기 위하여 역사를 서술했다.
- (2) 이에 따라 역대기 저자는 예루살렘 성전 중심인 유다 왕국의 역사만을 다루었고 그 중에서도 우상 숭배를 반대한 왕의 업적을 강조하였다(대하 15:9-15; 17:7-9; 19:5-11; 29:3-11).
- (3)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의 생애에 있어서 사생활보다 성전 건립의 예비적 사건들(대상 13-17, 22장 그리고 성전 건축과 봉헌식에 중점을 두었다(대하 2-7장)). 그래서 모세의 율법과 성전, 법제, 레위 지파의 사적, 성전 찬양대가 강조되어 나타났다(대상 9:27-34; 22-25장).
- (4) 이와 같은 역사 서술은 다윗-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부각시키어 신정 체제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갖게 하기 위함이다.

5. **㉡** 역대기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라

- ㉠** (1) 역대기의 역사 서술은 창조 후인 아담의 족보로부터 시작하고 있다(1:1).
- (2) 역대상은 다윗의 통치를 중심으로 그가 죽은 것과 솔로몬이 등극하기까지의(B. C. 970년경) 사건들을 서술하고 있다. 이때는 다윗이 영토를 확장하고(11:4-9; 18장-20:8)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하여 준비하며(22:1-23:1) 레위인들의 기강을 세우던 시기였다(23-26장).
- (3) 역대하는 솔로몬의 통치(B. C. 970-930)기간 중에 있었던 성전 건축(B. C. 959, 2-7장)과 그 후 이스라엘이 영광과 명성을 얻은 것(8-9장)과 남왕국 유다 열왕들의 역사(10-36장)를 B. C. 589년까지 선별하여 다루고 있다.
- (4) 또한 B. C. 538년 유다인들을 귀국하도록 허용하는 고레스의 조서(대하 36:22-23)와 B. C. 500년경까지의 족보를 포함하고 있다(대상:3:17-24).
- (5) 이외의 사람들에 대하여는 열왕기상 서론 ㉠ 5를 참조하라.

6. **㉢** 역대기는 무슨 자료들을 근거로 하여 기록되었는가?

- ㉠** (1) 역대기는 창세기와 함께 역사적인 내용의 자료와 예언적인 내용의 자료들을 근거로 하여 기록되었다.
- (2) 역사적인 자료들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열왕기(대하 16:11; 25:26; 28:26), 이스라엘과 유다의 열왕기(대하 27:27; 35:7; 36:8), 이스라엘의 열왕기(대하 20:34), 열왕기의 주석(대하 24:27) 등으로 모두 역사적인 책이다.
- (3) 예언적인 내용의 자료는 선지자(예언자)들의 글로서 사무엘, 나단, 갓, 아히야, 잇도, 스마야, 하나니의 아들 예후 등 초기 선지자들의 문서와 이사야와 호세아 등 후기 선지자들의 문서들이다(대상 29:29; 대하 9:29; 12:15; 13:22; 26:22; 32:32; 33:18, 19).
- (4) 역대기의 저자가 이토록 많은 사료(史料)를 사용하여 역대기의 사건들을 썼다는 것은 역대기의 내용이 역사성(歷史性)을 갖고 있음을 나타낸다.

7. **㉣** 역대기는 열왕기와 사무엘서의 동일한 사건을 많이 다루고 있다. 그 본문을 서로 비교하라.

- ㉠** (1) 사무엘서와의 비교는 사무엘하 서론 ㉠ 6을 참조하라.
- (2) 열왕기와의 비교는 다음과 같다.

사 건 내 용	역 대 하	열 왕 기 하
솔로몬의 일천 번째 드림	1:2-13	3:4-15
솔로몬의 무역	1:14-17	10:26-29
솔로몬의 역군들	2장	5:15-23
금·은 기구를 봉헌함	3:1-5:1	7:13-51
성전 낙성식	5:2-7:10	8장
여호와와의 언약	7:11-22	9:1-9
솔로몬과 히람의 교역	8장	9:10-28
솔로몬의 부귀	9:1-28	10:1-13, 14-29
솔로몬의 행적과 죽음	9:29-31	11:41-43
이스라엘 지파의 분열	10:1-11:4	12:1-24
애굽 왕 시삭의 예루살렘 약탈	12:2, 9-16	14:21-31
유다 왕 아비아	13:1, 2, 21, 22	15:1, 2, 6-8
아사의 우상 파괴	14:1, 2; 15:16-19	15:11-16
아사의 행적	16:1-6, 11-14	15:17-24
아합과의 전사	18:2-34	22:2-35
여호사밧의 행적	20:31-21:1	22:41-51
여호람의 학정	21:5-10, 20	8:17-24
아하시야의 악행	22:1-6, 7-9	8:25-29; 9:16-28; 10: 12-14
아달라의 왕국 차지	22:10-23:21	11장
요아스의 선정	24:1-14, 23-27	12:1-17, 18-22
아마샤의 선정과 에돔 정벌	25:1-14, 11, 17-28	14:1-14, 17-20
웃시아의 행적	26:1-4, 21-23	14:21, 22; 15:2-7
요담의 치세와 유다의 번영	27:1-3, 7-9	15:33-36, 38
아하스의 실정과 아람의 침입	28:1-4, 26-27	16:2-4, 19, 20
히스기야의 선정	29:1, 2	18:2-3
앗수르 왕 산헤립의 침입	33:1-21	18:13-19:37
히스기야의 기도	32:24-25, 32-33	20:1-2, 20:21
우상을 섬기는 므낫세의 실정	33:1-10, 20-25	21:1-9, 18-24
요시아의 선정	34:1, 2, 8-32	22장
유월절 규제 준수	35:1, 18-24, 24-27; 36:1-4	23:21-23, 28-34
바벨론에 끌려 간 여호야김	36:5-6, 8-12	23:36, 37; 34:1; 5-6, 8-19
고레스의 조서 공포	(36:22-23)	(스 1:1-2)

8. ㉠ 역대기는 열왕기와 사무엘서에서 다룬 사건들을 많이 생략하고 있다. 생략한 사건들이 무엇인지 말하라.

㉠ (1) 먼저 다윗의 역사에서 생략된 사건들은 다윗과 사울 및 그 가문과 연관된 사실들이다. 특히 다윗의 사생활에 대한 사건이 많이 생략되어 있다.

(2) 곧 다윗이 유다 성읍 헤브론에서 7년 동안 통치한 것과, 사울 왕과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에 대한 다윗의 행동(삼하 1:1-4:9) 미갈과의 관계(삼하 6:20-23) 밧세바와의 성 범죄(삼하 11, 12장) 다말의 사건과 아들 압살롬의 반역 사건들(삼하 13-19장) 기브온 사람들에 의한 사울 자손의 처형(삼하 21:1-14) 다윗의 감사 노래와 최후의 말(삼하 22장; 23:1-7) 아도니야의 음모와 솔로몬의 기름 부음(왕상 1장) 다윗의 요압과 바

실례와 시므이에 대한 유언 등이다.

- (3) 두번째로 솔로몬 역사에서도 그의 사적인 생활을 많이 생략했다. 즉 솔로몬이 요압과 시므이와 아도니야를 처벌한 것(왕상 2:13-46) 바로의 딸과 결혼한 것(왕상 3:1-3)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과 그의 영광과 지혜에 대한 묘사(왕상 3:16-5:12)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건립한 것과 왕궁에 대한 묘사(왕상 7:1-12) 솔로몬의 첩들과 우상 숭배와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왕상 11:1-40) 등이다.
- (4) 세번째로 여로보암에 의해 건립된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와 엘리야 및 엘리사의 생애에 대한 언급이 없다. 다만 유다 왕국과 우호적인 경우나 적개심을 가지고 싸운 경우만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 (5) 이와 같이 과감한 생략이 이루어진 것은 역대기 저자가 수많은 사건들을 다 전달하려는 의도에서 본서를 쓴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찾고 그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축복과 영광이 있었다는 사실을 뚜렷이 밝히기 위하여 쓴 것이기 때문이다.

9. **㉠** 역대기에는 사무엘과 열왕기에서 생략되어 있는 사실과 사건들이 수록되어 있다. 그것을 본문을 들어 밝히고 그 외 부가된 내용을 말하라.

- ㉠** (1) 역대기에만 수록된 내용으로는 ① 대상 12장 : 사울이 다윗을 핍박하던 시대에 다윗을 따랐고 헤브론에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한 영웅들 ② 대상 15, 16장 : 법제를 옮기는 데 봉사한 레위인들에 대한 기록 ③ 대상 22장 : 다윗의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 ④ 대상 23-27장 :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관한 통계적 서술과 다윗 시대의 군대와 행정 요원에 대한 수자 ⑤ 대상 28, 29장 :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한 마지막 명령 등이 역대기의 본문을 통해서 밝혀진 새 사실들이다.
- (2) 또한 부가된 내용들은 ① 르호보암으로부터 요람까지 이르는 유다 왕국의 역사가 열왕기에서보다 더 길게 서술되고 있으며 ② 유다에 있는 선지자들의 생애가 상당히 보충되어 상세히 설명되고 있다. ③ 또한 열왕기에서 발견되지 않은 열왕들의 여러 가지 업적들이 소개되고 있다.
- (3) 이러한 사실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다스림을 받는 신정(神政) 국가로서 유다 왕국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밝히며 풍요와 번영의 모습으로서 부각시키어 신정적 국가를 건설하기 위함이다.

10. **㉠** 역대기의 특징을 열왕기와 사무엘서와 비교하여 말하라.

- ㉠** (1) 역대기는 제사장적-레위적 표준에서 역사를 기록하고 있으나 열왕기와 사무엘서는 예언자적 입장에서 서술하였다.
- (2) 즉 후자의 책들은 역사가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 다스려진다는 예언자적 신앙에 따라 기록된 것을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시고 다스리시며 징계하시는 모습이 선지자들과 왕들을 통해 증거된다. 그리고 전자 곧 역대기에는 번영과 평화는 여호와께서 주신다는 제사장적-레위적 신앙에 따라 기록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외하던 시대에 있었던 번영과 평화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 (3) 또한 역사 서술적인 면에서 볼 때 역대기는 주관적이며 열왕기와 사무엘서는 객관적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 (4) 특히 역대기의 주관적인 특성은 그 내용에 있어서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에 비해 어떤 것은 변형되었고 어떤 것은 새로운 사실이 보충되었으며 또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5) 그래서 똑같은 사실과 역사적 순서가 문자적으로 같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비판되기보다는 오히려 구속사의 새로운 측면을 밝힌 것으로서 열왕기와 사

무엘서의 역사성을 증거해 주며 보충해 주는 특성을 갖게 한다.

- (6) 그리고 사무엘서와 열왕기는 이스라엘만 아니라 세계 만국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신학적 관심이 있는 반면에 역대기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비롯해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신학적 관심을 갖고 있다.

11. **㉠** 역대기의 내용을 네 가지로 구분하라.

- ㉠** (1) 요약된 자료로서 선민의 족보가 대상 1-9장에 나온다.
 (2) 성전 건축을 준비한 다윗 왕과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 왕의 역사는 대상 10-29장, 대하 1-9장에 나온다.
 (3) 르호보암으로부터 왕국의 파멸, 즉 그 주민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갈 때까지의 유다 왕국의 역사가 대하 10:1-36:21까지 나온다.
 (4)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한 고레스의 칙명(勅命)은 대하 36:22, 23에 언급되어 있다.

12. **㉠** 역대기 첫 부분에 나오는 족보(대상 1-9장)를 여섯 부분으로 세분하라.

- ㉠** (1) 1 장 : 아담에서 이스라엘과 에돔까지 이른 족장들의 족보와 그 후손들과 왕들의 족보
 (2) 2:1-4:23 : 이스라엘 자손들과 다윗 때까지의 유다 자손들 및 다윗 후손들의 족보
 (3) 4:24-5:26 : 시므온의 족보와 요단 저편에 거주했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앓 수르에게 패망하기까지의 족보
 (4) 6 장 : 레위인의 족보와 아론 및 제사장들의 족보와 그들이 받은 거주지들
 (5) 7, 8 장 : 나머지 지파들, 즉 잇사갈, 베나민, 납달리, 므낫세 반 지파, 에브라임과 아셀(단과 스불론만 생략됨) 지파의 가족들이 사울의 가계(家係)와 함께 기록되어 있다.
 (6) 9 장 : 예루살렘에 거하는 주민들의 명부와 다윗 역사에로의 이전을 위한 사울 족보의 기록(두번째)

13. **㉠** 역대기에 있는 다윗부터 포로기까지의 역사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밝혀라.

- ㉠** (1) 다윗 시대(대상 10-29장) : 사울의 죽음과 다윗의 즉위, 예루살렘 거민의 정비 그리고 전쟁과 인구 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준비, 레위인과 무사들의 구분과 직책, 그리고 최후의 유언과 죽음이 나온다.
 (2) 솔로몬 시대(대하 1-9 장) : 기브온에서의 엄숙한 제사와 솔로몬의 부귀, 성전 건축과 봉헌, 솔로몬의 성읍들, 건축과 노예와 종교 규제와 오빌로의 항해와 시바 여왕과의 교통과 그 영광, 그 외의 행적과 죽음 등의 역사가 담겨져 있다.
 (3) 르호보암에서 시드기야까지의 유다 왕국의 시대(대하 10-36장) : 10명의 선지자와 20명의 왕들의 통치가 담겨져 있다.

14. **㉠** 본서의 내용을 세분하라.

- ㉠** (1) 아담으로부터 다윗까지의 족보 / 1:1-9:44
 ①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 / 1:1-27
 ② 아브라함에서 야곱(이스라엘)까지 / 1:28-54
 ③ 이스라엘에서 다윗까지 / 2:1-55
 ④ 다윗에서부터 포로 시기까지 / 3:1-24
 ⑤ 열 두 족장들의 족보 / 4:1-8:40
 ⑥ 예루살렘의 거민들 / 9:1-34
 ⑦ 사울의 가계 / 9:35-44
 (2)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 10:1-12:40
 ① 사울의 죽음 / 10:1-14

- ② 다윗의 등극 / 11:1-3
- ③ 예루살렘의 정복 / 11:4-9
- ④ 다윗의 용사 / 11:10-12:40
- (3) 다윗의 통치 / 13:1-29:21
 - ① 다윗과 법궤 / 13:1-17:27
 - ② 다윗의 정복 사업 / 18:1-20:8
 - ③ 인구 조사를 행한 다윗의 죄 / 21:1-30
 - ④ 성전 건축을 위한 다윗의 준비 / 22:1-23:1
 - ⑤ 레위인의 직무 위임 / 23:2-26:32
 - ⑥ 다윗이 거느린 시민 지도자들 / 27:1-34
 - ⑦ 백성들과 솔로몬에게 남긴 다윗의 유언 / 28:1-21
 - ⑧ 다윗의 등극과 다윗의 임종 / 29:22-30
 - ⑨ 다윗의 제물들과 예배 / 29:1-21
- (4) 솔로몬의 등극과 다윗의 임종 / 29:22-30

15. **㉠** 본서의 요절은 무엇인가?

- ㉠** '다윗이 가로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22:1).

연구자료

유대인들의 성경 분류와 역대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성경과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성경은 편집 체제가 다르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약 27권까지 포함되어 신·구약 전 66권으로 이루어져 있는 성경을 사용하고 있으나 유대인들은 아직도 구약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성경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들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성경을 분류하는데 구약 전체를 율법서(Torah), 예언서(Nebhiim), 성문서(Kethubhim)로 나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사무엘상·하를 1권의 책으로 열왕기상·하 및 역대기상·하, 12소선지서를 역시 각각 1권의 책으로 본다. 따라서 이 같은 그들의 분류법에 의하면 구약의 총 권수는 24권이 되는데 이를 좀더 세분해 볼 것 같으면 다음과 같다.

율법서(5권)	모 세 오 경	창, 출, 레, 민, 신
예언서(8권)	전기 예언서	수, 삿, 삼(상·하), 왕(상·하)
	후기 예언서	사, 렘, 겔, 12소선지서
성문서(11권)	시가서	아, 잠, 읍
	오축	아, 룻, 애, 전, 에
	예언적 역사서	단, 스-느, 대(상·하)

한편 유대인들이 역대기를 성문서로 분류하고 있는 이유는 역대기가 제사장직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 1 장 아담에서 야곱까지의 족보

단락구분 1-4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족보 / 5-7 노아의 아들 야벳의 후손들 / 8-16 노아의 아들 함의 후손들 / 17-23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들 / 24-28 셈에서 아브라함의 아홉에 이르는 족보 / 29-31 아브라함의 서자 이스마엘의 아들들 / 32-33 아브라함의 첩 그두라의 후손 / 34-37 이삭의 두 아들과 그 중 에서의 후손들 / 38-42 세일의 후손들 / 43-54 에돔, 땅의 역대 왕들과 에돔 족장들의 이름

- 1 아담, 셋, 에노스,
- 2 게난, 마할랄렐, 야렛,
- 3 에녹, 므두셀라, 라멕,
- 4 노아, 셈, 함과 야벳,
- 5 야벳의 아들은 고크벨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 6 고크벨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디밧과 도갈마요
- 7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잇딤과 도다님이더라
- 8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 9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월라와 삼다와 라아마와 삼드가요 라아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요
- 10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세상에 처음 영결한 자며
- 11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뫼와 르하빔과 납두힘과
- 12 바드루십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으니 블레셋 족속은 가슬루힘에게서 나왔으며
- 13 가나안은 만아들 시돈과 헛을 낳고
- 14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 15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 16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라
- 17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앓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섹이라
- 18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 19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 때에 땅이 나뉘었음이요 그 아우의 이름은 욥단이며
- 20 욥단이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뻬트와 예라와
- 21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 22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 23 오빌과 하월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욥단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 24 셈, 아르박삿, 셀라,
- 25 에벨, 벨렉, 르우,

- 26 스룩, 나흠, 데라,
- 27 아브람 곧 아브라함
- 28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 29 이스마엘의 세제는 이러하니 그 만아들은 느바웃이요 다음은 게달과 앓브엘과 밍삼과
- 30 미스마와 두마와 맛사와 하닷과 데마와
- 31 여들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스마엘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 32 아브라함의 첩 그두라의 낳은 아들은 시므란과 욥산과 드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욥산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요
- 33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눅과 아비다와 엘다아니 그두라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 34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 35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르우엘과 여우스와 알람과 고랴요
- 36 엘리바스의 아들은 데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딤나와 아말렉이요
- 37 르우엘의 아들은 나हत과 세라와 삼마와 밋사요
- 38 세일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요
- 39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맘이요 로단의 누이는 딤나요
- 40 소발의 아들은 알란과 마나हत과 에발과 스비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요
- 41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요 디손의 아들은 하므란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 42 에셀의 아들은 빌한과 사아완과 야아간이요 디산의 아들은 우스와 아란이더라
- 43 이스라엘 자손을 치리하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이 이러하니라 브울의 아들 벨라니 그 도성 이름은 딤하바며
- 44 벨라가 죽으매 보스라 세라의 아들 요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 45 요밥이 죽으매 데만 족속의 땅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 46 후삼이 죽으매 브닷의 아들 하닷이 대신하

여 왕이 되었으니 하닷은 모압 들에서 미디안
 을 친 자요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47 하닷이 죽으매 마스레가 사들라가 대신하
 여 왕이 되었고
 48 사들라가 죽으매 하숫가의 르호봇 사울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49 사울이 죽으매 막복의 아들 바알하난이 대
 신하여 왕이 되었고
 50 바알하난이 죽으매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이요 그 아내의 이
 름은 므헤다벨이라 메사합의 손녀요 마드렛의
 딸이었던라
 51 하닷이 죽은 후에 에돔의 족장이 이러하니
 담나 족장과 알라 족장과 여벳 족장과
 52 오흐리바마족장과 엘라족장과 비논족장과
 53 그나스 족장과 데만 족장과 밄살 족장과
 54 막디엘 족장과 이람 족장이라 에돔 족장이
 이러하였더라

1. ㉠ 본장의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 ㉠ (1) 아담으로부터 노아, 즉 홍수가 있기까지는 세대들과 노아의 아들들로부터 아브라함의 아들 에서의 후손까지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다. 이 족보는 창세기를 기초로 한 것이다 (창 5, 10, 25, 36장).
- (2) 본서가 기록될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 포로 생활로 인하여 자신들의 족보와 조상들로부터 전해 오던 여호와 신앙을 잊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족보 이야기를 통하여 자신들의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하고 뿌리를 되찾는 작업이 필요했다.
- (3) 특별히 그들은 언약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갈 주역들이라는 관점에서 그들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역사를 어떻게 진행시켜 오셨는가를 명확히 알 필요가 있었다.
- (4)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영적 이스라엘이라 일컬어지는 우리들도 영적으로 혼탁한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가끔은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이며 어디서부터 출발한 존재인지를 망각할 때가 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성경으로 눈을 돌려 우리의 진정한 뿌리를 찾는 작업과 더불어 존재 이유를 재확인해야만 할 것이다.

2. ㉠ 아담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1절)

- ㉠ (1) '아담'은 흙이란 뜻의 히브리어 <아다마>와 동일한 어원을 갖고 있는 말로서 그 뜻은 '사람'이다(창 1:27).
- (2) 이 아담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아담, 곧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임을 가리킨다(창 2:7).
- (3) 이 아담 곧 사람에게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창 1:28) 고 말씀하셨다.

3. ㉠ 역대의 족보를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이유는 무엇인가? (1절)

- ㉠ (1) 이스라엘의 족보가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담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손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긍지를 말하려는 것이다.
- (2) 이러한 긍지와 복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어지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둘째 아들인 그리스도에 의해 새로 태어난 사람들로서(고전 15:22)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믿음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이다(롬 4:13; 16, 갈 4:5-7).
- (3) 그러므로 성도들은 악과 혼란의 세력 속에 살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긍지를 갖고 악의 세력과 싸워 이기며 하나님이 주신 세계를 맡아 다스려 나가야 한다(참조, 엡 6:12, 13).

4. ㉠ 아담의 맏아들은 가인인데 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아담의 제보가 '셋'으로 연결된 이유는 무엇인가? (1절)

- ㉠ (1) 창 4:1-24에 보면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인 불의한 자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 대신 셋을 주셨다. '셋'이란 이름은 '택함을 받은 자' 혹은 '대신 줌'의 뜻을 가지고

있다.

- (2) 또한 창 5 장의 노아에 이르는 역사에서도 가인이 빠지고 아담에서 셋으로 이어진다.
- (3) 이것은 불의한 자는 결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구속사는 그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그래서 가인의 이름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족보에서 사라진 것이다.
- (4) 마찬가지로 오늘날 불의한 자 곧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계 22:27).
- (5) 반면에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의로운 자는 비록 악에 의해 곤고와 환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로서 영생을 얻은 하나님 나라의 후사들이다(빌 4:3; 계 3:5).

5. **㉠ 인류 최초로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을 때는 언제인가? (1 절)**

- ㉠** (1) 사람들이 처음으로 여호와와 이름을 부른 때는 에노스 시대였다(창 4:26).
- (2) 여기에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기도와 찬송으로 여호와께 예배하였다는 것을 말하며, 셋의 아들 에노스는 하나님과의 사귄 속에서 인생을 살았음을 말한다.
- (3) 특히 에노스란 이름의 뜻은 ‘악한 사람’이다. 이것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타락 이후 죄에 매임으로써 죄악에 약해진 사람들은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지 않고는 죄의 유흘을 이기며 살 수가 없다는 사실이다(참조, 롬 10:13).

6. **㉠ 1 절에 나오는 ‘아담, 셋, 에노스’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 ㉠** (1) 아담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셋은 불의 가운데에서도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에노스는 사람들이 예배해야 하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고 있다.
- (2)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창조주요 희망과 위로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 (3)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받고 하나님과 사귀며(예배 중심의 생활) 살아야 할 존재됨을 교훈한다.

7. **㉠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인가? (3절)**

- ㉠** (1) 아담의 7대 손으로 ‘가르치는 자’, ‘시작하는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에녹이다.
- (2) 에녹은 야벳의 아들이며 65세에 인류 중 최장수한 므두셀라를 낳았다. 그는 악의 권세가 가득한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건한 생활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함으로써 365세 때 하나님이 데려 가셨다(창 5:21-24).
- (3)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복되며 소망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시 23:4; 사 41:10).
- (4) 또한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은 죽어도 살며 또 영생의 세계로 인도된다는 사상을 증거해 준다(요 11:25, 26).

8. **㉠ 노아란 이름은 ‘안위’, ‘위로’의 뜻이 있다. 이 이름이 갖는 교훈은 무엇인가? (4절)**

- ㉠** (1) 라멕이 182세에 아들을 낳고 불인 이름이 노아인데, 이 이름을 붙인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땅에서 수고함을 위로받고자 한 것이다(창 5:29).
- (2) ‘노아’는 대홍수 사건과 노아를 통해 계속될 구원의 역사에 대한 예언적인 이름이다.
- (3) 노아는 세상이 물로 심판 받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로 인해 노아 이후의 세상은 하나님의 안위를 받게 된 것이다.
- (4) 이것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새 생명과 구원을 주실 것에 대한 예표이기도 하다.

9. **㉠ 본장 1 - 4 절에 나오는 족보의 특징은 무엇인가?**

- Ⓐ (1) 창세기 5:1-32의 요약으로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가인은 빠지고 셋이 혈통을 잇는다.
 (2) 또한 ‘...의 아들’ 혹은 ‘...를 낳고’ 등의 수식어를 붙이지 않았으며 생애나 업적도 소개하지 않고 단순히 이름만 나열되었다.
 (3) 이것은 역대기 저자가 당시의 독자들이 고대의 덕망 있는 선조들의 이름들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음을 전제한 것임을 말한다.
 (4)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우리들도 믿음의 조상과 전통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는지 반성해 보고 말씀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10. Ⓒ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몇 대이며 노아의 세 아들은 누구인가? (1-4절)**
 Ⓐ (1)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는 10대이다.
 (2) 노아의 세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다.
 (3) 세 아들은 홍수 이후 인류의 세 시조(始祖)가 되었다.
11. Ⓒ **1-4절과 달리 5-23절의 족보가 광범위하게 소개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1) 5-23절에는 노아의 세 아들의 후손들이 각각 소개되고 있다. 즉 야벳의 후손으로는 14명, 셈의 후손으로는 31명이, 그리고 함의 자손으로는 30명 등이다.
 (2) 이것은 대홍수의 심판에 따라, 인류가 멸망한 뒤에 노아의 아들들에 의해 인구가 확산되고 인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다. 노아의 세 아들은 아담과 거의 같은 상황에서 인류를 형성시키고 있다.
 (3) 세상에는 노아의 자손이 아닌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노아를 구원하시며 번성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마땅하다.
12. Ⓒ **야벳과 그의 아들들에 대하여 설명하라(5절).**
 Ⓐ (1) 야벳은 노아의 세째 아들로써 아리안족의 원조가 되었다(창 5:32; 7:13; 10:2).
 (2) 야벳의 아들로는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섹, 디라스 등 일곱이 소개되었다.
 (3) 이들은 팔레스틴 서방과 북방에 거주하여 아리아인의 조상이 된 것으로 보이며(참조, 창 10:2-5, 21) 현재의 인도 - 유럽 민족들의 조상들이다.
13. Ⓒ **야벳의 아들들의 후손은 어떤 족속들의 되었는가? (5절)**
 Ⓐ (1) 고멜(창 10:2, 3)의 후손들은 오늘날의 터키와 우크라이나 지방에 해당되는 갑바도기 아 땅에 정착하여 그곳의 원주민이 되었다.
 (2) 마곡의 후손은 카프카즈 지방에 정착하여 스쿠디아 족속이 되었다.
 (3) 마대의 후손은 메대 땅에 정착하여 메대인(왕하 17:6; 사 13:17)의 조상이 되었다.
 (4) 야완의 후손은 해안 지대 민족들과 관련이 있는데(창 10:4, 5) 이들은 일반적으로 헬라인과 동일시 된다(겔 27:13; 단 8:21; 10:20; 11:2; 욕 3:6).
 (5) 두발의 후손은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에 정착하여 그곳의 원주민이 되었다.
 (6) 항상 두발과 함께 언급되어 있는 메섹(창 10:2; 겔 39:1)은 두발의 후손들과 이웃하여 흑해 남서 산간 지역에 정착, 그곳의 원주민이 되었다. 또한 두발과 동맹국을 맺기도 했던 이 족속은 노예와 낚시꾼 장사로 유명했다(겔 27:13).
 (7) 디라스의 후손은 에게해 연안에 정착해 해적민(海賊民)으로 악명높은 족속이 되었다.
14. Ⓒ **아스 그나스의 행적은 어떠한가? (6절)**
 Ⓐ (1) 야벳의 손자요 고멜의 아들이었던 아스그나스는 아라랏, 민니와 동맹하여 바벨론을 공격하여 고대 우라루투 제국과 앗시리아 제국을 멸망시키는데 한몫을 담당하였다(렘 51:27).
 (2) 고멜의 세 아들 중 하나인 아스그나스는 후에 게르만 민족을 이루었다.
15. Ⓒ **8-16절까지의 내용을 설명하라.**

- Ⓐ (1) 여기에는 노아의 후손 곧 4명의 아들, 24명의 손자, 3명의 증손이 언급되어 있다.
 (2) 한편 부도덕한 태도로 인해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은 함의 후손들은 영원히 다른 족속의 노예가 되는 형벌을 받았다(창 9:25-27).

16. ⓐ 함의 네 아들은 누구의 조상이 되었는가? (8-16절)

- Ⓐ (1) 구스는 아라비아의 조상이 되었다.
 (2) 미스라임은 애굽의 조상이 되었으며 블레셋 족속도 미스라임의 후손이다.
 (3) 함의 아들 붓은 리비아의 조상이 되었다.
 (4) 가나안은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알가 족속, 신 족속, 아르왓 족속, 스말 족속, 하맛 족속의 조상이 되었다. 이들은 노아의 저주를 받아(창 9:25) 야벳과 셈 후손의 종이 되었었는데 현재는 멸절되었다.

17. ⓐ 17-23절에는 누구의 후손들이 나오는가?

- Ⓐ (1) 셈의 후손들로서 10명의 아들들과 17명의 후손들이 수록되어 있다.
 (2) 셈은 야벳과 함께 술 취한 노아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워 줌으로 형제들 중에서 큰 축복을 받았다(창 9:23-27).
 (3) 그 축복은 셈의 후손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태어났으며(창 11:26) 구세주 예수도 셈의 후손 곧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심으로 그 축복의 사실을 말해 준다.
 (4) 셈의 아들들은 아르메니아와 페르시아만 사이에 있는 서부 아시아와 동부 아프리카의 민족들이 되었다. 곧 앗수르인들, 수리아인들, 갈대아인들, 바사인들 그리고 아라비아인들이다.
 (5) 이러한 셈의 계보는 창 10:21-31; 11:10-26에서도 언급되어 있다.

18. ⓐ 벨렉의 시대에 일어났던 일은 무엇인가? (19절)

- Ⓐ (1) 벨렉의 시대에 땅이 나뉘어진 일이 있었다. 그래서 에벨은 아들 이름을 벨렉 곧 '분리'라는 뜻의 이름을 붙였다(19절).
 (2) '땅이 나뉘었음'이란 말은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온 지면으로 흠으신 사실을 가리킨다(창 11:9).
 (3) 즉 그 시대의 사람들은 말(言語)이 하나였고 성을 건축할 수 있는 훌륭한 기술과 문명 속에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온 땅에 충만하라'(창 9:1)는 하나님의 뜻에 정면 도전하였다. 그들은 흠어짐을 막기 위해 성(城)을 쌓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혼잡케 하시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들은 성을 쌓지 못하고 온 땅으로 흠어진 것이다(창 11:1-9).

19. ⓐ 셈의 후손이 17-23절에 이어서 다시 24-27절에 소개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 Ⓐ (1) 17-23절에 나오는 족보는 홍수 후 노아의 세 아들에 의해 다시 인류가 형성된 모습을 말해 주는 것이다. 창 10:21-29에 근거하고 있는 본문은 본장 5절부터 시작된 족보 중의 한 부분이다.
 (2) 그리고 24-27절에 나오는 족보는 아담에서 노아(10대), 노아의 '아들' 셈으로부터 아브라함에 이르는(10대) 선택된 자손의 계보를 보여 주는 것이다.
 (3) 즉 창 11:10-26을 근거로 많은 족속 중에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의 시조 아브라함을 밝힌 것이다.

20. ⓐ '아브람 곧 아브라함'에 대하여 설명하라(27절)

- Ⓐ (1) 아브람은 자식이 없는 중에도 별과 같이 자손이 많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의롭게 보시고 언약을 맺으셨다(창 15:5-10; 17:1-22).
 (2)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그의 자손의 하나님이 되셔서 영원한 기업 가나안을 주신다는 약속이었다.

- (3) 또한 이 언약의 표시로서 아브람의 이름은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되었다.
- (4) 즉 이 언약으로서 아브람은 자손과 기업의 축복을 받았고 또한 아브라함이란 축복의 이름을 받은 것이다.
- (5) 그러므로 ‘아브람’이란 ‘고귀한 아버지’란 뜻이며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이다(창 17:5).
- (6) 결국 이 사실은 ①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백성의 조상(믿음의 조상)이며 ②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축복받은 선민이라는 신앙적 뿌리를 밝혀 주는 것이었다.
- (7)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이을 축복의 선민(選民)임을 말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21. ㉠ 28절에서 이스마엘보다 이삭을 먼저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 (1) 이스마엘은 사라의 여종 하갈에게서 난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비록 서자이기는 하나 이삭보다 13년 위인 장자이다. 또한 하나님이 자손의 축복도 해주셨다(창 16:1-16).
- (2) 그러나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장자권을 이을 수 없었고 이삭이 잇게 되었기 때문이다.
- (3) 그것은 이삭이 아브라함이 백세가 된 노년에 얻은 언약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곧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에 의해 얻은 아들임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이 친히 이삭으로 아브라함의 대(代)를 잇게 하셨기 때문이다(창 15:4-6; 17:19; 22:16, 17).
- (4) 그래서 본질은 이삭이 아브라함을 이어 선택되었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은 이스라엘의 조상임을 밝힌 것이다. 즉 하나님은 노아의 자손 중에 셈을, 셈의 자손 중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이삭을 택하셨다.
- (5) 이렇게 선택하시고 기업(언약)을 잇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도 이루어졌다. 즉 우리를 아브라함의 혈통인 유대 민족 대신에 믿음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신 사실이다(롬 9:7, 8).
- (6)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여 선민으로서 기업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계 2:25, 26).

22. ㉠ 28-31절까지의 내용을 설명하라.

- ㉠ (1) 아브라함의 두 아들과 그 중에 이스마엘의 12아들이 소개되어 있다.
- (2) 이스마엘의 12아들은 12방백이 되며 큰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축복을 받았다(창 17:20; 16:10).
- (3) 여기서 이스마엘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심’이다. 자세한 내용은 창 16:1-16; 21:8-21을 참조하라.

23. ㉠ 32, 33절에 있는 족보와 족속에 대하여 설명하라.

- ㉠ (1) 이곳에는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그두라로부터 출생한 후손들의 이름이 나타나 있다.
- (2) 이들의 족보는 이미 창 25:1-4에 나오는데 역대기에는 증손이 생략되어 있다.
- (3)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이들에게 재물을 주어 동방 곧 동국(東國)으로 보냄으로써 본처의 아들인 이삭과 분리시켰다(창 25:6). 여기에서 ‘동국’은 오늘날의 아라비아 땅으로 추정되는 곳이다.
- (4) 한편 이러한 사실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인명이나 지명이 역사적인 배경하에 기록된 실제적인 명칭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자료가 된다.

24. ㉠ 34-37절까지의 족보와 내용을 설명하여라.

- ㉠ (1) 본귀절에서는 이삭의 두 아들과 그 중에 에서의 자손에 대한 족보가 나온다.
- (2) 에서는 팔족 한 그릇에 장자권을 야곱에 팔아 버리므로써 생득권을 상실하였다.

- (3) 이 사실은 이삭에게서 이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권리를 경시한 것이다.
 (4)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에게로 갔다.
 (5) 이러한 에서의 자손은 야곱(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섬기는 에돔인들이 되었다(참조, 창 25:22, 29-34).

25. **㉠ 세일의 아들에 대해 설명하라(38-42절).**

- ㉠** (1) 세일과 그 후손들은 에서보다 훨씬 전에 에돔 땅에 살았던 족속으로서 그들은 흠을 파내어 그 속에 동굴을 지어 살았으므로 혈거인(穴居人)이란 의미를 가진 '호리' 족속으로 불리었다(창 36:20).
 (2) 이들은 원래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었지만 후일 에서와 그 후손들에 의해 정복되어(신 2:12, 22) 점차 한 백성으로 동화(同化)되어 갔으며 결국은 에돔 족속을 형성하게 되었다(창 36:19-43).
 (3) 그런데 세일의 후손 중 한 사람인 아나가 광야에서 나귀를 치다가 온천을 발견한 사건 외에는 이들 족속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다(창 36:24).

26. **㉠ 29절에는 다른 곳과는 달리 '이스마엘의 세계'라는 '세계'가 나온다. 이를 설명하라.**

- ㉠** (1) '이스마엘의 세계'라는 말은 히브리어 <볼르토타>을 번역한 것이다.
 (2) 이 말은 '그들의 계보' 또는 '그들의 족보', '그들의 세대'라는 뜻이다.
 (3) 그래서 공동 번역과 RSV는 '그들의 계보(족보)'로, NIV는 '그들의 후손(자손)'으로, KJV는 '그들의 세대'로 번역하고 있다.
 (4) 여기에서 그들은 이삭과 이스라엘을 가리킨다.
 (5) 따라서 개역 성경의 번역은 지나친 의역으로서 '그들의 자손은 이러하니라. 이스마엘의 말아들은...'으로 고쳐 읽어야 한다.

27. **㉠ 본문에 '야곱이란' 이름 대신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나온 까닭을 말하라(34절).**

- ㉠** (1) 야곱이란 이름은 '발꿈치를 잡은 자', '빼앗는 자'란 뜻을 가지고 있다.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 축복을 가로챈 아들을 뜻한다(창 25:26; 27:36).
 (2)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다'란 뜻이다. 이 이름은 형 에서를 피해 도망했던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압북 강가에서 밤새워 하나님께 구하여 용서 받을 때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름(창 32:28)이다. 즉 이것은 새 사람이 되어 이삭의 뒤를 이은 언약의 아들임을 뜻한다.
 (3) 따라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쓴 것은 간교한 야곱이 아니라 언약의 아들이란 점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4) 죄로부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언약의 아들로서 옛 모습을 나타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된 새 모습을 나타내며 살아야 한다. 또한 이것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도 하다(마 5:13-16; 엡 4:22-5:21).

28. **㉠ 43-54절의 내용을 말하라.**

- ㉠** (1) 여기서는 부록처럼 이스라엘 왕국의 시작 전까지의 에돔 왕과 족장들이 나온다.
 (2) 그들은 8명의 에돔 왕들과 11명의 에돔 족장들로서 왕들은 연대적으로 소개되었고 족장들은 족속별로 곧 지리적 성격을 띤 가운데 소개되었다.
 (3) 왕들의 족보는 창 36:31-39에서, 족장들의 이름은, 창 36:40-43에서 유래한 것이다.
 (4) 이와 같이 이방 민족의 족보까지 첨가한 이유는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생활했음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29. **㉠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43-50절)**

- ㉠** (1)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훨씬 먼저 왕정(王政)을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1:43-51; 창 36:31-39).

(2) 즉 이스라엘에 왕의 제도가 시작되기 약 900년 전부터 에돔에는 독특한 사회적인 제도가 있었다.

(3) 특히 8명의 왕들을 보면 일반 왕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왕권의 세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은 그만큼 왕권을 위한 투쟁이 심했거나 왕이 선출되었음을 암시한다.

30. **㉠** 46절과 50절에 동일한 이름의 인물이 나온다. 이에 대하여 설명하라.

㉠ (1) 46절과 50절에 나오는 하닷은 동일인이 아니다.

(2) 즉 50절에 나오는 하닷은 창 36:39에 의하면 하달이다. 또한 그의 도성 이름도 바이가 아니라 바우로 나온다.

(3) 이러한 차이는 필사자의 오류에서 혹은 그 명칭의 상이한 발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31. **㉠** 이스라엘의 삼대 족장은 누구인가?

㉠ (1)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이스라엘)이다.

(2) 출 3:6, 15와 창 28:13을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고 말씀하셨다.

(3) 이스라엘의 삼대 족장 이름은 언약의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확인할 때마다 나타난다(참조, 창 28:13-15; 출 3:4-22; 왕상 18:36-39).

화보자료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아브라함. 아래의 사진은 샹티이 콩테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그림으로서 덴마크 성경의 시편 가운데 나오는 삽화이다.



본장에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조상들의 족보가 기록된 이유는 이스라엘의 혈통의 신앙적 정통성을 보여 주기 위함이다.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의(28절) 이름도 이 족보 가운데 들어 있다.

제 2 장 유다 가계 (家系) 의 족보

단락구분 1-2 이스라엘의 열 두 아들 / 3-4 유다의 다섯 아들 / 5-8 유다의 아들 중 베레스와 세라의 자손 / 9 베레스의 아들 중 헤스론의 아들들 / 10-17 헤스론의 아들 중 람의 자손들 / 18-20 헤스론의 아들 중 갈렙의 자손들 / 21-24 헤스론이 마길의 딸에게서 얻은 스굽의 자손 / 25-41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므엘의 자손들 / 42-55 헤스론의 아들 중 갈렙의 자손들

1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잇사갈과 스블론과

2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 이더라

3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로 말미암아 낳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4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로 말미암아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다섯이더라

5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यो

6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니 모두 다섯 사람이요

7 가르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저는 마땅히 멸할 물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며

8 에단의 아들은 아사라더라

9 헤스론의 낳은 아들은 여라므엘과 람과 글루배라

10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11 나손은 살마를 낳았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았고

12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13 이새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와와

14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랫대와

15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16 저희의 자매는 스루야와 요압과 아사헬 삼형제요

17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벳이였더라

18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 아내 아수바와 여러옷에게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 낳은 아들은 예셀과 소밧과 아르돈이며

19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랏에게 장가 들었더니 에브랏이 그로 말미암아 홉을 낳았고

20 홉은 우리를 낳았고 우리는 브살렘을 낳았더라

21 그 후에 헤스론이 욱십 세에 길르앗의 아비 마길의 딸에게 장가 들어 동침하였더니 저가 헤스론으로 말미암아 스굽을 낳았으며

22 스굽은 야일을 낳았고 야일은 길르앗 땅에서 스물 세 성읍을 가졌더니

23 그술과 아람이 야일의 성읍들과 그낫과 그성들 모두 욱십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저희는 다 길르앗의 아비 마길의 자손이였더라

24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 아내 아비야가 그로 말미암아 아스홀을 낳았으니 아스홀은 드고아의 아버지라

25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므엘의 아들은 맏아들 람과 그 다음 브나와 오렐과 오셈과 아히야며

26 여라므엘이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아다라라 저는 오남의 어머니라

27 여라므엘의 맏아들 람의 아들은 마아스와 야민과 예젤ियो

28 오남의 아들들은 삼매와 야다요 삼매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며

29 아비술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하일이라 저가 그로 말미암아 아반과 몰릿을 낳았으며

30 나답의 아들은 셀렛과 압바임이라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31 압바임의 아들은 이시요 이시의 아들은 세산ियो 세산의 아들은 알래요

32 삼매의 아우 야다의 아들은 예델과 요나단이라 예델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33 요나단의 아들은 벨렛과 사사라 여라므엘의 자손은 이러하며

34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 뿐이라 그에게 이르라라 하는 애굽 종이 있는 고로

35 딸을 그 중 야르히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저가 그로 말미암아 앓대를 낳았고

36 앓대는 나단을 낳았고 나단은 사밧을 낳았고

37 사밧은 에블랄을 낳았고 에블랄은 오벳을 낳았고

38 오벳은 예후를 낳았고 예후는 아사라를 낳

있고

39 아사라는 헬레스를 낳았고 헬레스는 엘르 아사를 낳았고

40 엘르아사는 시스매를 낳았고 시스매는 살롬을 낳았고

41 살롬은 여가마를 낳았고 여가마는 엘리사마를 낳았더라

42 여라므엘의 아우 갈렙의 아들 곧 말아들은 메사니 십의 아비요 그 아들은 마레사니 헤브론의 아비며

43 헤브론의 아들은 고라와 답부아와 레짐과 세마라

44 세마는 라함을 낳았으니 라함은 요르그암의 아비며 레짐은 삼매를 낳았고

45 삼매의 아들은 마온이라 마온은 벳술의 아비며

46 갈렙의 첩 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가세스를 낳았고 하란은 가세스를 낳았으며

47 야대의 아들은 레짐과 요단과 계산과 벨렛과 에바와 사압이며

48 갈렙의 첩 마아가는 세벨과 디르하나를 낳았고

49 또 맛만나의 아비 사압을 낳았고 또 막베나와 기브아의 아비 스와를 낳았으며 갈렙의 딸은 약사더라

50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말아들 홀의 아들은 이러하니 기랴여아림의 아비 소발과

51 베들레헴의 아비 살마와 벨가델의 아비 하렘이라

52 기랴여아림의 아비 소발의 자손은 하로에와 므누훗 사람의 절반이니

53 기랴여아림 족속들은 이델 족속과 붓 족속과 수맛 족속과 미스라 족속이라 이로 말미암아 소라와 에스다울 두 족속이 나왔으며

54 살마의 자손들은 베들레헴과 느도바 족속과 아다뱃벳요압과 마하낫 족속의 절반과 소라 족속과

55 야베스에 거한 서기관 족속 곧 디랏 족속과 시므앗 족속과 수갓 족속이니 이는 다 레갑의 집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족속이더라

1. **㉠** 본장은 누구의 족보를 다루고 있는가?

㉠ (1) 본장에는 이스라엘의 열 두 아들의 이름과 유다 자손의 족보가 나와 있다.

(2) 특히 유다 지파의 이름은 메시아가 나실 제보에 따라 소개되었다.

(3) 이것은 본서의 저자가 이스라엘 민족의 족보를 영적인 목적에 따라 기록하였음을 보여 준다.

(4) 여기서 영적인 목적이라는 것은 구원의 메시아가 분명히 오시리라는 확신과 소망 속에서 이스라엘의 족보를 취급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즉 족보의 예언적인 의미를 말한다.

2. **㉠** 본장의 내용이 본서의 족보 중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무엇인가?

㉠ (1) 본장의 1, 2절에는 이스라엘의 열 두 아들의 이름이 나온다. 이것은 8장까지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족보를 개괄하는 의미와 그 출발점이 된다.

(2) 또한 본장에서부터 4:23까지는 유다 자손의 족보가 계속되고 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있어서 유다 자손이 차지하는 역사적 중요성을 말해 준다.

(3) 이 중요성은 역대의 왕들이 유다의 자손으로 나왔고 메시아가 유다 자손으로 오신 사실을 통해서 입증되었다(창 49:8-10).

3. **㉠** '이스라엘의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1절)

㉠ (1) '아들'은 히브리 성경 원문에 '아들들'이란 복수로 기록되어 있다.

(2) 따라서 이스라엘의 아들은 야곱(이스라엘)의 12아들과 8장까지 나오는 열 두 지파의 자손들 모두를 가리키고 있다.

(3) 또한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모든 영적 이스라엘, 즉 구원받은 자들을 가리킨다(롬 4:16).

(4)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여김을 받는 것이다(롬 9:6, 8).

(5) 결국 믿음에 의하여 의인으로 인정된 성도들은 모두 영적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다.

4. **㉠** 이스라엘의 열 두 아들을 그들의 어머니에 따라 소개하라(1, 2절).

㉠ (1) 레아의 아들들은 장자인 르우벤, 그리고 시므온, 레위, 유다, 잇사갈, 스불론 등 6명이다.

- (2) 또한 라헬의 아들들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었던 요셉과 그의 동생 베냐민이다.
- (3) 레아의 시녀였던 실바의 아들로는 갓, 아셀 등 2명이다.
- (4) 라헬의 시녀였던 빌하의 아들은 단, 납달리 등 2명이다(창 35:23-26).

5. **㉠** 이스라엘의 열 두 아들 중 특이한 자를 말하라 (1, 2절).

- ㉠** (1) 장자 르우벤은 아버지 이스라엘의 소실인 빌하와 통간(通姦) 함으로 장자의 명분과 권리를 잃었다(참조, 창 35:22;49:4).
- (2) 이스라엘의 세째 아들인 레위는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자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그의 자손은 특별히 성막(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이스라엘의 죄를 위하여 예배하는 자들이 되었다(민 3:5-8, 12, 41).
- (3) 유다는 비록 네째 아들이지만 이스라엘의 아들 중에 가장 복 있는 자가 되었다. 즉 그는 장자의 직분을 이었으며 그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왕손이 되었고 또한 메시아가 그들의 후손으로 오셨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예언한 축복대로였다(참조, 창 49:10; 대상 3:1-16; 마 1:1-17).
- (4) 그리고 '하나님이 더하심'이란 뜻을 가진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 곧 구세주의 예표이다. 요셉은 부친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였으나 형제들의 미움으로 은 이집에 팔려서 처음에는 비천한 곳에 처했으나 결국 존귀하게 되었고 나아가서는 애굽과 모든 이방의 주린 백성을 구원하였다.

6. **㉠** 이스라엘의 열 두 형제 중 맨 처음 그 자손이 소개된 지파는 어느 지파인가? (3 절)

- ㉠** (1) 유다 지파이다. 이들의 자손은 4:23까지 나온다.
- (2) 유다란 이름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는 뜻이다(창 29:35).
- (3) 유다 자손이 처음으로 소개된 것은 유다가 르우벤 대신 장자의 영광을 받았기 때문이다(창 49:8).
- (4) 또한 역대기 저자는 메시아의 조상으로서 유다 자손을 밝히기 위함이다. 그리고 유다는 다윗 왕 등 역대 왕의 조상이기도 했다(창 49:10).

7. **㉠** 유다의 아들들에 대하여 설명하라 (3, 4절).

- ㉠** (1) 유다의 아들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에게서 얻은 에르, 오난 및 셀라와 그리고 며느리 다말에게서 얻은 베레스와 세라 등 모두 다섯 명이다.
- (2) 그러나 에르와 오난은 여호와와 목전에서 악을 행해 죽었고(창 38:7-10) 나머지 3명은 유다의 3대 종족의 조상이 되었다.
- (3) 특히 다말의 아들인 베레스와 세라는 유다의 불륜에 의해 출생한 아들들이지만 명실상부(名實相符)한 유다 자손으로서 베레스는 다윗과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다.

8. **㉠** 3 절의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라는 말씀이 교훈하는 것은 무엇인가?

- ㉠** (1) 유다의 맏아들 에르(엘)와 오난이 여호와께 범죄함으로 징계를 받아 죽은 것을 가리킨다(창 38:7-10).
- (2) 에르는 범죄는 소돔인들의 죄와 같이 동성애적인 음란한 행위로서 이 같은 행위는 사람이 눈에는 가려졌을지라도 여호와와 눈앞에선 숨겨질 수 없는 것이다(창 38:6, 7; 19:5).
- (3) 또한 오난의 잘못된 형의 유업을 잇게 해주어야 하는 자신의 의무를 실행하지 않은 데 있다. 이것은 형의 유산을 차지하려고 한 탐욕에서 비롯된 범죄 행위였다.
- (4) 이러한 숨겨진 마음의 죄악 역시 하나님의 목전(目前)에서 숨겨질 수 없는 것이다(창 38:6, 7; 19:5).
- (5) 이와 같은 사실은 사람이 죄를 숨길 수 없다는 것과 죄의 결국은 사망이라는 것을 분명

하게 가르쳐 준다(참조, 욥 20:27; 눅 8:17; 12:2; 롬 6:23; 약 1:15).

9. **㉠**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의 자손 중 곧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서 얻은 베레스의 후손으로 오셨다. 이 사실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4절)
- ㉠** (1) 메시아가 유다 족속에서 나심은 유다 자손이 다른 자손과 다른 '의'가 있어서가 아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와 선택에 따라서 된 것임을 말한다.
- (2) 또한 유다 자손 중 불륜의 아들 베레스의 후손을 택하여 메시아가 오신 사실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총을 가리킨다. 즉 인간이 불결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구속의 은총을 주신다는 것을 나타낸다.
- (3)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와 무조건적인 은혜에 따라 오신 분이 메시아이다. 그리고 메시아는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며 늘 거룩하게 하시기위해 오신 것이다(요 17:17; 살전 4:7).
- (4)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찬송하는 태도가 바로 '유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이름 속에 담겨 있다.
10. **㉠** '마땅히 말할 물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는 누구인가? (7절)
- ㉠** (1) 가르미의 아들 아갈이다. 수 7:1에는 갈미의 아들 아간으로 나와 있다. 아간은 유대 민족이 출애굽하여 여리고를 점령할 때(수 6, 7장)에 여호와께 바쳐야 할 물건을 노략질하여 자신의 장막 속에 감추었다. 그가 숨긴 물건은 금과 은 그리고 옷이었다(수 6:17-19; 7:1, 21).
- (2)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 성의 점령에 실패하고 약 36명이 죽임을 당했다. 즉 아간의 범죄로 이스라엘이 괴로움을 당한 것이다(수 7:2-5).
- (3) 결국 아간의 범죄가 밝혀져서 아간과 그 가족이 죽임을 당했고 모든 소유도 불살라졌다(수 7:24-26).
- (4) 아간의 범죄는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가로챈 것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가장한 행위였다. 이로 인해 자신과 그의 가족을 비롯해 온 백성이 징계를 받은 사실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귀중한 교훈을 주고 있다.
11. **㉠** 본문 6, 7절에 나오는 세라의 자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 ㉠** (1) 6절에 나오는 세라의 다섯 아들은 솔로몬과 비교된 지혜로운 자들이었다(왕상 4:31).
- (2) 그러나 세라의 자손에는 가르미(갈미)의 아들 아갈(아간)이 가중한 죄를 저질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들도 있었다(수 7:1).
- (3) 세라 자손의 족보에 악한 자도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성경의 기록이 꾸며진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며, 편견된 기록이 아니라 공평성을 갖고 기록되었음을 말해 준다.
12. **㉠** 본장 9-17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 ㉠** (1) 본문의 귀절에는 헤스론의 자손들이 다윗의 대(代)까지 기록 되어 있다.
- (2) 즉 본문의 족보는 1장부터 시작된 긴 족보의 중심을 밝히고 있다. 이것은 다윗이 나타나고 있는 까닭이다.
- (3) 다윗은 족장들의 역사로부터 왕국의 역사를 잇는 성왕(聖王)으로서 소개되며 또한 제왕들의 역사가 다윗으로부터 상세히 기록됨으로써 다윗은 모범적인 왕으로 부각되어 있다(대하 1:17; 17:3; 29:2; 34:3; 35:4).
- (4) 결국 본문의 족보는 그리스도의 조상으로서의 다윗을 내세우고 있다(마 1:1).
13. **㉠** 오벳의 아들 이새는 몇 명의 자녀가 있었는가? (13-17절)
- ㉠** (1) 본문에 의하면 아들 일곱과 두 딸이 소개되어 있다.
- (2) 그러나 삼상 16:8-11에 의하면 이새의 아들은 여덟이며 그 중 다윗이 마지막이었다.

- (3) 이 같은 사실은 이새의 아들 중 한 아들이 어린 시절에 죽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식이 일찍 죽었을 경우 자식이 없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4) 이러한 경우가 본장의 31절과 34절에도 나타난다. 곧 31절에는 '세산의 아들 알래'가 나오고 34절에는 '세산의 아들이 없고'로 나오는 경우이다.

14. **㉠** 본문의 18절에 나오는 갈렙에 대하여 설명하라.

- ㉠** (1) 헤스론의 아들 갈렙은 정탐군이었던 갈렙이 아니다. 정탐군 갈렙은 여분네의 아들로서 헤스론의 아들보다 약 100년 후의 사람이다(참조, 4:15).
- (2) 헤스론의 아들 갈렙은 3명의 아내와 2명의 첩(妾)에게서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얻었다(참조, 18-19, 42, 46, 49절).
- (3) 이같이 여러 자손들의 족보를 기록한 것은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보여 주는 것이다.

15. **㉠** 헤스론의 아들 갈렙에게는 광야 시대에 뛰어나게 활약했던 아들이 있었다. 그는 누구인가? (19절)

- ㉠** (1) 갈렙이 에브라에게 장가들어 낳은 홀이다.
- (2) 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싸울 때에 아론과 함께 한 지도자로서 모세의 손을 부추겨 주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크게 이겼다(출 17:10-16).
- (3) 또한 홀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시내 산에 머무는 동안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장로들을 지도하는 일을 하였다(출 24:14).
- (4) 이렇게 모세를 보좌하며 아론과 함께 백성을 돌보던 홀은 더 이상 언급되지 않는다. 다만 겸손했던 봉사자의 모습을 남길 뿐이다.

16. **㉠** 헤스론의 아들은 몇인가? (9, 21, 24절)

- ㉠** (1) 유다의 손자요, 베레스의 아들인 헤스론은 여라므엘과 람과 글루베라는 세 아들과 육십세에 얻은 스굽 그리고 유복자인 아스홀 등 다섯 명의 아들을 두었다.
- (2) 9 절의 글루베는 18절부터 나오는 갈렙의 동명 이음(同名異音)이다.
- (3) 헤스론의 아들 중 람은 메시아 및 다윗의 조상이 되었다. 다윗은 람의 7 대손이다.

17. **㉠** 애굽 중을 아들로 삼아 대(代)를 잇게 한 사람은 누구인가? (34, 35절)

- ㉠** (1) 세산이다. 31절에는 세산의 아들로서 '알래'가 소개되어 있다.
- (2) 그러나 34절에 의하면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아들이 어렸을 때 죽었다는 것을 뜻한다.
- (3) 그래서 세산은 딸을 자기의 종 야르하에게 주어 자신의 집안을 잇게 한 것이다.
- (4) 아들이 없을 경우 딸이 아버지의 기업을 잇고 아버지의 이름을 후손에게 남기는 규례는 이미 모세 때 법으로 규정되었었다(민 27, 36장).

18. **㉠** 42-55절까지는 누구의 후손이 기록되어 있는가?

- ㉠** (1) 18-20절에 이어지는 갈렙의 후손이 기록되어 있다.
- (2) 갈렙과 그의 자녀에 대해서는 **㉠** 14를 참조하라.
- (3) 본문에 나오는 족보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 (4) 즉 바벨론에 의해 추방되기까지의 족보(42-49절)와 추방된 이후의 족보(50-55절)로 나뉘어진다. 추방 이전에 갈렙의 후손들은 주로 헤브론 근처에 거주했으며 그 이후에 그들은 에브라다 곧 베들레헴 근처에 거주했다(19, 42, 43, 50절; 4:1-4; 창 35:19).

19. **㉠** 족보 중에 서기관 족속이 나온다. 그들에 대하여 말하라 (55절).

- ㉠** (1) 디랏 족속과 시므앗 족속과 수갓 족속이다.
- (2) 이들은 모세의 시대에 아론과 함께 백성을 지도했던 홀의 자손이다.
- (3) 이들은 율법을 가르치며 백성에게 하나님에 대한 선한 지식을 가르치는 자들을 말한다.

제 3 장 다윗 가계(家系)의 족보

단락구분 1-4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 / 5-9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 / 10-16 솔로몬에서 시드기야에 이르는 다윗의 왕손들 / 17-24 사로잡혀 간 여고냐의 후손들

1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 이러하니 만아들은 압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렙 여인 아비가 일의 소생이요

2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매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3 다섯째는 스바냐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람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4 이 여섯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라 다윗이 거기서 칠 년 육 개월을 치리하였고 또 예루살렘에서 삼십 삼 년을 치리하였으며

5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야와 소밤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밧수아의 소생이요

6 또 입할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7 노가와 네벅과 아비아와

8 엘리사마와 엘라다와 엘리벨렛 아홉 사람은

9 다 다윗의 아들이요 저희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 외에 또 첩의 아들이 있었더라

10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람이요 그 아들은 아비아요 그 아들은 아사요 그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11 그 아들은 요람이요 그 아들은 아하시야요 그 아들은 요아스요

12 그 아들은 아마샤요 그 아들은 아사랴요 그 아들은 요담이요

13 그 아들은 아하스요 그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 아들은 므낫세요

14 그 아들은 아몬이요 그 아들은 요시야며

15 요시야의 아들들은 만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16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 아들 여고냐, 그 아들 시드기야요

17 사로잡혀 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 아들 스알디엘과

18 말기람과 브다야와 세낫살과 여가마와 호사마와 느다바요

19 브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므술람과 하나냐와 그 때제 슬로밧과

20 또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가와 하사다와 유삼헤셋 다섯 사람이요

21 하나냐의 아들은 블라다와 여사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댜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22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핫두스와 이갈과 바리야와 느아랴와 사밧 여섯 사람이요

23 스아랴의 아들은 예료에내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세 사람이요

24 예료에내의 아들들은 호다위야와 엘리아십과 블라야와 악굽과 요하난과 들라야와 아나니 일곱 사람이더라

1. ㉠ 본장의 중요한 내용은 무엇인가?

- ㉠ (1) 본장에는 다윗의 아들들로부터 B. C. 500년경까지의 다윗 왕손들이 소개되어 있다.
- (2) 유다 자손들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2:3-4:23) 다윗의 가계가 한 장(章)에 걸쳐서 소개되고 있는 것은 다윗에게 내리셨던 축복이 대대로 실현되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윗의) 위(位)가 영영히 견고하리라' 고 하셨다 (17:13-14).
- (3) 이러한 왕가(王家)의 계보는 궁극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가계를 밝혀 주는 것이다.
- (4) 그리고 다윗 가문의 영광과 통치와 권세는 메시아의 왕적인 권세와 통치 그리고 영광을 예표하는 것이다. 또한 다윗의 가문이 대대로 왕권을 물려받은 사실은 메시아의 왕권과 통치가 영원하리라는 예시(豫示)이다.

2. ㉠ 본문 1-9절의 내용을 말하라.

㉠ (1) 다윗의 아들들이 모친에 따라 그리고 출생지에 따라 소개되어 있다.

(2) 1-4절에는 여섯 명의 처가 헤브론에서 낳은 여섯 명의 아들이 기록되어 있고 5-9절에는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 13명이 기록되어 있다. 이외에도 다윗은 첩의 아들들이 있었다.

3. ㉠ 다윗에게 분노와 고통을 갖어다 준 아들들은 누구인가? (1, 2절)

㉠ (1) 맏아들 압논과, 세째 아들 압살롬, 그리고 네째인 아도니야 등이다.

(2) 압논은 이복 누이 다말을 연모하여 강제로 동침하였다. 그리고는 변심하여 또한 강제로 쫓아낸 패륜아였다. 이로 인하여 다윗은 분노하였으며 결국 압논은 다말의 친오라비 압살롬에 의해 살해되었다(참조, 삼하 13:1-33).

(3) 마아가에서 얻은 아들 압살롬은 압논을 죽인 후 다윗의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기를 들어 반역을 한 아들이었다. 아버지 다윗과 백성을 속여 반역자의 왕이 되었던 압살롬은 내란의 와중 속에서 죽임을 당했다(삼하 14:1-18:15). 이 일은 다윗에게 극심한 고통과 아픔을 주었다(삼하 15:30; 18:33).

(4) 아도니야는 압살롬 다음으로 준수(俊秀)한 다윗의 네째 아들이다. 그런데 그 역시 반역하여 반란을 일으켰다가 솔로몬이 즉위하자 처형되었다(왕상 1:1-10, 41; 2:25).

(5) 이러한 일들은 다윗이 많은 이방 여인들을 취하여 생활을 잘못한 데 대한 결과이다.

4. ㉠ 다윗의 통치 기간을 양분하여 설명하라 (4절).

㉠ (1) 다윗은 40년간 다스렸다. 이 기간은 헤브론과 예루살렘의 통치로 크게 양분된다.

(2) 먼저 다윗은 헤브론에 거하면서 다스렸다. 이때 다스린 지파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 뿐이었다. 치리(治理)한 기간은 칠 년 육개월이었다(삼하 2:1-4).

(3) 그 후에 다윗은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도읍을 옮기고 약 37년간 통치하면서 국토를 확장하고 부강한 나라로 발전시켰다.

(4) 본서는 다윗의 후기 통치를 중심으로 하여 기록하고 있다(11-29장).

5. ㉠ 예루살렘에서 낳은 다윗의 아들 중에 선지자의 이름을 본따 지은 아들은 누구인가? (5절)

㉠ (1) 암미엘의 딸 밧수아가 낳은 나단이다. 본래 나단이란 이름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하였을 때 다윗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했던 선지자의 이름이다(삼하 12:1-14).

(2) 이처럼 다윗이 아들의 이름을 나단이라고 한 것은 선지자에 대한 존경심과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말한다.

(3) 이러한 다윗은 아들 나단으로 인해 죄에 대한 경각심과 더불어 메시아의 조상에 속하는 영광을 얻었다(눅 3:31).

(4) 오늘날 성도들은 범죄하기 쉬운 존재임을 기억하고 항상 경계하며 생활해야 할 것이다.

6. ㉠ 첩의 아들로써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5, 10절)

㉠ (1) 솔로몬은 다윗이 불법적으로 취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밧수아)가 낳은 서자였다(삼하 12:24).

(2) 그러나 하나님은 솔로몬을 사랑하셨고(삼하 12:24, 25) 왕위를 잇게 하셨으며 성전을 짓도록 하셨다(22:6-12).

(3) 이에 대하여 솔로몬은 모세의 명대로 여호와를 지극히 섬겼으며(대하 1:6; 8:12, 13) 성전을 짓고(2:1-7:22) 재물보다 여호와를 섬기는 지혜를 구한 겸손한 왕이었다(대하 1:8-12).

(4) 이러한 사실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람의 의로움을 보시고 택하기 보다는 불의한 자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주권적 의지에 따라 택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 **㉠**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아들과 처첩(妻妾) 중에서 본문 이외의 성경에 다른 이름으로 나타나는 자들을 말하라(1-9절).

- ㉠** (1) 다윗의 둘째 아들 다니엘은 삼하 3:3절에 의하면 길르압이란 이름도 있다. 이 아들은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所生)이다.
- (2) 첫째 아들인 압논은 압논의 동명 이음(同名異音)이다.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임의 소생으로 이복 누이 다말을 욕보이고 살해된 자다(삼하 3:2; 13장).
- (3) 다윗의 첩으로서 솔로몬의 모친인 밧수아는 밧세바의 다른 이름이다. 다윗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였다가 다윗으로 인해 첩이 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었다(삼하 11:3; 왕상 1:11-31).
- (4) 밧세바의 네 아들들 중의 첫째는 시므아인데 14:4 과 삼하 5:14에서는 삼무아로 나와 있다.
- (5) 이러한 이름의 다양성은 필사자의 오류가 아닌 발음과 형식의 차이로 나타난 것이다. 한편 이름이 있음에도 출생지 혹은 중요한 사건에 의해 별칭이 붙어서 후대에 두 가지 이름으로 전해지기도 한다. 압논, 밧수아 그리고 시므아는 발음과 형식의 발전에 의한 것이고 다니엘은 후자에 의한 것이다.

8. **㉠** 솔로몬의 후손이 17대에 걸쳐서 왕위를 계승할 수 있었던 사실에서 얻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10-16절)

- ㉠** (1) 북왕국 이스라엘은 왕권 투쟁이 심하였지만, 남왕국 유다는 솔로몬의 후손이 계속 계승하여 135년이나 더 존속하였다.
- (2) 이러한 사실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의 집을 세우시고 견고하게 하심을 보여 주는 것이다(17:10-14).
- (3) 이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야에 의하여 온전히 이루어졌다. 메시야는 다윗의 후손으로 왕권을 이으시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세우셨기 때문이다.

9. **㉠** 솔로몬의 왕위를 이은 후손들(10-16절)의 봉치와 업적에 대한 사실이 각각 어느 곳에 기록되어 있는지 찾아보라.

- ㉠** (1) 르호보암 : 대하 10:1-12:16; 왕상 14:21-31
- (2) 아 비 야 : 대하 13:1-22; 왕상 15:1-8
- (3) 아 사 : 대하 14:1-16:14; 왕상 15:9-24
- (4) 여호사밧 : 대하 17:1-20:37; 왕상 22:41-50
- (5) 요 랫 : 대하 21:1-20; 왕하 8:16-24
- (6) 아하시야 : 대하 22:1-9; 왕하 8:25-29
- (7) 요 아 스 : 대하 23:16-24:27; 왕하 13:10-25
- (8) 아 마 샤 : 대하 25:1-28; 왕하 14:1-22
- (9) 아 사 라 : 대하 26:1-23; 왕하 15:1-7
- (10) 요 답 : 대하 27:1-9; 왕하 15:32-38
- (11) 아 하 스 : 대하 28:1-27; 왕하 16:1-20
- (12) 히스기야 : 대하 29:1-32:33; 왕하 18:1-20:21
- (13) 므 낫 세 : 대하 33:1-20; 왕하 21:1-18
- (14) 아 몬 : 대하 33:21-25; 왕하 21:19-26
- (15) 요 시 야 : 대하 34:1-35:27; 왕하 22:1-23:30
- (16) 요 하 난 : 대하 36:1-4; 왕하 23:31-33
- (17) 여호야김 : 대하 36:5-8; 왕하 23:34-24:7

(18) 여 고 나 : 대하 36:9, 10; 왕하 24:8-16

(19) 시드기야 : 대하 36:11-21; 왕하 24:17-25:21

10. **㉠ 왕위를 이어 통치한 솔로몬의 후손들의 통치 기간을 말하라 (10-16절).**

㉠ (1) 열왕기하 서론 **㉠** 4를 참조하라.

11. **㉠ 본문의 이름과 다른 이름을 남긴 솔로몬의 후손들은 누구인가? (10-16절)**

㉠ (1) 11절의 요람은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을 가리키는 것이다 (왕하 8:16, 17; 대하 21:1).

(2) 12절의 아사라는 대제사장 (대하 26:17) 과 이름이 같으나 (비교, 15:1) 동일인은 아니다. 대하 26장에서는 유다 왕 아사라가 대제사장과 구별하여 웃시야로 불린다.

(3) 15절의 요하난은 요시아의 맏아들로서 여호아하스로도 불린다 (왕하 23:30, 31; 대하 36:1). 또 여호야김은 애굽 왕이 지은 이름으로 본명은 엘리아김이다 (대하 36:4; 왕하 23:34).

(4) 16절의 여고나는 여호야김의 본명이며 (왕하 24:6; 대하 36:9) 고니아라고도 불렸다 (렘 22:24). 그리고 15절의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이 지어 준 이름이며 시드기야의 본명은 맛다니아였다 (비교, 왕하 24:17; 대하 36:10).

12. **㉠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으로서 B. C. 586년 예루살렘의 파괴와 함께 최후를 마친 솔로몬의 후손은 누구인가? (16절)**

㉠ (1) 요시아의 아들이며 여고나의 삼촌인 시드기야이다 (왕하 24:18-25:12; 대하 36:11-21). 시드기야는 조카 여고나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사람으로서 여고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아니다.

(2)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왕하 24:19), 그의 백성들과 제사장들도 성전을 더럽혔다. 또 그는 여호와께서 사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비웃고 멸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었다 (대하 36:12-16).

(3) 결국 바벨론에 의해 성전은 파괴되고 백성들은 살해되기도 하고 포로가 되기도 했다. 또한 시드기야 자신과 아들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왕하 25:6-12).

(4) 이러한 사실은 솔로몬의 후손과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 준다.

(5) 그러므로 유다의 멸망은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 곧 선지자를 통한 지속적인 회개의 권고를 거부한 결과였다. 이러한 사실은 공의의 심판을 받기 전에 악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다.

13. **㉠ 고레스의 통치 때 포로민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방백은 누구인가? (19절)**

㉠ (1) 브다야의 아들 스룹바벨이다. 그는 B. C. 536년의 제 1차 포로 귀환 때에 큰 희망과 함께 포로민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스 2:2; 학 1:1, 12, 14; 속 4:6).

(2) 스룹바벨은 스알디엘의 아들로도 불리는데 유다 총독이 되어 귀향민과 함께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역사 (役事) 를 시작하였다 (학 1:1, 14).

14. **㉠ 귀향민의 소망을 담고있는 스룹바벨의 아들 이름은 무엇인가? (19, 20절)**

㉠ (1) 처음으로 소개된 스룹바벨의 아들 이름은 므술람으로서 '하나님의 친구'란 뜻을 지니고 있다.

(2) 두번째의 아들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의미이다.

(3) 그리고 하사다는 '은혜를 내릴 것이다'이고 유삼헤셋은 '은혜가 회복되다'라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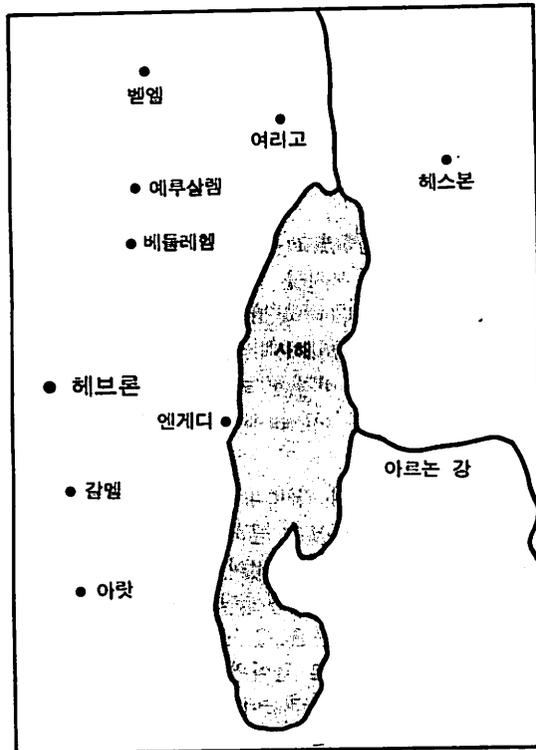
15. **㉠ 사로잡혀 간 백성들 중에서 여고나의 후손들 족보만 특별히 기록된 이유는 무엇인가? (17-24절)**

㉠ (1) 여고나의 후손 중 귀향민을 이끌고 온 지도자 스룹바벨이 있기 때문이다.

- (2) 또한 메시아가 여고나의 후손으로(마 1:12), 즉 스룹바벨의 후손으로(마 1:13; 눅 3:27) 오시기 때문이다.
- (3) 그러므로 이들의 족보는 이새의 남은 뿌리로서(사 11:1) 메시아로 이어지는 가계가 끊어지지 않았고 또한 메시아에 대한 귀향민의 희망이 살아 있음을 말해 준다.

지도자료

다윗의 왕도(王都) 헤브론



‘헤브론’ (Hebron) 이란 ‘연합’, ‘합동’ 이란 뜻이다. 헤브론의 최초의 지명은 ‘기랏 아르바’ (Kiriath- arba) 였는데(창 23:2; 수 14:15) 예루살렘 남서쪽 약 40km 지점에 위치한 오늘날의 ‘엘 칼릴’ (El- Khalil) 이 바로 이 도시이다. 다윗은 이곳에서 7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4절).

제 4 장 유다의 단편적인 족보와 시므온의 가계 (家系)

단락구분 1 유다의 아들들 / 2-4 소발과 품의 자손들 / 5-10 아스풀과 고스의 자손들 / 11-15 레가와 그나스의 자손들 / 16-20 여합렐렐과 에스라 그리고 호디아 및 시몬과 이시의 아들들 / 21-23 유다의 아들 쉘라의 자손 / 24-27 시므온의 아들들 / 28-33 시므온 자손의 처음 거주지 / 34-41 시므온 족장들의 그들 정벌과 이주 / 42-43 시므온 자손의 세밀한 정벌과 이주

- 1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홀과 소발이라
- 2 소발의 아들 르야야는 야핫을 낳았고 야핫은 야후매와 라핫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 의 족속이며
- 3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잇바스와 저희의 매제 하술렐보니와
- 4 그들의 아버지 브누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홀의 소생이며
- 5 드고아의 아버지 아스홀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 6 나아라는 그로 말미암아 아후삼과 헤벨과 데므니와 하야하스다리를 낳았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 7 헬라의 아들들은 세렛과 이소할과 에드난이며
- 8 고스는 아눗과 소베바와 하롬의 아들 아하렐 족속들을 낳았으며
- 9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 10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 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 11 수하의 형 글롭이 므힐을 낳았으니 므힐은 에스돈의 아버지요
- 12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이르나하스의 아버지 드힌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 레가 사람이며
- 13 그나스의 아들들은 옷니엘과 스라야요 옷니엘의 아들은 하닷이며
- 14 므오노대는 오브라를 낳았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하라십의 조상이라 저희들은 공장이었더라
- 15 여분네의 아들 갈렐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

- 와 나암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 16 여합렐렐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리아와 아사렐이요
- 17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과 메렛과 에벨과 알론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삼매와 에스드모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 18 이는 메렛의 취한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 아내 여후디아는 그들의 조상 예렛과 소고의 조상 헤벨과 사노아의 조상 여구디엘을 낳았으며
- 19 나함의 누이인 호디아의 아내의 아들들은 가미 사람 그릴라의 아버지와 마아가 사람 에스드모이며
- 20 시몬의 아들들은 암논과 린나와 벤하난과 딜론이요 이시의 아들들은 소헛과 벤소헛이더라
- 21 유다의 아들 쉘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르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아다와 세마포 짚는 자의 집 곧 아스베아의 집 족속과
- 22 또 요김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던 사람과 야수비네헴이니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지한 것이라
- 23 이 모든 사람은 용기장이가 되어 수풀과 산을 가운데 거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하여 왕의 일을 하였더라
- 24 시므온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 25 사울의 아들은 살롬이요 그 아들은 밍삼이요 그 아들은 미스마요
- 26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요 그 아들은 삭굴이요 그 아들은 시므이라
- 27 시므이는 아들 열 여섯과 딸 여섯이 있으나 그 형제에게는 자녀가 맺이 못되니 그 은 족속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 28 시므온 자손의 거한 곳은 브엘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 29 빌하와 에셀과 돌랏과
- 30 브두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 31 벨말가봇과 하살수심과 벨비리와 사아라임 이니 다윗 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저희에게 속하였으며
- 32 그 향촌은 예담과 아인과 립문과 도젠과 야산 다섯 성읍이요
- 33 또 그 각 성읍 사면에 촌이 있어 바알까지 미쳤으니 시므온 자손의 주소가 이러하고 각기 보제가 있더라
- 34 또 메소밧과 앙물렉과 아마시아의 아들 요사와
- 35 요엘과 아시엘의 증손 스라야의 손자 요시비아의 아들 예후와
- 36 또 엘로에내와 야아고바와 여소하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브나야와
- 37 또 스마야의 오 대 손 시므리의 현손 여다아의 증손 알론의 손자 시비의 아들 시사니
- 38 이 위에 녹명된 자는 다 그 본족의 족장이

- 라 그 종족이 더욱 번성한지라
- 39 저희가 그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서 하여 끝까지 동편 그들 지경에 이르러
- 40 아람답고 기름진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광활하고 안정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 거한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
- 41 이 위에 녹명된 자가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저희의 장막을 쳐서 파하고 거기 있는 모우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 거하였으니 이는 그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 있음이며
- 42 또 시므온 자손 중에 오백 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다와 느아라와 르비아와 웃시엘로 두 목을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 43 파하여 남아 있는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 거하였더라

1. **㉠ 본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하라.**

- ㉠ (1) 본장은 이미 2장에서 취급한 유다 족보를 보충하는 고대 단편적인 족보들을 제시하고 있다(1-23절). 그리고 유다 이외의 열 두 지파 중 시므온의 후손을 소개해 주고 있다(24-43절).
- (2) 유다의 단편적인 족보들은 이미 취급한 2장에서는 드러나지 않은 것이다. 또한 단편적인 족보에서는 유다의 후손 중에 탁월한 이들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고 있다.
- (3) 따라서 유다의 단편적인 족보는 2장의 족보를 보충하는 성격을 갖고 있으며 또한 유다 자손의 탁월함을 밝히는 의도가 있다.
- (4) 이어서 나오는 시므온의 족보는 이스라엘의 열 두 아들의 후손을 밝히는 가운데 두번째로 등장한 것이다. 유다 자손은 왕손과 메시야로 이어지는 계보가 중심이 되어 소개되었으나(2:3-3:24) 시므온 자손은 거주지와 함께 소개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24-43절).

2. **㉠ 유다의 아들들로 소개된 사람들은 누구인가? (1절)**

- ㉠ (1)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홀과 소발이다.
- (2) 그러나 베레스만 아들에 속하고(2:4) 헤스론은 손자이며(2:5) 갈미는 증손(2:7) 홀은 갈렙의 아들로 유다의 고손자이며(2:18, 19) 홀의 아들 소발은 유다의 5대손이다(2:50).
- (3) 유다의 당대(當代) 아들들은 에르, 오난, 그리고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이다(2:3, 4).

3. **㉠ ‘유다의 아들들’ 이 본문에서 뜻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1절)**

- ㉠ (1) ‘아들들’ 이란 말은 히브리어 <벤>의 복수인 <베니>의 번역이다. 즉 <베니>는 ‘아들들’ 또는 ‘후손들’의 뜻을 갖고 있다.
- (2) 본문에는 유다의 아들들로서 유다의 5대손까지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후손들’을 뜻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3) 나아가서 ‘유다의 아들들’은 유다의 후손 중에 유명한 가족(가문)임을 말한다. 왜냐하면 이들 다음 나오는 족보들이 기원을 ‘유다의 아들들’에 두기 때문이다(2, 4, 21절).
- (4) 그러므로 ‘유다의 아들들’의 뜻은 ‘유다의 후손들’을 가리키며 후손들 중에 몇 명만 소개된 것은 그들이 특별한 가문임을 가리키는 것이다.

4. **㉠ 유다의 자손 중에서 신앙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누구인가? (9, 10절)**

- ㉠ (1) 아스홀의 후손인 야베스로서 그는 특별한 어려움 가운데 났으며 또 근심과 환난 속에 살았다.

- (2) 그는 형제보다 존귀한 자이기도 했으며 그의 이름은 지명(地名)으로 남았다(2:55).
 (3) 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평안한 삶을 산 사람이다.
 (4) 이러한 신앙인에 대한 기록은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다.

5. **㉠ 야베스의 이름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 (9절)**

- ㉠** (1) 야베스란 이름은 '수고로이 낳았다'란 뜻으로 특별한 슬픔 속에서 태어났음을 알 수 있다(비교, 창 36:16-18).
 (2)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슬픔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이다(욥 14:1).
 (3) 이러한 인생들이 근심과 환난에서 벗어나 사는 길은 예수께 나아가는 것이며(마 11:28-30)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뿐이다(10절; 시 46:1; 54:7).

6. **㉠ 하나님께 드린 야베스의 기도를 구분하여 말하라(10절).**

- ㉠** (1)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것은 그의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시며 그의 말씀을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께 기도했음을 가리킨다.
 (2) 또한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시라'라고 이어서 기도했다. 이 기도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사람은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3) 다음에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라고 기도했다. 즉 성공의 길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잠 16:1; 19:21).
 (4) 이어서 위협으로부터의 보호를 청했다. 여기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란 기도는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사'란 뜻으로서(KJV, RSV, NIV, Living Bible) 사람이 의지할 것은 세상에 속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5) 그리고 야베스는 '나로 환난(악)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다. 사람은 악과 근심(고통) 속에서 헤어날 수 없는 죄인들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구원될 수가 없다는 것을 이 기도는 가르쳐 주고 있다.

7. **㉠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허락한 사실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10절)**

- ㉠** (1) 하나님의 응답은 야베스가 구한 기도대로 이루어졌다. 즉 지경(地境)이 넓혀지고 환난에서(악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생활과 평안한 삶을 허락받아 누리게 된 것이다.
 (2) 이것은 환난과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돌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준다(참조, 요 16:33).
 (3) 그리고 하나님은 궁핍한 자를 돌보시며(시 69:33) 고아의 아버지시며 고독한 자로 가족(家屬) 중에 거하게 하시는 분임을 말해 주는 것이다(시 68:5, 6).
 (4) 또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임을 가르쳐 준다(시 147:11; 습 3:17).

8. **㉠ 겐 족속에서 유다 지파로 귀화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11, 12절)**

- ㉠** (1) 바벨론에서 돌아온 레가 사람들이다. 이들은 일찌기 모세의 장인이었던 호باط이 속한 겐 족속이었다(2:55; 창 15:19; 삿 1:16; 렘 35:2).
 (2) 이 족속은 단순한 원시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장막에서 지내며 구별된 생활을 하였다.
 (3) 그들이 조상들의 신앙을 잘 보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셨다(렘 35:1-19).
 (4) 이처럼 믿음의 계보를 형성해 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 아니라 자신에게 있어서도 큰 축복이 된다(답후 1:5).

9. **㉠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할 때 백성들을 다스렸던 첫 사사는 누구인가? (13절)**

- ㉠** (1) 그나스의 아들이자 갈렙의 동생이었던 웃니엘로서 그의 이름은 '하나님은 힘이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삿 1:13).

(2) 그는 이스라엘을 메소포타미아로부터 해방시켰던 용감한 사사였다(삿 3:9-11).
 (3) 이러한 사사직은 신적인 권위가 부여된 것이다(삿 3:9, 10).

10. **㉠** 순결하지 않은 혈통임에도 그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17, 18절)

- Ⓐ (1) 에스라의 아들 메헛은 애굽 여인 곧 바로의 딸 비디아를 취하여 혼혈아를 낳았다. 이 아들들이 족보에 올라있다.
- (2) 이것은 혈통의 순수함에 의해서 유다의 자손 곧 아브라함의 후손의 중요성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가르친다.
- (3) 즉 아브라함의 혈통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는 데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을 가르친다(롬 4:16-22).
- (4)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들도 비록 아브라함의 직계 자손이 아니더라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롬 4:33, 34).

11. **㉠** 유다의 후손 중에 나타난 특이한 직업을 말하라(14, 21-23절).

- Ⓐ (1) 먼저 목공업이 나타나 있다. 요압은 창시자였고 그 후손은 장인(匠人)이 되어 업(業)을 계승했다(14절).
- (2) 다음으로 방직업 곧 세마포 짜는 일이 나온다. 셸라의 후손인 아스베야의 집 족속이 이 일을 하였다(21절).
- (3) 그리고 용기장이와 정원을 가꾸는 자들이 있었다. 이들은 셸라의 자손들이었다(23절).

12. **㉠** 유다 족보 다음에 나오는 족보에 대하여 설명하라(24-43절).

- Ⓐ (1) 이스라엘의 둘째 아들인 시므온 후손의 족보가 뒤를 이어 나온다.
- (2) 이 족보는 시므온의 모든 가족들 중 단지 한 가족의 족보 곧 사울의 후손이 차지하고 있다.
- (3) 그리고 시므온 자손이 차지한 18개의 성읍이 함께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얻은 성읍들이다(수 19:1-9).
- (4) 또한 시므온의 후손이 정복하여 차지한 목장과 거주지가 이 족보에 부가되어 있다.
- (5) 이들이 이렇게 각 지역에 산재하여 살게 된 이유는 그들의 조상 시므온의 혈기 때문이었다(창 49:5-7).
- (6) 이처럼 하나님은 불순한 힘들을 풀어 공동체에 미칠 재앙을 방지하신다(창 11:3-9).

13. **㉠** 시므온의 아들은 모두 몇인가? (24절)

- Ⓐ (1) 시므온의 아들은 느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 그리고 오핫 등 6명인데 본문에는 오핫이 빠지고 5명이 나온다(창 46:10; 출 6:15).
- (2) 이들 다섯 아들이 시므온 지파의 족속들을 이루었다(민 26:12-14).
- (3) 한편 세째 아들인 오핫은 광야의 생활 때 모세가 백성을 계수하는 속에서도 빠졌는데(민 26:12) 이것은 한 가문을 이루기 전에 사망했음을 말한다.

14. **㉠** 시므온 후손은 그들 지경의 목장을 어떻게 차지했는가? (34-41절)

- Ⓐ (1) 그들 지경의 목장은 아름답고 기름지며 광활하고 안정된 곳으로서 함의 자손들이 살고 있었다(40절).
- (2) 시므온의 작은 가문의 우두머리인 13족장들은 목장을 스스로 찾아 나서서 자세히 살펴 보고(40절) 함께 힘을 합하여 정복하되 그곳에 사는 모우넵 사람을 완전히 멸하여 차지했다.
- (3) 이들이 단독으로 자기들의 거처를 탈취해야 했던 것은 야곱의 예언으로(창 49:7) 말미암아 가나안 땅 분할 때에 제외되었기 때문이다(수 19:1).
- (4)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한 때이므로 그들의 땅을 차지하고 진멸하는 것

은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한 행동이었다(신 7:2).

15. **Q** 41절에 나오는 ‘오늘까지’는 언제까지를 말하는가? (41절)

- A** (1) 역대상은 포로후 시대에 쓰여졌다. 따라서 ‘오늘까지’란 가나안 정복 시대부터 (B. C. 13세기경) 포로에서 귀환하여 예루살렘의 재건 시기(B. C. 450년경) 까지를 말한다.
 (2) 그리고 이것은 많은 전쟁과 혼란 속에서도 흩어지지 않고 안정 속에 계속 거한 것임을 말해 주는 것이다.

화보자료

목자와 양 떼. 아래의 사진은 여리고 옆의 언덕에서 풀을 뜯고 있는 양 떼와 그들을 돌보는 목자의 모습이다.



본장에는 시므온의 자손들이 양 떼를 기를 목장을 찾아서 그들(Gedor) 지역까지 이주한 기록이 나온다(39, 40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양은 중요한 희생 제물(출 20:24; 민 22:40)이었을 뿐만 아니라 먹을 것과(참조, 삼상 14:32) 마실 것을(참조, 사 7:21, 22) 제공해 주는 귀한 재산이었다. 한편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양으로 비유한 일이 많다(겔 34:13-16; 요 10:11-18).

제 5 장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의 족보와 거주지

단락구분 1-2 장자의 명분에 대하여 / 3-10 르우벤의 아들들과 그들의 거주지 / 11-17 갓 자손의 족보와 거주지 / 18-22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의 연합군의 전적(戰績) / 23-24 므낫세 반 지파의 거주지와 족장들 / 25-26 잇수르에 의한 강제 이주

1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2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3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하눅과 발루와 헤스룬과 갈미요

4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 아들은 곡이요 그 아들은 시므이요

5 그 아들은 미가요 그 아들은 르야야요 그 아들은 바알이요

6 그 아들은 브에라니 저는 르우벤 자손의 두목으로서 잇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7 저의 형제가 종족과 보계대로 족장 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라와

8 벨라니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라 저가 아르엘에 거하여 느보와 바알므온까지 미쳤고

9 또 동으로 가서 거하여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미쳤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생축이 번식함이라

10 사울 왕 때에 저희가 하갈 사람으로 더불어 싸워 쳐 죽이고 길르앗 동편 은 땅에서 창막에 거하였더라

11 갓 자손은 르우벤 사람을 마주 대하여 바산 땅에 거하여 살르가까지 미쳤으니

12 족장은 요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아내와 바산에 거한 사밧이요

13 그 족속 형제에는 미가엘과 므술람과 세바와 요래와 야간과 시아와 에벨 일곱 명이니

14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이라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야로아의 손자요 길르앗의 증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새의 오대 손이요 야도의 육대 손이요 부스의 칠대 손이며

15 또 구니의 손자 압디엘의 아들 아히가 족장이 되었고

16 저희가 바산길르앗과 그 향촌과 사론의 모든 들에 거하여 그 사방 변경에 미쳤더라

17 이상은 유다 왕 요담과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에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18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의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기어 싸움에 익숙한 자가 사만 사천 칠백 육십 인이라

19 저희가 하갈 사람과 여두르와 나비스와 노담과 싸우는 중에

20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 함께한 자들이 다 저희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싸울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을 하 나님이 들으셨음이라

21 저희가 대적의 짐승 곧 약대 오만과 양 이십 오만과 나귀 이천을 빼앗으며 사람 십만을 사로잡았고

22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이라 저희가 그 땅에 거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23 므낫세 반 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하여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미쳤으며

24 그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라 다 용력이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25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저희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26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잇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잇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매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사로잡아 힐라와 하블과 하라와 고산 하숫가에 옮긴지라 저희가 오늘날까지 거기 있으니라

1. **㉠** 본장의 족보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을 말하라.

- ㉠** (1) 본장은 르우벤 후손과 갓의 후손과 므낫세 반 지파의 족장들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다.
 (2) 그리고 이들은 모두 요단 동편에 거하는 지파들(8, 9, 11, 17, 23절; 수 13:8-12) 이란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이전부터 이들은 함께 힘을 합하여 싸웠으며(참조, 18-22절; 민 32:25-27; 수 4:12, 13; 22:3) 함께 기업을 받았고(수 13:8-12) 함께 단을 쌓아 하나님께 예배한 이들이다(수 22:10, 27, 34). 그래서 본장에서도 함께 나온 것이다.
 (3) 이들의 족보에는 유다 지파와는 다르게 이들이 거하는 거주지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특징은 시므온 자손부터 나타나는 것이다(4:24-43).
 (4) 이들의 족보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은 이들의 범죄와 그 결과로서 강제 이주된 사실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25:26).
 (5) 따라서 본장은 언약의 백성이라도 죄를 범하면 약속의 기업을 잊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다.

2. **㉠** 이스라엘의 장자는 누구인가? (1절)

- ㉠** (1) '보라 아들이라' 는 뜻의 르우벤이다(창 29:32).
 (2) 그러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돌아갔다(창 48:15-22).
 (3) 그렇지만 족보에는 르우벤으로 기록되었다(2:1, 2; 창 49:3).

3. **㉠** 본문의 삽입 귀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1, 2절)

- ㉠** (1) 이스라엘의 장자에 대한 혼란을 정리해 주고 있다.
 (2) 먼저 르우벤은 장자로 태어났으나 근친 상간(近親相姦)의 죄로, 장자권을 상실했기 때문에(창 49:3, 4) 장자가 아님을 밝혔다.
 (3) 다음으로 유다는 형제들보다 뛰어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주권자 곧 다윗이 그의 후손으로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을 이은 자는 아니라고 밝혔다.
 (4) 장자의 명분은 아버지의 축복과 언약을 잇게 된 요셉에게 있음(창 48:16; 49:24-26)을 밝혔다. 요셉은 장자가 받는 두 몫의 유산을 받았다(창 48:22; 신 21:7).
 (5) 장자의 명분은 가족 계승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거기에는 영적인 지위까지 내포되어 있다.
 (6)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러한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들이다(히 12:23).

4. **㉠** 르우벤의 족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 (3-10절)

- ㉠** (1) 르우벤의 네 아들과 요엘의 후손 그리고 요엘의 후손이 길르앗 동편 땅까지 차지하여 살게 된 내력이 나온다.
 (2) 그리고 아하스 왕 때에 있었던 앗수르의 침략에 의해 르우벤의 두목과 백성들이 사로잡히기도 했다(왕하 15:29; 대하 28:16-21).
 (3) 또한 사울 왕 때(B. C. 1043 - 1010)에 있었던 영토의 확장이 나타난다. 곧 길르앗의 하갈 족속을 쳐 그 동편을 차지한 것이다.
 (4) 이러한 르우벤의 족보는 유다 자손의 족보(2:3-4:23)에 비해 심히 미약하다. 그리고 이들에게서는 뛰어난 가문이나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
 (5) 이것은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에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창 49:4)라고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5. **㉠** 르우벤의 후손이 거주한 지역은 어느 곳인가? (8-10절)

- ㉠** (1) 사해 동편의 아로엘을 중심으로 하여 북쪽으로는 느보 산지의 성읍 느보와 헤스론 평지의 바알므온까지 이르고 동쪽으로는 길르앗에서 유브라데까지 뻗은 대 아라비아-수리아 광야까지 거주지가 퍼져 있었다(민 32:37, 38; 수 13:16-23).
 (2) 이토록 넓은 지역이 르우벤의 후손 벨라의 거주지로 소개된 것은 벨라의 가족이 그만

큼 널리 퍼졌으며 가축이 번성하였음을 말하는 것이다.

(3) 그러나 이렇게 넓은 영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르우벤 지파에서는 한 사람의 영웅도 배출시키지 못하였다(창 49:4).

(4) 이것은 범죄한 인간들이 비록 이 땅에서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지만 진정한 삶의 기쁨과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는 비참함을 예표한 것이다(참조, 눅 12:15).

6. **㉠ 르우벤 사람을 마주 대하여 바산 땅에 거한 후손들은 누구인가? (11-16절)**

㉠ (1) 갓 자손들이다. 갓은 야곱의 일곱째 아들로써 레아의 종 실바의 소생이다(창 30:11).

(2) 갓의 자손들은 45,650명이 출애굽하였으며(민 1:25)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는 40,500명이었으나(민 26:18) 본문의 족보에는 5명의 족장과 그 일곱 형제가 7대 선조까지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

(3) 그러나 이들은 추격해 오는 군대를 오히려 추격하여 무찌르는 용맹한 후손들이었다(창 49:19). 이들의 용맹성은 이스라엘의 보호막이 되기에 충분하였다(12:8).

(4) 하나님은 이처럼 재능에 따라 우리의 삶의 위치를 배정하신다(마 25:15).

7. **㉠ 갓 자손의 족보는 어느 왕 때에 기록되었는가? (17절)**

㉠ (1) 유다 왕 요담(B.C. 751-736)과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B.C. 793-753) 때였다.

(2) 이때는 이스라엘이 가장 융성해지고(왕하 14:25) 유다가 잠시 강하여지는(대하 27:6) 때였다.

(3) 또한 이사야(왕하 15장; 대하 27장) 아모스(암 2:6; 5:27; 6:14) 그리고 호세아(호 1:1, 7; 3장) 등의 선지자가 종교적, 도덕적으로 부패한 사회를 지적하던 때였다.

(4) 이와 같이 인간의 죄악이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을 더욱 역동적으로 펼쳐 나가신다(참조, 롬 5:20).

8. **㉠ 전쟁에 승리한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의 연합군은 어떠한 군대였는가? (18절)**

㉠ (1) 그들은 용기있고 용감한 자(Living Bible)이며 불굴의 정신을 지닌 용사(RSV, KJV)들이었다.

(2) 또한 그들은 훈련이 잘되어 있는 자들이었다(공동번역).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기어 싸움에 익숙한 자’ (개역 성경)들로 무기를 잘 다루며 전술을 익힌 용사들이었다.

(3) 뿐만 아니라 ‘나가 싸울 만한’ 용사라고 묘사하였다. 이것은 승리를 향하여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전쟁에 임할 수 있는 정신의 소유자임을 말한다.

(4) 마지막으로 많은 수의 용사들임을 밝혔다. 즉 44,760인이라는 용사들을 밝힘으로 연합군이 정신과 자세 그리고 실력 뿐만 아니라 큰 힘, 즉 수자에 있어서도 우세했음을 말해 주고 있다.

(5)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강한 지체 의식은 어떠한 세력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제공하여 준다.

9. **㉠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의 연합군은 어떠한 방법으로 승리하여 땅을 차지하였는가? (20절)**

㉠ (1)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쟁에서 보인 방법은 ① 서로 한 뜻으로 연합하였으며 ②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으며 ③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싸운 것이다.

(2) 이와 같은 연합군의 방법은 철저한 신앙으로 무장된 믿음의 군대요 기도의 군대임을 말해 준다. 많은 병사와 훌륭한 용사들이었음에도 이들은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또 있는 힘을 다하여 기도하며 싸웠던 것이다.

(3)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도(딤후 2:3)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

하고 그분께 구함으로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참조, 시 27:14; 딤후 4:7, 8).

10. **㉠**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전쟁에서 믿은 것들은 무엇인가? (20-22절)
- ㉡** (1) 노예 10만과 가축 30만 2천을 노획했고 대적들이 살던 땅을 차지하였다(22절).
 (2) 이러한 것들은 거주지의 안정과 생활의 풍성함과 영적인 복 곧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는 복을 받았음을 말한다(참조, 요삼 1:2).
 (3) 위의 사실은 악의 영과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싸우는 성도들에게(엡 6:10-13) 영생과 영원한 기업과 안식의 하나님 나라를 상으로 받는다는 확신을 제공한다(마 5:12; 골 3:24; 히 10:35; 요이 1:8).
11. **㉠** 므낫세 반 지파에 대하여 설명하라(23, 24절).
- ㉡** (1)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 곧 애굽 제사장의 딸 아스낫의 소생이다(창 41:51).
 (2) 야곱이 축복할 때 오른손은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왼손은 므낫세 머리 위에 없었으며(창 48:17-19) 가나안에서 얻은 기업은 요단 동편에 반 지파가 거하고 요단 서편, 즉 가나안 중부에 반 지파가 거했다(수 13:8; 17:7-13).
 (3) 여기에서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강 동편에 거주한 반 지파를 가리킨다. 한편 이 땅은 원래 지명이 길르앗이며 바산 왕 옥의 영토로서 목축과 농업에 적합하였는데 그들이 이 땅을 청구하여 기업으로 받게 되었다(신 3:13).
12. **㉠** 요단 동편에 거하는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의 후손이 범한 죄는 무엇인가? (25절)
- ㉡** (1) 먼저 조상의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조상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을 가리키며, 조상의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는 것은 언약을 어겼다는 것을 말한다.
 (2) 다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구원해 주신 사실을(20절) 잊고 하나님을 저버린 죄, 즉 하나님께서 멸하신 그 땅의 우상들을 찾아간 죄를 지었다.
 (3) 더구나 그들은 우상을 섬길 때 '간음하듯' 섬겼다고 했는데 이는 철저히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되 사랑하며 섬겼음을 말한다.
 (4) 이러한 죄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된다. 즉 예수 그리스도보다 가족이나 재물을 중히 여기는 자(행 5:1-10)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며,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자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롬 15:33).
13. **㉠**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 어떤 심판이 내려졌는가? (26절)
- ㉡** (1) 그들은 앗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 의하여 모두 사로잡혀가 노예, 즉 이방 족속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
 (2) 이것은 그들이 아무리 용감하고 강한 족속이었어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승리할 수 없음을 가르치는 것이며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안정과 자유와 재산과 영토를 잃게 되었음을 말한다.
 (3) 이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과 평안 및 죄에서의 자유(롬 6:18, 20, 22)를 얻은 성도들에게 범하지 않도록 경계할 것을 교훈한다(고전 10:11, 12).

제 6 장 레위 자손의 가족들과 그 성읍들

단락구분 1-3 레위 지파의 열조와 그들의 계보 / 4-15 아론으로부터 포로 시대까지 이르는 제사장의 계열 / 16-30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의 후손들 / 31-48 레위 지파의 직무들 / 49-53 엘르아살로부터 아히마아스까지의 대제사장들 / 54-81 가나안 땅에서 레위 지파에게 지정된 성읍들

- 1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요
- 2 그핫의 아들들은 아르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웃시엘이요
- 3 아르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 4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았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았고
- 5 아비수아는 북기를 낳았고 북기는 웃시를 낳았고
- 6 웃시는 스라히야를 낳았고 스라히야는 므라웃을 낳았고
- 7 므라웃은 아마라를 낳았고 아마라는 아히뎨를 낳았고
- 8 아히뎨는 사독을 낳았고 사독은 아히마아스를 낳았고
- 9 아히마아스는 아사라를 낳았고 아사라는 요하난을 낳았고
- 10 요하난은 아사라를 낳았으니 이 아사라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며
- 11 아사라는 아마라를 낳았고 아마라는 아히뎨를 낳았고
- 12 아히뎨는 사독을 낳았고 사독은 살롬을 낳았고
- 13 살롬은 힐기야를 낳았고 힐기야는 아사라를 낳았고
- 14 아사라는 스라야를 낳았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 15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갔었더라
- 16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며
- 17 게르손의 아들의 이름은 립니와 시므이요
- 18 그핫의 아들들은 아르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웃시엘이요
- 19 므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이 레위 사람의 집들이 그 종족을 따라 이러하니
- 20 게르손에게서 난 자는 곧 그 아들 립니요 그 아들은 야핫이요 그 아들은 심마요
- 21 그 아들은 요아요 그 아들은 잇도요 그 아

- 들은 세라요 그 아들은 여아드래며
- 22 그핫에게서 난 자는 곧 그 아들 암미나답이요 그 아들은 고라요 그 아들은 앓실이요
- 23 그 아들은 엘가나요 그 아들은 에비아삽이요 그 아들은 앓실이요
- 24 그 아들은 다핫이요 그 아들은 우리엘이요 그 아들은 웃시야요 그 아들은 사울이며
- 25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새와 아히못이라
- 26 엘가나로 말하면 그 자손은 이러하니 그 아들은 소배요 그 아들은 나핫이요
- 27 그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 아들은 엘가나며
- 28 사무엘의 아들들은 만아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야며
- 29 므라리에게서 난 자는 말리요 그 아들은 립니요 그 아들은 시므이요 그 아들은 웃사요
- 30 그 아들은 시므야요 그 아들은 학기야요 그 아들은 아사야더라
- 31 언약궤가 평안한 곳을 얻은 후에 다윗이 이 아래의 무리를 세워 여호와와 그의 집에서 찬송하는 일을 맡게 하며
- 32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와 그의 전을 세울 때까지 저희가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반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 33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 아들들이 이러하니 그핫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저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 34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 35 도아는 습의 아들이요 습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핫의 아들이요 마핫은 아마새의 아들이요
- 36 아마새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라의 아들이요 아사라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 37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요 다핫은 앓실의 아들이요 앓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 38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요 이스할은 그핫

의 아들이요 그릇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며

39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우편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저는 베레가의 아들이요 베레가는 시므야의 아들이요

40 시므야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바아세야의 아들이요 바아세야는 말기야의 아들이요

41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42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단은 심마의 아들이요 심마는 시므이의 아들이요

43 시므이는 야핫의 아들이요 야हत은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44 저희의 형제 므라리의 자손 중 그 좌편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록의 아들이요

45 말록은 하사바의 아들이요 하사바는 아마시야의 아들이요 아마시야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46 힐기야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요

47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므라리의 아들이요 므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며

48 저희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49 아론과 그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50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 아들은 엘르아살이요 그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 아들은 아비수야요

51 그 아들은 북기요 그 아들은 웃시요 그 아들은 스라히야요

52 그 아들은 므라웃이요 그 아들은 아마랴요 그 아들은 아히돌이요

53 그 아들은 사독이요 그 아들은 아히마아스더라

54 저희의 거한 곳은 사방 지경 안에 있으니 그 향리는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릇 속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55 저희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들을 주었고

56 그 성의 밭과 향리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57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립나와 그 들과 약달과 에스도모아와 그 들과

58 힐렌과 그 들과 드빌과 그 들과

59 아산과 그 들과 벵세메스와 그들이며

60 또 베나민 지파 중에서는 게바와 그 들과 알레멧과 그 들과 아나돗과 그 들을 주었으니 그 족속의 얻은 성이 모두 열 셋이었다라

61 그릇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족속 중에서 제비뽑아 열 성을 주었고

62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 족속대로 잇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열 세 성을 주었고

63 므라리 자손에게는 그 족속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블론 지파 중에서 제비뽑아 열 두 성을 주었더라

64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과 그 들을 레위 자손에게 주되

65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와 베나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위에 기록한 여러 성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66 그릇 자손의 몇 족속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을 얻어 영지를 삼았으며

67 또 저희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 중 세겔과 그 들과 게셀과 그 들과

68 욱므암과 그 들과 벵호론과 그 들과

69 아얄론과 그 들과 가드림론과 그들이며

70 또 그릇 자손의 남은 족속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아넬과 그 들과 빌르암과 그 들을 주었더라

71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족속 중에서 바산의 골란과 그 들과 아스다롯과 그 들을 주었고

72 또 잇사갈 지파 중에서 게테스와 그 들과 다브랏과 그 들과

73 라못과 그 들과 아넬과 그 들을 주었고

74 아셀 지파 중에서 마살과 그 들과 압돈과 그 들과

75 후곡과 그 들과 르흠과 그 들을 주었고

76 납달리 지파 중에서 갈릴리의 게테스와 그 들과 함몬과 그 들과 기라다임과 그 들을 주었더라

77 므라리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스블론 지파 중에서 립모노와 그 들과 다불과 그 들을 주었고

78 또 요단 건너 동편 곧 여리고 맞은편 르우벤 지파 중에서 광야의 베셀과 그 들과 야사와 그 들과

79 그테못과 그 들과 메바앗과 그 들을 주었고

80 또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의 라못과 그 들과 마하나임과 그 들과

81 헤스본과 그 들과 야셀과 그 들을 주었더라

1. ㉠ 본장의 중요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라.

㉠ (1) 유다와 요셉은 르우벤이 잃어버린 장자의 영광을 나누어 가졌지만 레위는 그보다 더

훌륭한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즉 그들이 제사장의 직책을 맡았던 것이다.

- (2) 레위 지파는 구별된 제사장 직분을 맡게 됨으로써 하나님과 백성의 중간 위치에 서서 신령한 일을 담당하였다(민 1:47-53; 3:5-4:49).
- (3) 본장에는 이러한 일을 담당하고 있는 레위 자손의 혈통과 각각의 직무와 그들의 성읍들이 기록되어 있다.
- (4)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제도적인 요인의 중요성을 지적해 주는 것이다.

2. **㉠ 레위의 아들들은 모두 몇 명인가? (1절)**

- ㉠** (1) 레위에게는 3명(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의 아들이 있었다(민 3:17).
- (2) 이들 3명의 아들들은 거주하는 곳이 서로 달랐고 그 맡은 책임도 각각 달랐다(민 3:21-38; 4:4-33).
- (3) 그러나 이들은 성막을 보호한다는 한 가지 목적을 갖고 항상 성막 주위에 머물렀다(민 1:53).
- (4) 오늘날 영적인·레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그리스도인(참조, 벰전 2:5, 9)도 비록 처한 환경이나 특질 등이 각각 다르겠지만 그 추구하는 바는 동일하다.
- (5)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전 10:31; 고후 4:15).

3. **㉠ 모세와 아론은 어느 지파에 속한 사람들인가? (1-3절)**

- ㉠** (1) 모세와 아론은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다(3절).
- (2) 하나님은 이 레위 지파 중에서 모세를 백성의 구원자로 부르시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의 관리자로 부르셨다(출 3:1-12; 민 3:1-4).
- (3) 즉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영광스럽게 하여 이스라엘의 구원과 안정의 수단으로 삼으셨고 선지자로서의 모세와 제사장으로서의 아론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셨다.
- (4)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인간의 협조를 구하시며 또한 그 협조자들을 영광스럽게 하신다.

4. **㉠ 아론의 뒤를 이어 대제사장 직책을 수행하였던 사람은 누구인가? (3-15절)**

- ㉠** (1) 아론의 세째 아들인 엘르아살이었다(참조, 민 3:32; 20:25-28).
- (2) 엘르아살은 그의 형들(나답과 아비후)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규례를 파괴하여 죽음을 당하였기 때문에 대신 제사장 직책을 얻게 된 것이다(민 3:4).
- (3) 아론을 이어 대제사장이 된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갈 때까지 그의 혈통에서 대제사장이 배출되는 영광을 얻었다(4-15절).
- (4) 그러나 대제사장의 족보(4-15절) 중에는 그들의 영광 뿐만 아니라 수치의 역사(15절)도 기록되어 있다.
- (5) 성경에 완전을 추구하는 대제사장의 불완전한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기록한 것은 인간의 한계성을 나타낸 것이다.

5. **㉠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 및 여호사닥을 옮기신 때는 언제인가? (15절)**

- ㉠** (1) 이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때는 예루살렘 파괴(B. C. 586) 직전이었다(B. C. 597).
- (2)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재난을 당하게 된 것은 바로 그들 자신들의 죄 때문이었다(왕상 16:7-18; 23:26, 27).
- (3)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향해 채찍을 통해서라도 바른 길로 걸어가게 만드신다.
- (4) 그러므로 우리들은 각자의 삶에서 이유 없는 재난이 닥쳤을 때 자신과 주위를 둘러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전 11:28-32).

6. **㉠ 레위 아들들의 족보가 재언급된 이유는 무엇인가? (16-30절)**

- A** (1) 대제사장의 반열(班列)에 속하지 않은 레위 자손들도 소홀히 취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 (2) 대제사장직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그 외의 자손들은 신약 시대의 교회를 예표한다.
- (3) 반면에 레위 지파의 직무는 위로 하나님을 섬기며 아래로 교회에 덕을 세우는 교역자들의 사역과 동일하다.
- (4) 그러므로 레위 자손들의 족보는 성경의 내용 중에서 놓칠 수 없는 부분이다.
- (5) 오늘날 성도들은 이런 족보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은혜를 덧입을 수 있다.
- 7. C** ‘언약궤가 평안한 곳을 얻은 후’란 무엇을 말하는가? (31절)
- A** (1) 다윗은 B. C. 1003년에 예루살렘을 탈취한 후 언약궤를 자기의 새 도성으로 옮겨왔다(13, 15장; 삼하 6장).
- (2) 언약궤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아비나답의 자손인 웃사가 성급하게 법궤를 만진 결과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서 죽음을 당하였다(삼하 6:6).
- (3) 이로 인해서 언약궤는 3달 동안 오벧에돔의 집에 머무른 뒤(삼하 6:11) 다윗이 친 장막에 마침내 안치(安置)되었다(삼하 6:17).
- (4)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보호자와 인도자가 되었기 때문이다(마 1:23).
- (5)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며 기쁨이 된다(참조, 롬 8:31-39).
- 8. C** 다윗은 언약궤가 안장된 후 제일 먼저 어떤 기구를 신설하였는가? (31-48절)
- A** (1) 다윗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를 신설하였다(31절).
- (2)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안식을 얻었기에 이제는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었다(참조, 눅 5:34).
- (3)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찬송은 성도들이 누리는 특권이며 또한 기쁨이다(시 146-150편).
- 9. C** 다윗이 신설했던 성가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았던 인물은 누구인가? (31-48절)
- A** (1) 사무엘의 손자였던 헤만이다(33절).
- (2) 그는 성전에서 찬송하는 자였을 뿐 아니라 다윗의 선견자이며 나팔 부는 자였다.
- (3) 그에게는 14남 3녀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성전의 찬양 대원으로 활동하였다(25:4-6).
- (4) 여기서 성전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들은 모두가 남자 성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민 3:5-10; 4:2-49) 유독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만은 남녀가 동등한 자격을 가졌다는 것은 특이할 만한 일이다(참조, 출 15:20, 21).
- (5)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 150:6)라고 노래하였다.
- 10. C** 헤만의 오른편에서 성가대 직무를 수행했던 사람은 누구인가? (39-43절)
- A** (1) 헤만의 형제인 아삽이었다(39절).
- (2) 그는 예언자로서 레위 사람 베레갸의 아들이기도 했다(39절; 대하 29:30).
- (3) 그가 저작한 시편 중의 12, 50, 73, 83편 등은 모두 예언적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
- (4) 그의 자손과 제자들도 성전에서 봉사하는 직무를 맡고 있었다(대하 29:13-30; 35:15).
- (5) 이와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있어서 혼자만의 입술보다는 온 가족과 이웃에게도 찬양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 11. C** 헤만의 왼편에서 성가대 직무를 수행했던 사람은 누구인가? (44-47절)
- A** (1) 레위 지파 중 므라리의 후손이며 기시의 아들인 에단이였다(44절).

- (2) 그는 헤만, 아삽과 함께 낫제금을 치며 찬양하는 자였다(15:19).
- (3) 그런데 여두둔이 보통 헤만과 아삽의 이름과 함께 나타나므로 에단이 여두둔과 동일 인물로 간주된다(16:41;25:1;대하5:12;35:15).
- (4) '여두둔'이란 이름은 솔로몬(대하5:12) 히스기야(대하29:14) 요시야(대하35:15) 통치 시대 때 성전 음악과 관련된 자였으며 여두둔의 가계는 포로 시대 이후에도 계속 성전 음악을 맡았다.
- (5) 에단은 시89편의 저자이며 다윗에게 좋은 충고를 하는 것 이상의 많은 일을 했던 선견자였다(대하35:15).
- (6) 이처럼 그는 입술만의 찬양이 아니라 그의 전생애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것이다. 이처럼 찬양의 결과는 곧 생활에서 나타나야 한다(마7:21).

12. ㉠ 성가대 대장들의 족보가 상세하게 기록된 이유는 무엇인가? (31-48절)

- ㉠ (1) 그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의 종교 운동에 중요한 책임을 담당했으므로 나타난 결과였다.
- (2) 그들은 노래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제사 의식과 관련된 것으로 청소하는 것, 씻는 것, 제물을 준비하는 것 등도 아울러 수행하였다(48절).
- (3) 이처럼 그들의 임무는 자신의 위치를 높이고 부를 축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에게 봉사하기 위함이며 하나님과 백성들의 중재 역할을 함으로써 이스라엘을 속(贖)하게 하기 위함인 것이었다(민1:47-53;4:40-51).
- (4) 즉 그들은 하나님과 백성들을 위해 존재하였다. 이것은 오늘날 자신의 명예와 부의 축적만을 추구하려는 일부 삼군 목사들에게 좋은 귀감이 된다.

13. ㉠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누가 감당하였는가? (49-53절)

- ㉠ (1) 그 일은 오직 제사장들에 의해서만 행하여 졌다(49절).
- (2) 그러나 지성소의 일은 오직 대제사장에 의해서만 행하여져야 했다(참조, 히9:6,7).
- (3) 각자는 자기 일이 있었고 그들 양자(제사장과 대제사장)는 서로가 필요했고 서로를 도와야 했다.
- (4) 그런데 그 모든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행치 않으면 안 되었다. 왜냐하면 그 법은 지존하신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그 법의 파기는 곧 그분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이었다.
- (5) 오늘날도 교회의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법(사랑의 법) 안에서 강한 지체 의식(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참조, 갈6:1-10).

14. ㉠ 아론 자손 중 그핫 자손이 제비 뽑아 얻은 땅은 어디인가? (54-60절)

- ㉠ (1) 장차 예루살렘 성적이 세워질 자리인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들을 얻었다(55절).
- (2) 하나님께서는 아론 자손으로 하여금 제사장 무리를 형성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하기에 편리하도록 성전 가까이에서 머물게 하였다.
- (3)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기업인 동시에 보호자로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적절하게 채워 주셨다.
- (4) 그러므로 전능자의 그늘 안에 거하는 마음은 늘 편할 수밖에 없다(시91편;습3:17).

15. ㉠ 그핫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어떤 곳에 거할 수 있게 하였는가? (61절)

- ㉠ (1) 므낫세 반 지파의 기업 중에서 제비뽑아 10성읍을 주었다.
- (2) 그리고 이들 중에는 모세의 자손도 포함되어 있었다(출6:16, 18, 20).
- (3) 이들은 비록 완전한 자기의 소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어느 성읍에 거하든지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지낼 수 있었다.
- (4) 이들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의 영광을 추구하여 순례자의 길을 가는 성도

들의 삶과 흡사하다(참조, 골3:2).

16. ㉠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에게 독립적인 땅의 분깃을 주지 않고 도피성들과 다른 지파들의 구역에 우거하도록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54-81절)

- ㉠ (1) 이렇게 한 것은 이 지파를 보고 '이스라엘 중에 흠어지리라' (창 49:7)고 한 야곱의 임종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였다.
- (2) 또한 이스라엘 온 땅에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율법에 관한 지식을 유포(流布)시키기 위해서였다.
- (3) 그러므로 모든 지파는 자기들 영토 안에 레위 족속의 성읍들을 가지고 있었다. 아무도 레위의 직책을 무시할 수 없었다.
- (4) 그리고 성물(聖物)을 관리하는 자들(레위인)의 생계 안전을 위해서였다. 그래서 그들은 십일조와 헌물 이외에 성전 영지와 그들이 거주한 성읍들을 가지고 있었다.
- (5) 사실 모든 지파는 레위 지파로 말미암아 은혜와 보호를 입고 있었다. 그러므로 모든 지파는 그들의 생계를 위해 헌납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 (6)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분깃이 되었기 때문이며(수 13 : 14, 33)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무하므로 땅을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7. ㉠ 자기 소유지를 가지지 못했던 레위인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54-81절)

- ㉠ (1) 하나님께서는 영적 레위인들인 우리에게도 어떤 면에서 세상의 기업을 그렇게 많이 허락하지 않았다.
- (2) 왜냐하면 세상의 기업보다 더 훌륭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크게 부각시키기 위해서이다.
- (3) 인간은 나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 편안하고 부유할 때일수록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향이 있다.
- (4) 또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만 가두어 두지 않으시고 세상 속에 각자의 삶이 있게 하셨다.
- (5) 왜냐하면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에 참된 소망과 빛을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 (6) 그러나 비록 우리가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지만 놓치지 말아야 할 주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성결(거룩)이다(벧전 1:16; 2:5).

18. ㉠ 이스라엘에 도피성 제도를 설치한 이유는 무엇인가? (57절)

- ㉠ (1) 본의 아니게 살인한 자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하였다(민 35:11). 이런 제도는 이스라엘 내에 악순환되는 피흘림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였다.
- (2) 도피성에 피한 죄인은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머물러 있어야 했다(민 35:25).
- (3) 이와 같은 도피성 제도는 모든 신자들의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 (4) 오늘날 성도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이며 삶의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왜냐하면 그 분은 성도들의 생명이며 또 모든 환경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때문이다(참조, 요 14:6; 16:33).

제 7 장 잇사갈,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아셀의 자손들

단락구분 1-5 잇사갈의 자손들 / 6-12 베냐민의 자손들 / 13 납달리의 자손들 / 14-19 므낫세의 자손들 / 20-27 에브라임의 자손들 / 28-29 에브라임 자손들이 받은 가나안 땅의 분깃 / 30-40 아셀의 자손들

1 잇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아와 야숨과 시르론 네 사람이며

2 돌라의 아들들은 웃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매와 입삼과 스므엘이니 다 그 아버지 돌라의 집 족장이라 대대로 용사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는 그 수효가 이만 이천 육백 명이었더라

3 웃시의 아들은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다와 요엘과 잇시야 다섯 사람이 모두 족장이며

4 저희와 함께 한 자는 그 보제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삼만 육천 인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은 연고며

5 그 형제 잇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큰 용사라 그 보제대로 계수하면 팔만 칠천 인이었던라

6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며

7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웃시엘과 여리못과 이리 다섯 사람이니 다 그 집의 족장이요 큰 용사라 그 보제대로 계수하면 이만 이천 삼십 사 인이며

8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로에네와 오므리와 여리못과 아비아와 아나돗과 알레멧이니 베겔의 아들들은 이러하며

9 저희는 다 그 집의 족장이요 큰 용사라 그 자손을 보제대로 계수하면 이만 이백 인이며

10 여디아엘의 아들은 빌한이요 빌한의 아들들은 여우스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아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히사할이니

11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그 집의 족장이요 큰 용사라 그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일만 칠천 이백 인이며

12 일의 아들은 습빔과 흠빔이요 아헬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13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룸이니 이는 빌하의 손자더라

14 므낫세의 아들들 그 처의 소생은 아스리엘이요 그 첩 아람 여인의 소생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니

15 마길은 흠빔과 습빔의 누이 마아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브핫이니 슬로브핫은 딸들만 낳았으며

16 마길의 아내 마아가는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 아우는 이름이 세레스며 세레스의 아들은 울람과 라짐이요

17 울람의 아들은 브단이니 다 길르앗의 자손이라 길르앗은 마길의 아들이요 므낫세의 손자며

18 그 누이 함몰레렛은 이스훗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고

19 스미다의 아들은 아히안과 세짐과 리히와 아니암이더라

20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이요 그 아들은 베렛이요 그 아들은 다핫이요 그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 아들은 다핫이요

21 그 아들은 사박이요 그 아들은 수델라며 저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더니 저희가 가드 토인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음이라

22 그 아버지 에브라임이 위하여 여러 날 슬퍼하므로 그 형제가 와서 위로하였더라

23 그 후에 에브라임이 그 아내와 동침하였더니 아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24 에브라임의 딸은 세에라니 저가 아래 윗 벤호론과 우센세이라를 세웠더라

25 브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셉이요 레셉의 아들은 델라이요 그 아들은 다한이요

26 그 아들은 라단이요 그 아들은 암미훗이요 그 아들은 엘리사마요

27 그 아들은 눈이요 그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28 에브라임 자손의 산업과 거처는 벨엘과 그 향리요 동에는 나아란이요 서에는 게셀과 그 향리며 또 세짐과 그 향리니 아사와 그 향리까지며

29 또 므낫세 자손의 지경에 가까운 벤스안과 그 향리와 다아낙과 그 향리와 므깃도와 그 향리와 돌과 그 향리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30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워와 브리야요 저희의 매제는 세라며

31 브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말기엘은 비르사잇의 아버지
 32 헤벨은 야블렛과 소멜과 호담과 저희의 매제 수아를 낳았으며
 33 야블렛의 아들들은 바삭과 빔할과 아스앗이니 야블렛의 아들은 이러하며
 34 소멜의 아들들은 아히와 로가와 호바와 아람이요
 35 그 아우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쉘레스와 아말이요

36 소바의 아들들은 수아와 하르네벨과 수알과 베리와 이므라와
 37 베셀과 훗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란과 브에라요
 38 예델의 아들들은 여분네와 비스바와 아라요
 39 올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시아니
 40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족장이요 뿔힌 큰 용사요 방백의 두목이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 보계대로 계수하면 이만 육천 인이었더라

1. ㉠ 본장의 내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 ㉠ (1) 본장에는 앞장에 이어 계속해서 남은 6 지파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다.
 (2) 그러나 스블론이나 단에 대한 언급은 없다. 왜 그 지파들이 삭제되어야 했는지는 알 길이 없다.
 (3) 다만 라이스에 정착하여 그곳을 단이라 부른(삿 18:27-29) 단 지파들의 식민지에서 우상 숭배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그 지파의 불명예였다.
 (4) 그들의 이런 죄악은 단을 죄악의 본거지로 삼는 계기가 되었는데 여로보암은 이곳에서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우상 숭배를 자행하였다.
 (5) 이러한 죄악으로 단 지파는 본장의 족보에서 뿐만 아니라 구원받을 성도의 족보에서도 제외되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참조, 계 7:4-8).

2. ㉠ 잇사갈의 자손들 중에 이스라엘의 사사(士師)로 활동하였던 사람은 누구인가? (1절)

- ㉠ (1) 부아의 아들인 '둘라'였다(삿 10:1).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한 적이 있었다.
 (2) 본절에서 '둘라'의 이름이 처음으로 언급되었고 2절에서도 '둘라'가 그 족속의 중심 인물인 것으로 보아 '둘라'는 그 당시 주위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사였음을 알 수 있다.
 (3) 이처럼 성경은 그 당대에 하나님의 일군으로서 투철한 사명 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 자에 대해 자세한 언급과 더불어 그의 이름을 확연히 표시해 둔다(참조, 창 46:13).
 (4) 이것은 곧 미래에 얻게 될 경건한 성도들의 상급이 어떠한을 보여 주는 것이다(참조, 고전 3:8).

3. ㉠ 야곱의 임종시 잇사갈에게 행한 예언은 어떤 내용인가? (1-5절)

- ㉠ (1) 야곱은 유순하고 게으른 잇사갈에게 다른 형제들의 활달한 특질과는 달리 철저히 순종하는 자로서 지내게 될 것을 예언하였다(창 49:15).
 (2) 더우기 잇사갈은 농업을 위주로 하는 노동 인력으로서 건장한 체력을 소유하게 될 것을 예언하였다(창 49:14).
 (3) 그러므로 잇사갈 자손에게서 많은 용사들이 배출되었다는 사실은 야곱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2절).

4. ㉠ 야곱이 베냐민에게 했던 예언의 내용은 무엇인가? (6-12절)

- ㉠ (1) '베냐민은 물어 뜯는 이리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리다'고 하였다(창 49:27).
 (2) 이것은 베냐민 지파의 호전성을 예언한 것이다. 이런 기질을 사사 에훗(삿 3:15)과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삼상 11:6-11)에게서 잘 드러났다.
 (3) 또한 이 지파에 속한 군사 수는 6만 명이 채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두 큰 용사로 전해지고 있다(7, 9, 11절).

- (4) 그러나 이들이 지닌 호전적인 기질은 이스라엘 역사에 많은 오점을 남겼다. 특히 사울의 실수(10:13, 14)와 이스라엘의 선왕인 다윗에게 대한 그들의 반역적 행동(삼하 16:5-8; 20:1, 2)이 그것이다.
- (5)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의 성격으로 인해 소속된 공동체에 큰 도움이 되다가 하면 반면에 공동체의 거침들이 되어 많은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
- (6) 그렇지만 성도들은 마땅히 자기가 가진 것(기질과 재능, 건강 등)을 동원하여 공동체(교회나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참조, 롬 15:2; 고전 14:26).

5. **㉠** 본장에 기록된 족보 중에서 가장 짧은 족보를 가진 지파는 어느 지파인가? (13절)

- ㉠** (1) 납달리 지파이다(참조, 창 46:24; 민 26:48-50).
- (2) 이 지파가 족보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못한 이유는 아마도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쓴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다.
 - (3) 그러나 이들은, 다양한 재능(웅변과 노래)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었다(창 49:21; 사 4:9; 5:1-31).
 - (4) 그리고 이들은 먼 훗날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용기를 얻었다(4:12-16).
 - (5) 이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드러내 놓고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가난한 자, 병든 자, 압제당하는 자 등)을 찾아오셔서 구원과 해방의 기쁨을 허락하셨다(참조, 골 3:1).

6. **㉠** 므낫세의 첩은 어느 나라 여인이었는가? (14절)

- ㉠** (1) 아람(시리아) 여인이었다. 즉 므낫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혼혈아를 출생시켰다.
- (2)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이미 이런 국제 결혼이 성행하고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참조, 창 41:45; 출 2:21).
 - (3)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국제 결혼을 금지시키셨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삶과 영혼의 순수성을 위해서 이방 우상으로 오염되어 있는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하셨던 것이다.
 - (4) 이처럼 하나님이 금하신 조항을 인간들은 육정과 인간적인 제책으로 말미암아 어겼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되게 그 일들을 추진해 갔다.
 - (5)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 철저히 부패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한 모습이다. 하나님의 법도를 거역하는 자는 그에 합당한 형벌을 반드시 얻게 될 것이다.

7. **㉠** 본장에 언급된 므낫세 지파 중에서 유일하게 그 공적이 성경에 기록된 자는 누구인가? (17절)

- ㉠** (1) 울람의 아들 브단이었다. 그는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하술, 블레셋, 모압)에게서 해방시키는 데 큰 공헌을 하였다(삼상 12:9-11).
- (2) 그러나 그 외의 므낫세 지파 사람들의 공적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들의 이름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 (3) 이처럼 별로 알려지지 않은 인물조차 그 이름들이 자세히 언급된 것은 성경이 얼마나 역사성이 있는 책인지를 입증해 준다.
 - (4) 따라서 기독교는 허구의 종교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하고 있는 종교이다.

8. **㉠** 에브라임의 아들들 중 예셀과 엘르앗이 가드 토인들에게 살해된 이유는 무엇인가? (21절)

- ㉠** (1) 가드 토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짐승을 탈취하려 했기 때문이다.
- (2) 사실 그 당시는 짐승이 그들의 재산과 생명으로 취급되었던 때였기 때문에 이러한 죽음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9. **㉠** '브리아'란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23절)

- Ⓐ (1) '브리아'란 재앙을 받았다는 뜻이다.
 (2) 에브라임은 자신의 아들들이 이방인의 손에 죽자 깊은 슬픔에 잠겼다(21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을 위로하시고(22절) 그에게 또 다른 아들(브리아)을 주셨다.
 (3)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필요에 의해 그 백성에게 환난을 주시지만 반드시 위로와 회복과 은총을 허락하신다(참조, 욥 5:17, 18; 호 6:1-3).

10. Ⓒ 에브라임 지파가 받았던 가나안 땅의 분깃은 어디인가? (28, 29절)

- Ⓐ (1)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시리즈 수 16장을 참조하라.
 (2) 본장 내에 있는 다른 지파와는 달리 그 분깃을 명시해 놓은 이유는 비록 이 지파에서 아들이 끊기고(15절) 많은 재난(21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3)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많은 손실과 고난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가 변함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히 6:17, 18).

11. Ⓒ 야곱의 아들인 '아셀'은 누구의 소생이었는가? (30-40절)

- Ⓐ (1) 야곱의 첩 실바의 소생이었다(창 30:53).
 (2) 야곱은 '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지고 그가 왕의 진수를 공회하리라'는(창 49:20) 축복을 하였고 모세는 '저가 풍성한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밭이 기름에 잠기리라'고 축복하였다(신 33:24).
 (3) 이러한 축복과 약속대로 그들이 가나안을 점령했을 때 지중해 연안 가장 기름진 땅을 얻어 안주하였다(수 19:24-31).
 (4) 그들이 받은 축복은 물론 그들을 위한 것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온 이스라엘을 살지우게 하며 기쁨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5)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은 자신의 행복과 안일만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12. Ⓒ 아셀 지파의 군사는 모두 몇 명이었는가? (40절)

- Ⓐ (1) 모두 2만 6천 명으로서 다른 지파에 비해 소수의 병력이었다.
 (2) 사실 이들에게는 많은 병력이 필요치 않았다. 왜냐하면 이들의 전문 직업은 농사 짓는 일이었기 때문이다(창 49:20).
 (3)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 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 특별한 직분과 기능을 맡겨 주셨다.
 (4)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웃이 가진 훌륭한 직책과 능력을 보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셨는가를 살피는 지혜로움이 필요하다.

본장의 요절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29절).

제 8 장 베냐민 지파의 족보

단락구분 1-28 베냐민 지파의 족장들 / 29-40 사울과 요나단의 계보

1 베냐민의 낳은 자는 만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2 네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며
 3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앓달과 게라와 아비훗과
 4 아비수아와 나아만과 아호아와
 5 게라와 스부반과 후람이며
 6 에훗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저희는 게바 거민의 족장으로서 사로잡아 마나헷으로 가되
 7 곧 나아만과 아히야와 게라를 사로잡아 갔고 그가 또 옷사와 아히훗을 낳았으며
 8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아라를 내어 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9 그 아내 호테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비야와 메사와 말감파
 10 여우스와 사가와 미르마라 이 아들들은 족장이며
 11 또 그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훗과 엘바알을 낳았으며
 12 엘바알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밋이니 저는 오노와 롯과 그 향리를 세웠고
 13 또 브리아와 세마니 저희는 아얄론 거민의 족장이 되어 가드 거민을 쫓아내었더라
 14 아히요와 사삭과 여레못과
 15 스바다와 아랏과 에필과
 16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하는 다 브리아의 아들들이요
 17 스바다와 므술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18 이스므래와 이슬리아와 요밥은 다 엘바알의 아들들이요
 19 야깁과 시그리와 삼디와
 20 엘리에내와 실르대와 엘리엘과
 21 아다야와 브라야와 시므랏은 다 시므이의 아들들이요
 22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23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24 하나냐와 엘람과 안도디야와

25 이브드야와 브누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26 삼스래와 스하락과 아달락과
 27 야아레시아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다 여로함의 아들들이니
 28 이는 다 족장이요 대대로 두목이라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
 29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며
 30 장자는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31 그들과 아히오와 세겔이며
 32 미글롯은 시므아를 낳았으며 이 무리가 그 형제로 더불어 서로 대하여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
 33 넢은 기스를 낳았고 기스는 사울을 낳았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34 요나단의 아들은 트림바알이라 트림바알이 미가를 낳았고
 35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며
 36 아하스는 여호앗다를 낳았고 여호앗다는 알레멧과 아스마멧과 시므리를 낳았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았고
 37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라바요 그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 아들은 아셀이며
 38 아셀에게 여섯 아들이 있어 그 이름이 이러하니 아스리감파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락과 오바다와 하난이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39 그 아우 에셋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 장자는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벨렛이며
 40 울람의 아들은 다 큰 용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일백 오십 인이 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1. ㉠ 본장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라.

㉠ (1) 본장에는 베냐민 지파에 대하여 7:6-12에 주어진 족보가 보완되고 있다.

(2) 7:6-12에 이어서 본장에 다시 베냐민 지파의 족보가 계속되는 것은 이 지파에서 이스라

엘의 첫번째 왕인 사울이 나왔기 때문이다.

- (3) 그리고 이 지파는 대부분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또 유다 지파에 붙어 있었고 바벨론에 포로 되었다가 돌아온 두 지파 중 하나이기도 하다(9:1-9).
- (4)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을 단순한 족보를 통해서 암시하는 것은 성경의 한 특징이다.
- (5) 그러므로 우리들이 성경에 언급된 조그마한 사건과 내용들을 확인하고 연구해 나간다면 모든 사실들이 진리이며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참조, 딤후 3:15-17).

2. **㉠ 본장에 기록된 베냐민의 아들들이 7:6과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1, 2절)**

- ㉠** (1) 본장에는 베냐민의 아들들이 ‘벨라, 아스벨, 아하라, 노하, 라바’ 등으로 언급되었는데 비해 7:6에서는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라고 기록되었다.
- (2) 이러한 차이에 대해서 여러 구구한 학설이 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본장에 기록된 이름들이 ‘벨라’를 제외하고 모두가 손자 이상의 후손들이라는 견해가 가장 타당하다.
- (3) 왜냐하면 히브리어 용법상 아들이라는 말과 손자라는 말이 혼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 (4) 이것은 벨라의 경우에서도 발견된다(3-5절; 7:7).

3. **㉠ 에훗의 아들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6, 7절)**

- ㉠** (1) ‘나아만’과 ‘아히라’와 ‘게라’이다(7절).
- (2) 이들은 레위 자손의 성읍이 된(6:60) 베냐민 땅 게바(삼상 13:16)의 족장들로서 그 부족민들을 마하낫 지방으로 이주시켰다.
- (3) 그런데 ‘게다’가 ‘웃사’와 ‘아이훗’을 낳았다는 사실이 언급되어 있다.
- (4) 이와 같이 에훗의 후손들을 상세히 다룬 이유는 에훗이 이스라엘에 큰 공헌을 하였기 때문이다.
- (5) 즉 에훗은 이스라엘의 2대 사사(士師)로서 이스라엘을 모압 왕 에글론의 수중에서 구출한 용사였다(참조, 삿 3:15-31).

4. **㉠ 사하라임의 아내였다가 쫓겨난 여인은 누구인가? (8-28절)**

- ㉠** (1) ‘후심’과 ‘바아라’였다(8절). 그러나 이들의 이혼 사유는 알 수 없다.
- (2) 여기서 쫓겨난 ‘후심’의 자녀들이 왕성하게 번창했음을 볼 수 있다.
- (3) 이와 같은 사실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소외되고 압박받는 자들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잘 반영해 준다(참조, 창 21:18).
- (4) 이처럼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의롭게 된 자들을 돌아보신다.

5. **㉠ 베냐민 지파의 번창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11-28절)**

- ㉠** (1) 베냐민 지파는 기브아에서의 죄악으로(삿 20:12-48) 인해 사사 시대 때 매우 쇠퇴해 있었다. 그때 당시 단지 600명의 용사만이 심판의 칼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삿 20:47).
- (2) 그러나 본장에 나온 족보로 보아 이제 그들은 다른 지파에 버금가는 자손들을 가지게 되었다.
- (3) 그것은 심히 몰락하여 비참하게 된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가장 연약한 자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
- (4) 그러므로 비록 엄청난 죄악으로 비참해진 죄인이라 하더라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수렁에서 건지시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실 것이다(참조, 시 40:1, 2).

6. **㉠ 사울의 고향은 어디였는가? (29-40절)**

- ㉠** (1) ‘기브온’이었다(29절). 기브온은 기브아로 부르기도 했다(참조, 삼상 10:26; 11:4).
- (2) 기브온을 중심으로 번창했던 사울 가문은 사울의 실각에도 불구하고 약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계보를 이어갔다.
- (3) 즉 하나님께서는 어떤 면으로 사울을 이용하셔서 당신의 나라 건설을 꾀하셨던 것이다.

(4) 이처럼 하나님은 역사에 나타나는 한 사건과 한 인물도 놓치지 않으시고 당신의 계획에 따라 사용하신다.

7. **㉠ 요나단의 아들은 누구였는가? (34 절)**

- ㉠** (1) ‘므립바알’이었다. 그는 절뚝발이로서 ‘므비보셋’이라고도 불리어졌다(삼하 4:4;9:12).
 (2) 므립바알은 비록 절뚝발이로서 몰락한 왕손이었지만 그를 통하여 사울 왕가의 계보를 계속해서 이을 수 있었다.
 (3) 이처럼 아주 미미한 존재였던 므립바알로 인하여 많은 자손이 퍼진 것은 다윗과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삼상 20: 15, 23, 42)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다.
 (4)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신다(참조, 약 5:16).

8. **㉠ 사울 집안의 족보는 누구에게서 끝이 났는가? (40 절)**

- ㉠** (1) 울람과 그 아들 및 손자에게서 끝이 났다.
 (2) 그런데 울람의 집안은 큰 용사가 많았으므로 베냐민 지파 중에서 유명하였다.
 (3) 한 사람의 후손들 중에 큰 용사로 전쟁터에서 활 잘 쏘는 자가 무려 두 세대에 150명이나 있었다는 것은 놀랄 만한 일이다.
 (4) 그들의 이러한 번창은 부유함이나 사치스러움 보다도 이스라엘을 위해 일할 능력이 많이 배출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
 (5)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당신의 나라를 밝히는 데 사용하셨다(사 42:3).

연구자료

바알(Baal)과 관련된 이름들. 성경을 살펴보면 사람의 이름은 물론이고 지명에까지도 ‘바알’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는 명칭이 자주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수 15:9, 10; 삿 6:32; 삼하 13:23; 왕상 9:18). 바알은 본래 가나안과 시돈 사람들이 섬기던 이방 신이다(참조, 삿 2:11; 8:33; 삼상 7:4). 그런데 ‘바알’이란 단어의 뜻이 ‘주인’이라는 점에 의거해 이스라엘인들은 이 단어를 만물의 주인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칭호로도 사용하였다. 하지만 이스라엘인들은 바알이라는 단어가 지니고 있는 우상 숭배적 의미를 싫어하여 이 같은 단어를 곧잘 배격하였었다. 그러한 예로서 우리는 ‘에스바알’(Eshbaal)이란 이름이 ‘이스보셋’으로 바뀐 것(삼하 2:8)과 ‘므립바알’(Merib-baal)이란 이름이 ‘므비보셋’으로 바뀐 것(삼하 9:6)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이와는 달리 기드온에게는 ‘바알과 다툰다’는 뜻의 ‘여룹바알’(Jerubbaal)이란 이름이 주어졌는데 이는 조금 특이한 경우이다(삿 6:32). 이 외에도 바알과 관련된 이름으로는 ‘바알하난’(27:28; 창 36:38)과 ‘바알리스’(렘 40:14), ‘엘바알’(8:11) 등이 있다.

제 9 장 예루살렘의 주민들과 사울의 가계(家系)

단락구분 1-9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나민과 유다지파 / 10-13 예루살렘에 거주한 제사장들 / 14-26 예루살렘에 거주한 레위인 / 27-34 레위인의 중성과 직무 / 35-44 사울과 요나단의 계보(系譜)

1 온 이스라엘이 그 보계대로 계수되고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을 인하여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2 먼저 그 본성으로 돌아와서 그 기업에 거한 자는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3 유다 자손과 베나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한 자는

4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니 저는 암미훗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5 실로 사람 중에서는 장자 아사야와 그 아들 들이요

6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육백 구십 인이요

7 베나민 자손 중에서는 핫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므술람의 아들 살무요

8 여로합의 아들 이브느야와 미그리의 손자 웃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야의 증손 르우엘의 손자 스바다의 아들 무술람이요

9 또 저의 형제들이라 그 보계대로 계수하면 구백 오십 육 인이니 다 그 집의 족장된 자들 이더라

10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11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아사라니 저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므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므라못의 현손이요 아히들의 오 대 손이며

12 또 아다야니 저는 여로합의 아들이요 바스훈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야새니 저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므술람의 증손이요 므실레밋의 현손이요 임멜의 오 대 손이며

13 또 그 형제들이니 그 집의 족장이라 하나님의 전의 일에 수종들 재능이 있는 자가 모두 일천 칠백 육십 인이더라

14 레위 사람 중에서는 므라리 자손 스마야니 저는 핫습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바의 증손이며

15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맞다냐니 저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16 또 오바다니 저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 베레가니 저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느도바 사람의 향리에 거하였더라

17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두목이라

18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편 곧 레위 자손의 영의 문지기며

19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 열조도 여호와와 영을 맡고 그 들어가는 곳을 지켰으며

20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 무리를 거느렸고

21 므셀레야의 아들 스가라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22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이백 열들이니 이는 그 향리에서 그 보계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전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23 저희와 그 자손이 그 반열을 좇아 여호와와 그의 전 곧 성막 문을 지켰는데

24 이 문지기가 동서 남북 사방에 섰고

25 그 향리에 있는 형제들은 이레마다 와서 함께 하니

26 이는 문지기의 두목 된 레위 사람 넷이 긴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음이라

27 저희는 하나님의 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전 사면에 유하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있었더라

28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데 쓰는 기명을 맡아서 그 수효대로 들어가고 수효대로 내어오며

29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기명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30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롭음 만들었으며

31 고라 자손 살롬의 장자 맞디다라 하는 레위 사람은 남비에 지지는 것을 맡았으며

32 또 그 형제 그핫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33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족장이라 저희가 골방에 거하여 주야로 자기 직분에 골몰하므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34 이상은 대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으뜸이라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

35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야가라

36 그 장자는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벨과 나답과

37 그들과 아히오와 스가라와 미글못이며

38 미글못은 시므암을 낳았으니 이 무리도 그 형제로 더불어 서로 대하여 예루살렘에 거하였

더라

39 벨은 기스를 낳았고 기스는 사울을 낳았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와 아비나답과 에스박알을 낳았으며

40 요나단의 아들은 트림바알이라 트림바알이 미가를 낳았고

41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며

42 아하스는 야라를 낳았고 야라는 알레멧과 아스마멧과 시므리를 낳았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았고

43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 아들은 아셀이며

44 아셀이 여섯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아스리갑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라와 오바다와 하난이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1. ㉠ 본장의 특징은 무엇인가?

- ㉠ (1) 본장에는 예루살렘에 거주한 주민들과 사울 가문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다.
 (2) 이 모든 기록들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유대인들에게 자기들의 가문과 어디에 가서 살 것인가를 알려 주기 위한 것이다.
 (3) 그리고 사울의 족보는 8:29-40에 이미 기록되었는데 본장에 다시 언급되었다. 그의 족보가 이처럼 중복된 것은 10장에 기록된 사울의 패망하는 내력을 족보로 밝히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이 족보는 10장의 서론격이다.
 (4) 이처럼 성경의 한 부분은 그 자체로서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제공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다른 부분을 보충하고 더 확실한 사실들을 밝혀 주는 역할도 한다.
 (5)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참조, 사 34:16).

2. ㉠ 은 이스라엘이 그 족보(제보) 대로 계수된 때가 언제인가? (1절)

- ㉠ (1)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전이다.
 (2) 본절에서는 그들이 인구 조사를 할 만큼 평안한 시절을 보내었으나 그들의 범죄로 인하여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3) 이처럼 하나님은 비록 당신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그들에게서 하나님을 떠난 행위가 발견될 때에는 경고와 심판의 채찍을 아끼지 않으신다.
 (4) 그러나 이러한 채찍이야말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강렬한 표현이다(참조, 히 12:5-13).

3. ㉠ '이스라엘 열왕기(列王記)'란 무엇을 말하는가? (1절)

- ㉠ (1) 이것은 성경의 열왕기상·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궁중 기록과 명부들로서 지금은 유실되고 없다.
 (2) 이처럼 성경은 역사성을 가진 책으로서 다른 고고학적 자료들과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4. ㉠ '본성'(本城)이란 어디를 가리키는가? (2절)

- ㉠ (1) 바벨론으로 잡혀가기 이전에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살던 곳을 말한다.
 (2) 한편 본절에 나오는 '먼저'라는 말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바벨론으로부터)

- 을 감사하며 먼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자들의 감격을 읽을 수 있다(참조, 느 11:3).
- (3)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바로 오늘날의 성도들을 예표한다. 즉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어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며 하늘의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동일하다(참조, 히 11:16).
- (4) 우리들은 돌아갈 본향이 있기에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참조, 요 14:2).

5. **㉠** ‘느디님’이란 누구를 말하는가? (2절)

- ㉠** (1) 성전에서 레위인들을 돕던 하급 일꾼들을 가리킨다(참조, 스 2:43;8:20).
- (2) 여기서 ‘느디님’의 뜻은 ‘주어진 자들’인데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드러진 것과 같이(민 8:16) 다윗은 레위인들을 돕는 한 집단을 임명한 것이다(23, 24장).
- (3) 이들은 주로 나무 패는 일과 물 긷는 일을 했는데 대부분이 외국인들이었다. 예를 들면 기브온족(수 9:27)으로서 비록 미천한 대우를 받았지만 그들 중 많은 사람이 여호와 신앙을 갖게 되었다.
- (4) ‘느디님’은 그들 자신의 도시에서 살았고(스 2:70) 에스라 밑에서 ‘느디님’의 몇 사람이 돌아와서(스 7:7) 세금을 면제받은 적도 있다(스 7:24).
- (5) 또한 이들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구성한 조직에도 언급되었고(느 3:26) 바벨론 귀환자들의 목록에 따라 순수 유다인의 예루살렘 정착을 시도했던 느헤미야의 설명에서도 언급되어 있다(느 11:3, 21).
- (6) 이와 같이 ‘느디님’이 성경 여러 부분에 기록된 이유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 건설에 사용하시며 그들을 기억하고 계심을 보여 주기 위해서이다.

6. **㉠** 예루살렘에 거한 자는 어느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었는가? (3-9절)

- ㉠** (1)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 속한 자들이었다(3절).
- (2) 이러한 일은 이미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그 땅에서 올라와’(호 1:11) ‘다시 한 나라를 이루게 되리라’(겔 37:22)고 예언자들이 언급한 바 있다.
- (3) 한편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많은 수자가 포로 석방 이후에도 바벨론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이들 중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된 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였다.
- (4) 이와 같이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지속적인 전진을 해나가는 자가 있는 반면에 구원 이전의 생활로 되돌아가 육신의 안일만을 추구하는 자들도 있다(참조, 고전 2:14-3:3).

7. **㉠** 제1차 포로 귀환 때 제사장들이 함께 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10-13절)

- ㉠** (1) 바벨론에서 제일 먼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이 제사장들이라는 사실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 (2) 왜냐하면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종교적인 차원에서 손상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이 수행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 (3)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고 우리의 삶에 절망만이 남았을 때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할 것이다(참조, 사 59:2).
- (4) 또한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겠다고 한 사실도 본받을 만한 일이다.
- (5) 왜냐하면 그들 중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율법을 깨우쳐 줄 사람이 제

사장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6)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세상의 혼탁함으로 진리가 발견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만이 빛이 되어 바른길로 인도하여 주신다(참조, 요 14:8).

8. **㉠** 제1차 포로 귀환 때에 함께 온 자 중에 하나님의 전의 일에 수종들 재능이 있는 자는 모두 몇 명이었는가? (13절)

㉠ (1) 수종들 자는 모두 1,760명이었다.

(2) 그들은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남들을 돕는 자였으며(느 11:12-14) 성전 업무를 충분히 도울 수 있을 만큼 재능 있는 자들이었다.

(3)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직분 맡은 성도들도 그 직분으로 인하여 교만하기 보다는 그 맡은 일을 어떻게 충실히 수행할까 하는 데 더 신경을 써야 한다.

(4) 이렇게 될 때 미미한 존재라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자가 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더욱 큰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이다(참조, 고후 12:9, 10).

9. **㉠** 레위 사람들이 제1차 포로 귀환 때 함께 돌아왔던 이유는 무엇인가? (14-16절)

㉠ (1) 제사장을 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였다.

(2) 즉 그들은 예전에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의식을 등한시했고 근래에는 그 의식을 규례 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징계를 받았다. 이것을 깨달은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중히 여기고 열심을 내었다.

(3)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레위인들과 같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가 있다. 이러한 범죄는 인간이면 모두가 겪을 수 있는 것이다.

(4) 그러나 지혜로운 성도라면 좀더 빠른 시간 안에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복의 은총을 덧입을 것이다.

(5) 우리의 허물에 대한 회개는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에게 유익하다.

10. **㉠** 레위 자손 중에 왕의 문 동편 문지기 일을 수행했던 사람은 누구인가? (17, 18절)

㉠ (1) 살룸, 악굽, 달몬, 아히만 그리고 그 형제들이었다(17절).

(2) 이들은 성막과 성전의 문 주위를 감시하는 자들이었다.

(3) 시편 기자는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노래하였다(시 84:10).

(4) 이처럼 하찮은 일일망정 하나님의 집(교회)을 위하여 힘쓰는 자들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며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께 열납되는 산제사가 된다.

(5) 그러므로 우리들은 조그마한 일에 있어서도 성실과 신의를 가지고 그 일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참조, 마 25:21).

11. **㉠** 성막 문지기들을 통괄했던 사람은 누구인가? (19-21절)

㉠ (1)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였다(20절).

(2) 즉 그는 모세 시대에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엘르아살이 레위 지파의 어른(민 3:32)으로서 성소를 지키는 자들을 주관했듯이 부친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여호수아 시대 때 문지기들을 거느렸다.

(3) 그가 비록 대제사장은 아니었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자' 또는 '여호와의 말씀이 도우시는 자'였다(20절).

(4)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맡기신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과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인가라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12. **㉠** 성전 문지기 제도를 수립했던 사람은 누구인가? (22-27절)

㉠ (1) 성전 문지기 제도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수립했다(22절).

(2) 사무엘은 문지기들을 위한 순번 제도를 마련했으며 그가 어릴 때에 그 직분을 스스로

수행하기도 했다(삼상 3:15).

- (3) 이렇게 하여 레위인 문지기에 대한 제도를 다윗이 완성하기 전에 그 기초를 사무엘이 마련했던 것이다.
- (4) 결국 이것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종교적 제도의 중개를 맡아 다윗의 종교 개혁의 길을 준비했다는 것을 알려 준다.
- (5)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고자 하는 조그마한 움직임이 당장은 그 실효를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말자.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결코 헛되이 들리지 않으신다.

13. ㉠ '섭기는 데 쓰는 기명(器皿)'은 무엇을 말하며 그 관리자는 누구인가? (28-32절)

- ㉠ (1) 이것은 제사에 사용되는 금, 은의 귀한 그릇들로서(참조, 28:13; 단 1:2; 5:2) 이것은 레위인들만이 관리할 수 있었다.
- (2) 레위인들은 기명을 관리하는 일 뿐 아니라 제사에 쓰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들도 준비했으며(29절), 소제물을 맡았으며(31절), 진설병을 만들고(32절), 특히 제사장 계열에서 거룩한 향기름을 만드는(30절) 등 다양한 모습으로 성막에서 봉사하였다.
- (3) 레위인들은 각자가 맡은 다양한 직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다.
- (4) 우리가 속한 교회 내에서도 이처럼 다양한 직분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직분들은 분파와 부조화를 조성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선(善)을 추구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참조, 롬 8:28).

14. ㉠ 성전에서 찬송을 맡았던 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33, 34절)

- ㉠ (1) 그들은 레위 족장들이었다(33절; 6:31-48).
- (2) 그들은 찬송 부르는 일에 전념하였으며 다른 일은 일체 하지 않았다(33절).
- (3) 이처럼 쉬임없이 우리들을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찬송하는 일은 성도의 마땅한 일이다(참조, 엡 5:19-21; 히 13:15).
- (4) 이 일은 천국에까지 계속된다(참조, 계 4:8).

15. ㉠ 성경에 언급된 찬송에 대하여 열거하라(33, 34절).

- ㉠ (1) 먼저 시편은 거의 모든 부분이 찬송시이다.
- (2) 시편 이외의 찬송은 출애굽(출 15장), 드보라와 바락(삿 5장), 한나(삼상 2장), 다윗(삼하 22장), 요나(욘 2장), 하박국(합 1, 2장), 신약(눅 1, 2장) 등이 있다.
- (3) 위에 언급된 찬송들은 단지 드러난 것들이지만 성경 전체를 통하여 찬송 소리가 끊어진 적이 없었다.
- (4) 즉 믿음의 선배들은 고난 중에서든지 기쁨 중에서든지 어떠한 상황에도 초월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넘쳤다.

16. ㉠ 사울의 족보가 8장에 이어 재언급된 이유는 무엇인가? (35-44절)

- ㉠ (1) 그 이유는 단지 다음 장에 나오는 왕권의 역사와 앞에 있는 족보들과 연관시키기 위하여 언급된 것이다.
- (2) 이러한 족보 이야기는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 (3) 그러므로 족보의 내용이 계속 반복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으로 말미암아 소홀히 취급해서는 안 된다.

제 10 장 사울의 전사(戰死)

단락구분 1-6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사울과 그 온 집이 전사하다 / 7-10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머리를 취하여 가다 / 11-12 길르앗 아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장례식을 치루다 / 13-14 사울이 패전한 이유

1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산에서 죽임을 받고 엎드러지니라

2 블레셋 사람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3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를 인하여 심히 근급하여

4 자기의 병기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저 할례없는 자가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 병기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지니

5 병기 가진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 죽으니라

6 이와 같이 사울과 그 세 아들과 그 온 집이 함께 죽으니라

7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저희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 아들들의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이 와서 거기 거하니라

8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를 벗기다가 사울과 그 아들들이 길보아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9 곧 사울을 벗기고 그 머리와 갑옷을 취하고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어 모든 우상과 못 백성에게 광고하게 하고

10 사울의 갑옷을 그 신의 묘에 두고 그 머리를 다곤의 묘에 단지라

11 길르앗아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12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들의 시체를 취하여 아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나무 아래 그 해골을 장사하고 칠 일을 금식하였더라

13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와 말씀은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성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14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1. ㉠ 본장에 언급된 사건은 무엇인가?

㉠ (1) 본장에는 사울의 전사가 삼상 31장과 같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

(2) 이 역대기 속에서 에스라가 의도한 것은 다윗 집안에 대한 기록들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었다.

(3) 비록 보통 사람의 눈에는 바벨론 포수로 인해서 다윗 집안이 침체되고 쇠퇴해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윗의 후손(예수 그리스도)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믿으며 사는 자들이 보기에는 그 집안은 더욱 눈부시게 흥성(興盛)해지고 있었다.

(4) 그러므로 본서 저자인 에스라는 본장에서 사울의 정사(政事)를 반복하지 않고 다윗을 왕위에 오르게 했던 사울의 죽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5) 이와 같이 성경의 전(全)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하나님 나라에 주안점을 두고 기록되었다.

2. ㉠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 사울과 그 아들들이 전사했던 사실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1-6절)

㉠ (1) 사울이 가지고 있는 죄의 그릇이 찼을 때 그의 시대는 막을 내렸다(참조, 삼상 26:10).

(2) 사울은 죄의 결과로 자신 뿐만 아니라 므비보셋(삼하 4:4)을 제외한 모든 아들까지도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 (3) 그 아들 중 매우 의롭고 자비로운 요나단마저 죽음을 당하였는데 그것은 그가 사울의 핏줄이었기 때문이다.
- (4) 이처럼 아버지의 죄가 자손들에게 악영향을 미쳤고 그 자손들은 저주받은 아버지의 한 부분으로서 파멸하게 되었다.
- (5) 그러나 비록 아버지의 죄악으로 인해 그 자손들은 이 세상에서 종말을 고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명을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다.
- (6) 그러므로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참조, 잠 14:32).

3. **㉠ 사울은 어떠한 최후를 맞이하였는가? (3-5절)**

- ㉠** (1) 사울은 블레셋 군인이 쏜 화살에 맞아 부상당하였으나 자신의 명예가 더 이상 손상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자살하였다(참조, 삼상 31:4).
- (2) 그는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삼상 14:7-14)과 불순종(삼상 15:17-23)으로 이러한 위기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에 대한 심각한 회개보다는 자신의 명예를 먼저 생각하는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었다.
- (3)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의 영예만을 추구하는 자들은 그 결국이 비참할 수밖에 없다.
- (4)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이미 버리셨기 때문이다.

4. **㉠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무찌른 후 뿔수습을 어떻게 하였는가? (7-10절)**

- ㉠** (1) 블레셋은 길보아 산과 요단 강 사이에 있는 마을들을 점령하고(삼상 31:7) 전사한 이스라엘 군인들의 갑옷을 벗겼으며 특히 사울의 갑옷은 아스다롯(그들의 신)의 묘에 두고 그 머리는 다곤의 묘에 달았다.
- (2) 그리고 사울의 머리 잘린 시체는 벤산 성벽에 못박아 왕래하는 자들의 구경거리로 삼았으며 블레셋 전역에 승리의 소식을 전하였다.
- (3)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욕을 당하면서까지 당신 백성의 죄를 다스렸던 것이다.
- (4)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깨닫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의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참조, 시 1:1).

5. **㉠ 블레셋이 섬겼던 '다곤'은 어떤 신(神)이었는가? (10절)**

- ㉠** (1) '다곤'에 대해서 혹자는 '곡식'을 의미하는 말 <다간>과 관련되었다고 하지만 사실이 말은 '고기'를 의미하는 <다그>와 관련되어 있다(참조, 느 13:16).
- (2) 이것은 생산의 번성을 위하여 만들어진 우상인데 그 상체는 사람의 모양이고 아랫부분은 물고기 모양으로 되어 있다.
- (3) 한편 앗시리아, 페니키아 등지의 민족들도 이 우상을 섬겼는데 블레셋은 이것을 페니키아에서 수입한 것 같다.
- (4) 하나님의 백성의 범죄는 이와 같이 무의미한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즉 진리를 떠난 자는 거짓의 종이 되고 만다(참조, 롬 1:18-32).

6. **㉠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체를 장사하고 그를 위해 7일 동안 슬픔을 표시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11, 12절)**

- ㉠** (1) 옛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의 침략을 당하였을 때에 사울이 그들을 구원해 준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삼상 11:1-11).
- (2) 그러므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이러한 행사는 당연한 보답 행위였다.
- (3) 사울의 일생에서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해 준 일이 가장 두드러진다.
- (4) 이처럼 인간적인 차원에서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생명과 재산을 내어 놓고 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간과해 버리실까? (참조, 마 19:28, 29)

7. **㉠** 성경은 사울의 죽음의 원인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13, 14절)

- ㉠** (1) 사울이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했다(13절). 즉 그의 죽음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삼상 13:8, 9; 15:3, 9) 귀신의 뜻을 좇은 그의 불순종(삼상 28장)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 (2)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점신녀를 찾아갔던 것은 죄악이었다.
- (3) 사실 사울은 하나님 나라(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 그는 통치 원리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악한 인간의 피(점신녀의 술수)에 자신을 의탁했던 것이다.
- (4)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비이성적이고 비신앙적인 행동을 자행했다.
- (5)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자의 결국은 죽음밖에 없다. 즉 사울은 자살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으로 인도하셨다(14절).

8. **㉠** 사울이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말은 삼상 28:6의 '여호와께 물었다'는 말과 상충되는 부분이 아닌가? (14절)

- ㉠** (1) 여기서 '묻지 않았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계속하여 묻지 않았다'는 뜻이며 삼상 28:6의 '물었다'는 말은 1회적인 물음을 의미한다.
- (2) 즉 사울이 가장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뜻으로 두 구절을 통괄하여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두 구절은 서로 모순이 되지 않는다.
- (3) 사울의 이러한 행동은 우리의 삶 주변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우리들은 다 급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우리의 지혜와 능력만 의지하는 경우가 많다.
- (4)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신을 의뢰하기를 바라신다.

9. **㉠** 사울의 죽음은 결국 이스라엘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가? (14절)

- ㉠** (1) 사울의 죽음은 이스라엘이 명실 상부한 왕정 국가 체제로 돌입하는 계기가 되었다. 즉 사울을 이은 다윗의 등극으로 이스라엘에는 평화와 안정이 정착되었으며 번영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 (2) 이것은 당신의 나라를 건설해 가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한 부분이다.
- (3)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삼상 16:7)인 다윗을 통하여 당신이 목적하는 나라를 건설하시고자 사울을 폐하셨던 것이다.
- (4)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 안에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며 주권자들을 통솔해 가신다. 참으로 그는 만왕의 왕이시다(참조, 엠 1:23).

본장의 요점

'이와 같이
사울과 그 세
아들과 그 온 집이
함께 죽으니라' (6절).

제 11 장 다윗의 즉위와 예루살렘 정복 및 다윗의 용사들

단락구분 1-3 사울을 이어 다윗이 왕위에 오르다 / 4-9 다윗이 여부스족으로부터 예루살렘을 탈환하다 / 10-25 다윗이 거느린 용장(勇將)들과 그들의 공적 / 26-46 다윗의 수하에 있던 많은 용사들

1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가로되 우리는 왕의 골육이니이다

2 전일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였나이다 하니라

3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로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4 다윗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토인이 거기 거하였더라

5 여부스 토인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산 성을 때었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6 다윗이 가로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두목과 장관을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투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두목이 되었고

7 다윗이 그 산성에 거한 고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일컬었으며

8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남은 성은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9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10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두목은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다윗의 힘을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세위 왕을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던라

11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효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브암은 삼십 인의 두목이라 저가 창을 들어 한 때에 삼백 인을 죽였고

12 그 다음은 아호아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13 저가 바스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하였더니 블레셋 사람이 그 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14 저희가 그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던라

15 삼십 두목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 가서 아들람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16 그 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영채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17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하매

18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고

19 가로되 내 하나님이며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를 여찌 마시리이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20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삼인의 두목이라 저가 창을 들어 삼백 인을 죽이고 그 삼인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21 저는 둘째 삼인 중에 가장 존귀하여 저희의 두목이 되었으나 그러나 첫째 삼 인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22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효용한 일을 행한 자라 저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을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한 사자를 죽였으며

23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다섯 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베틀채 같으나 저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때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24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25 삼십 인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첫 삼 인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저를 세위 시위대

장관을 삼았더라

26 또 군중의 큰 용사는 요압의 아우 아사헬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27 하물 사람 삼훗과 불론 사람 헬레스와

28 드고아 사람 익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과

29 후사 사람 십브개와 아호아 사람 일래와

30 느도바 사람 마하래와 느도바 사람 바아나의 아들 헬렛과

31 배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배의 아들 이대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32 가아스 시냇가에 사는 후래와 아르바 사람 아비엘과

33 바하람 사람 아스마렛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34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과 하랄 사람 사개의 아들 요나단과

35 하랄 사람 사갈의 아들 아히암과 울의 아들 엘리발과

36 므게랏 사람 헤벨과 불론 사람 아히야와

37 갈렐 사람 헤스로와 에스배의 아들 나아래와

38 나단의 아우 요엘과 하그리의 아들 밍할과

39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병기 잡은 자 베훈 사람 나하래와

40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렘과

41 헛 사람 우리아와 알래의 아들 사밧과

42 르우벤 자손 시사의 아들 곧 르우벤 자손의 두목 아디나와 그 종자 삼십 인과

43 마아가의 아들 하난과 미덴 사람 요사밧과

44 아스드랏 사람 웃시아와 아로엘 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과

45 시므리의 아들 여디아엘과 그 아우 디스 사람 요하와

46 마하위 사람 엘리엘과 엘라암의 아들 여러배와 요사위야와 모압 사람 이드마와

47 엘리엘과 오벳과 므소바 사람 야아시엘이더라

1. **㉠** 본장의 내용은 결국 무엇을 나타내고자 한 것인가?

- ㉠** (1) 본장에는 사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다윗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정복에 관한 기사와 그의 용사들에 대한 기록들이 담겨져 있다.
- (2) 그런데 본장은 사무엘서의 기록과는 달리 다윗의 출신, 골리앗과의 싸움, 사울의 궁전에서 섬긴 일, 도망자로서 쫓기던 그의 생활, 헤브론에서의 통치, 이스보셋과의 전쟁 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 (3) 위의 사건들은 역대기 저자의 목적에 직접적인 관련도 없고 다른 자료들에서 이미 제시되었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생략되었다고 본다.
- (4) 즉 역대기 저자는 다윗을 통하여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두고 부가적인 사건들을 다루지 않은 채 그 골격만을 취급하고 있다.
- (5) 이처럼 다윗의 행적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서 성경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참조, 마1:1).

2. **㉠** 다윗은 몇 번이나 기름 부음을 받았는가? (1-3절)

- ㉠** (1) 다윗은 세 번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먼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삼상16:16).
- (2) 그리고 두번째로 헤브론에서 유다 장로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삼하2:4).
- (3)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삼하5:3).
- (4) 이처럼 다윗은 점진적으로 이스라엘 전역에 왕으로서의 자리를 굳혀 갔다.
- (5) 이것은 예루살렘을 중심하여 퍼져 나갔던 복음의 점진성을 예표하는 것이다(참조, 행1:8). 즉 복음은 제일 처음 예수 그리스도 주변의 사람들에게만 인정을 받았으나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3. **㉠** 다윗 즉위 당시 여부스 족속은 어디에 거주하고 있었는가? (4-8절)

- ㉠** (1) 여부스 족속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다(4절).
- (2) 이들은 가나안 원주민인 여부스의 후손들로서 이스라엘이 마땅히 정복해야 할 민족들 가운데 하나였다(참조, 신7:1-5).
- (3) 여부스족은 다윗의 실체를 모르고 조소하였으나(삼하5:6) 다윗의 누이 스루야의 아들(2:16) 요압이 이 성을 탈취하였다.

- (4) 이리하여 여부스족의 예루살렘 지배는 끝을 맺었고(삼하5:6,7) 다윗은 이곳을 수도로 정하여 자신의 이름을 붙여 다윗 성이라 하였다.
- (5) 이와 같이 하나님은 죄의 세력을 괴멸(壞滅)하시고 그 자리에 당신의 이름을 두시고 또한 당신의 통치를 실시함으로 당신의 나라를 건설해 가신다.
- (6) 그러므로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즉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 속에 실현되는 것이다.

4. **㉠ 다윗이 번영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9,10절)**

- ㉠** (1) 제일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9절).
- (2) 두번째로 그의 수하에 있었던 부하들의 충성에 의해 번영할 수 있었다(10절).
- (3) 이처럼 우리의 삶의 번영과 풍요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자의 번영은 진정한 번영이라 할 수 없다(참조, 잠 24:19,20).
- (4) 또한 다윗에게 있어서 부하들의 희생적인 협조가 없었다면 결코 그러한 유업을 달성할 수 없었다.
- (5)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와 단체 내에서도 지도자를 중심한 각 구성원의 희생적 봉사가 없다면 그 단체는 결코 번영할 수 없을 것이다.

5. **㉠ 다윗의 부하 중 엄청난 힘으로 한 번에 300명의 적군을 쓰러뜨린 장군은 누구인가? (11절)**

- ㉠** (1)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브암이었다. 그런데 삼하23:8에는 그의 이름이 '요셉밧세벳' 이라고 기록되었다. 이것은 그의 이름이라기 보다 '밧세벳'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 (2) 그리고 그의 또 다른 이름은 '아디노'이다.
- (3) 그는 힘이 무척 좋았던 사람인 것 같다. 삼하23:8에는 그가 '800 인을 쳐죽였더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800이란 수자는 여러 번에 걸쳐 죽인 자의 합계를 말한 것으로 본다.

6. **㉠ '세 용사'란 누구를 말하는가? (12절)**

- ㉠** (1)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인 아비새와 갓셀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또 한 명의 사람이었다(참조, 삼하23:13-23).
- (2) 이들은 전쟁터에서 다윗이 베들레헴 성문 곁의 우물물을 구할 때에 용감하게 그 물을 길어 왔다.
- (3) 그러나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그 물을 드렸다.
- (4) 이러한 세 용사의 행동은 지나친 모험이었다고 생각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사랑한 데서 비롯된 행동(삼하21:17)이었다.
- (5) 그러므로 이러한 충성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취한 행동이었다. 즉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참조, 마25:40).

7. **㉠ 다윗이 세 용사가 길어 온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마시지 않고 여호와께 드린 이유는 무엇인가? (15-19절)**

- ㉠** (1) 다윗은 세 용사가 생명을 걸고 길어 온 물을 그들의 피와 같이 간주하였기 때문이다. 피 곧 생명은 여호와께 드려야 하는 것이 관례였다(참조, 레17:11).
- (2) 다윗의 이러한 행동은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회개이기도 했다. 회개는 잘못을 깨닫는 즉시 행동을 돌이키는 태도가 뒤따라야 한다.
- (3) 또한 자신의 욕망에 대한 거부이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육적인 조건 뿐 아니라 영혼을 다스릴 줄 아는 자였다. 즉 그는 자신을 부정할 줄 아는 자였다(비교, 벰전2:11).
- (4) 그리고 그의 행동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을 나타낸다. 즉 그는 그 물을 자신이 마시기에는 너무 귀한 것이었기에 하나님을 향해 쏟아 부었다.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이라 할 수 있다.

- (5) 마지막으로 그의 행동은 부하들에 대한 사랑이었다. 흔히 지위 높은 자들은 자신의 이권을 위해 부하들의 피를 낭비하거나 부하들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8. **㉠** ‘둘째 삼 인’이란 누구를 말하는가? (20, 21절)

- ㉠** (1) 다윗의 용사들 중 제 2급에 속하는 자들이다.
 (2) 다윗의 첫째 삼 인은 11-14절(삼하 23:8-12)에 기록된 용사들이다.
 (3) 이처럼 다윗은 사람들의 재능을 바르게 평가하여 용사들의 등급을 나누었다.
 (4)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각자의 기질과 능력과 성품에 따라 당신의 일을 맡기신다.
 (5)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 맡겨 주신 일에 대해 감사하고 성실할 뿐이지 맡은 일의 대소를 가리며 불평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참조, 고전 4:2).

9. **㉠** ‘효용(驍勇)한 일’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22-25절)

- ㉠** (1) 이 말은 ‘훌륭한 일들’을 가리킨다(22절).
 (2) 본절에서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행한 ‘효용한 일’ 중 구덩이에 빠진 사자를 죽인 일과 키가 다섯 규빗(약 2.3m)이며 약 7.7kg의 창을 가진 장대한 애굽인을 죽인 일 등이 있다.
 (3) 이와 같은 행적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된 것(삼상 17:37)으로 물뱀들로 골리앗을 넘어뜨린 다윗의 업적과 유사하다(삼상 17:40, 49-51).
 (4) 우리가 상대해야 할 대적 마귀 역시 브나야가 상대했던 사자와 애굽인 이상의 힘을 가지고 우리의 약점을 향해 들진하고 있다(참조, 벰전 5:8).
 (5)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 마귀의 간계를 물리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세력들을 물리치신 그리스도 예수께 나아가는 것이 유일한 승리의 방법이다(참조, 요 16:33; 롬 8:37).

10. **㉠** 다윗이 거느린 30인 용사들 중에 율법이 거부한 자들은 누구인가? (26-47절)

- ㉠** (1) 암몬 사람 셀렉(39절)과 모압 사람 이드마였다(46절).
 (2) 율법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신 23:3) 되어 있다.
 (3) 이들이 이처럼 하나님께 버림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기 때문이다(참조, 수 24:9; 겔 25:2, 3).
 (4) 그러나 이들 중 의로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위해 충성을 다했으므로 그 율법을 그들에게는 적용시키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는 이스라엘 내의 의견에 의해 그들을 이스라엘 총회에 받아들인 것 같다.
 (5) 이스라엘의 이러한 조치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율법 적용과 인간을 위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원 뜻을 바로 이해한 데서 기인한 것이다.
 (6) 또한 이것은 다윗의 자손(예수)이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경배를 받으리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빌 2:11).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동일한 지위가 보장된다(참조, 롬 10:11, 12).

제 12 장 다윗의 군대

단락구분 1-7 시글락에 망명 중인 다윗을 따랐던 용사들 / 8-15 갓 사람 중에서 귀순한 용사들 / 16-18 베냐민과 유다 사람 중에서 귀순한 용사들 / 19-22 므낫세 사람 중에서 귀순한 용사들 / 23-40 헤브론을 중심으로 모여 든 각 지파의 용사들

1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인하여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돕는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2 저희는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몰매도 던지며 살도 발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3 그 두목은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니 기브아 사람 스마아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렛의 아들 여시엘과 벨렛과 또 브라가와 아나돗 사람 예후와

4 기브온 사람 곧 삼십 인 중에 용사요 삼십 인의 두목 된 이스마야며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데라 사람 요사밧과

5 엘루새와 여리못과 브아라와 스마라와 하룻사람 스바다와

6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잇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브압이며

7 그들 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다더라

8 갓 사람 중에서 거친 땅 견고한 곳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9 그 두목은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댜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10 네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11 여섯째는 잇대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12 여덟째는 요하난이요 아홉째는 엘사밧이요

13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 한 째는 막반내라

14 이 갓 자손이 군대장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일백 인을 관할하고 그 큰 자는 일천 인을 관할하더니

15 정월에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로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16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견고한 곳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17 다윗이 나가서 맞아 저희에게 일러 가로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와 연합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붙이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열조의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며

18 때에 성신이 삼십 인의 두목 아마새에게 감동하시니 가로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하리니 원컨대 평강하소서 당신도 평강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강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드디어 접대하여 세워 군대 장관을 삼았더라

19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 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저가 그 주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20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후와 실르대니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21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적당을 쳤으니 저희는 다 큰 용사요 군대 장관이 됴이었던라

22 그 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23 싸움을 예비한 군대 장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아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저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효가 이러하였더라

24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예비한 자가 육천 팔백 명이요

25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칠천 일백 명이요

26 레위 자손 중에서 사천 육백 명이요

27 아론의 집 족장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한 자가 삼천 칠백 명이요

28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 족속의 장관이 이십이 명이요

29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좇으나 그 중에서 나아온 자가 삼천 명이요
 30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본 족속의 유명한 큰 용사가 이만 팔백 명이요
 31 므낫세 반 지파 중에 녹명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을 삼으려 하는 자가 일만 팔천 명이요
 32 잇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이백 명이니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관할하는 자며
 33 스블론 중에서 모든 군기를 가지고 항오를 정제히 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오만 명이요
 34 납달리 중에서 장관 일천 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함께한 자가 삼만 칠천 명이요
 35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이만 팔천 육백 명이요

36 아셀 중에서 능히 진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사만 명이요
 37 요단 저편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모든 군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십 이만 명이었더라
 38 이 모든 군사가 항오를 정제히 하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으로 온 이스라엘 왕을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일심으로 다윗으로 왕을 삼고자 하여
 39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 형제가 이미 식물을 예비하였음이며
 40 또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잇사갈과 스블론과 납달리까지도 식물을 나귀와 약대와 노새와 소에 무수히 실어 왔으니 곧 과자와 무화과병과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 왔으니 이스라엘 가운데 희락이 있음이었더라

1. ㉠ 본장은 주로 무엇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가?

- ㉠ (1) 본장에는 다소 긴 두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 즉 사울이 죽기 이전에 다윗에게로 왔던 용사들의 명단 (1-22절)과 헤브론에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고 기름 부었던 용사들의 명단 (23-40절)이 기록되어 있다.
 (2)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 이같이 구체적으로 그 이름과 행적이 기록된 것은 이들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드는 데 지대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3)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 이러한 주위의 훌륭한 원조가 없었더라면 그는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기에는 커녕 자신의 생명마저 지탱할 수 없었을 것이다.
 (4)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 건설에 증추적인 역할을 할 다윗을 온전히 사용하시기 위해서 다윗 주변에 당신의 사람들을 두시고 그들을 통하여 다윗의 삶을 지배하셨다.
 (5) 하나님은 오늘날도 당신의 나라 건설을 위해 부름 받은 우리들을 다윗처럼 보호하시기 위해 우리 주변에 당신의 사람들을 많이 두고 계신다.
 (6) 우리가 만약 믿음의 눈으로 주위를 바라본다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참조, 롬8:28).

2. ㉠ 다윗이 시글락으로 망명했을 때 함께 동행하였던 용사들은 모두 몇 명인가? (1절)

- ㉠ (1) 다윗과 동행했던 자들은 600 명에 불과했다 (참조, 삼상 27:2-6).
 (2)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때가 온 줄 아시고 그에게 더 많은 사람들을 주어 그를 돕도록 하셨다.
 (3) 비록 다윗은 믿음이 약하여져 (삼상 27:2, 8) 생명을 보존하려고 이방 왕 앞에서까지 아부하는 속물 근성을 보였으나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시고, 용사들을 통하여 그에게 새로운 용기를 공급하셨다.
 (4)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자녀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다 (참조, 요 13:1).

3. ㉠ 다윗 주위에 사울의 동족인 베냐민 지파 사람들까지 모여 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2-7절)

- ㉠ (1) 이것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울의 폭정과 비신앙적인 행동이 극에 달했다는 것을 말해 준다.

- (2) 반면에 다윗은 비록 쫓기고 있는 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 다윗에게 귀의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모두가 전쟁에 유능한 자로서 다윗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2절).
- (4)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이와 같은 행동은 육체적인 혈통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자를 더 사랑하는 신앙적인 행동이었다.
- (5) 예수께서도 우리들에게 세상의 어떠한 인연보다도 당신 자신을 더욱 사랑할 것을 권면하셨다(참조, 마19:29).

4. **㉠** '기브온'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4절)

- ㉠** (1) 이곳은 예루살렘 북쪽 5km 지점에 위치한 곳으로서 아직도 성벽이 남아 있다. 현재의 이름은 '텔 엘 풀' (Tell el-Full)이다.
- (2) 또한 이곳은 옛적에 성소가 있던 곳이므로 '하나님의 기브아'라고도 했다(삼상11:4; 15:34; 사10:29).
- (3) 사사 시대에는 한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이곳을 지날 때 베냐민 사람들이 그 첩에게 강포한 음행으로 죽게 하여 온 이스라엘이 모여 베냐민 사람들을 전부 도륙하고 이 성을 불살랐던 적이 있었다(삿19, 20장).
- (4) 그리고 사울이 블레셋과 싸울 때에 그 아들 요나단으로 1,000명과 용사를 거느리고 진군하게 한 곳이기도 하다(삼상13:2).

5. **㉠** 갓 지파의 귀순자들이 다윗을 만났던 곳은 어디인가? (8-15절)

- ㉠** (1) 거친 땅 견고한 곳이었다(8절).
- (2) 이곳은 다윗이 사울의 추적에 쫓겨 피난처로 삼았던 광야(삼상23:14; 24:1) 또는 아들 람 굴을 가리킨다(11:15).
- (3) 다윗을 찾아왔던 갓 지파 사람들은 11명이었으나 그들은 싸움에 익숙하고 힘이 뛰어나 다윗에게 큰 힘이 되었다.
- (4) 이에 비하여 다윗을 돕기 위해 왔던 자들은 대부분 빳진 자와 환난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리고 노병들로서 어떤 일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보호받기를 원하는 자들이었다(삼상22:2).
- (5) 이것은 오늘날의 교회를 연상케 한다. 즉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모인 자들은 유능한 자도 있지만 또한 이웃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도 있다(참조, 고전1:26).
- (6)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택하여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역(구원 사역)에 동참케 하신다(고전1:27-31).

6. **㉠** 다윗에게 귀의한 갓 지파 사람들의 용모는 어떠하였는가? (8절)

- ㉠** (1) 그 얼굴은 사자 같고 그 걸음은 사슴같이 빨랐다.
- (2) 여기서 '사자 같다'는 말은 그들의 이미지가 강인하다는 뜻으로서(삼하1:23) 모세의 예언처럼(신33:20) 그들은 튼튼한 체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 (3) 그러므로 갓 지파의 군대는 행군할 때에도 용감하게 앞을 향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았으며 그들의 빠른 걸음을 이용하여 적들을 섬멸하였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재능과 소질들을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해 사용할 때에야 비로소 그 재능과 소질이 빛이 난다.
- (5) 만약 그렇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때 그 힘이 그를 망하게 할 것이다(참조, 삿16:18-22).

7. **㉠** 갓 지파 사람들이 원수들을 물리친 때는 언제인가? (15절)

- ㉠** (1) 그 일은 정월에 행하여졌다. 여기에서 '정월'은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니산 월', 즉

‘1월’을 말하며 태양력으로는 ‘3,4월’을 가리킨다.

- (2) 이때는 추수 때로서(수3:15) 헤르몬 산 등지의 수원(水源)에서 눈이 녹아 각 지류들에서 가끔 범람한다.
- (3) 한편 이렇게 범람하는 요단 강을 건너가서 원수들을 물리친 것 지파 사람들의 용맹은 대단하였고 이러한 용감한 행위는 다윗의 왕국 건설에 큰 보탬이 되었다.
- (4)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호에 모든 것을 맡기고 모험할 수 있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한 일군이 되기에 적합하다(참조, 딤후2:3,4).

8. **㉠** 다윗이 베냐민과 유다 자손들의 귀순에 의혹을 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16-18절)

- ㉠** (1) 그 당시 다윗은 모든 사람들을 거짓말장이(시 116:11)로 여길 만큼 많이 속임을 당하였기 때문이다.
- (2) 그러나 그는 의심에 머물지 않고 신앙인의 자세를 가다듬었다. 즉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현실을 하나님께 맡겼던 것이다.
- (3) 그가 의뢰했던 분은 ‘열조의 하나님’(참조, 출3:13; 대하20:6), 즉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며 무죄한 자를 보호하시고 범죄한 자를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었다.
- (4) 이와 같이 최악이 극에 달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비록 세상이 우리를 속이며 넘어뜨리지만 세상을 등지지 않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 (5)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할 때 그는 우리를 인도하시며 힘이 되어 주신다(참조, 요14:26).

9. **㉠** ‘성신(聖神)이 아마새에게 감동하셨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18절)

- ㉠** (1) 이 말은 성령께서 아마새에게 옷을 입히시듯 그의 전인격을 관장하셨다는 의미이다.
- (2) 성령은 아마새로 하여금 말을 하도록 하였는데 이것은 예언이 아닌 지혜와 결단이었다.
- (3) 성령에 감동된 아마새는 다윗에게 건강과 부유함을 말하지 않고 다윗과 선한 소망을 지닌 다윗의 모든 친구들에게 ‘평강’을 간구함으로 자신의 선의(善意)를 표현하였다.
- (4) 이 ‘평강’은 인간이 감정적으로 조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베푸신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느낀 자마다 유익이 된다.
- (5) 또한 이 ‘평강’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포하신 것이기도 하다(참조, 눅2:14).
- (6) 그러므로 이 ‘평강’을 믿는 자야말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참조, 갈5:22, 23).

10. **㉠** 다윗이 블레셋 지경(시글락)에 거할 때에 사울을 치러 올라가는 블레셋 군대에 합류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19-22절)

- ㉠** (1) 아기스가 사울을 치러 올라갈 때 다윗을 함께 데리고 갔으나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과 함께 참전하는 것을 요청하였기 때문이다(참조, 삼상 29:4).
- (2) 이것은 다윗의 사정을 깊이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간섭으로 인한 것이었다.
- (3) 다윗이 전장에서 돌아왔을 때 사울과 합하여 블레셋을 칠 마음이 없었던 므낫세의 몇몇 인사들은 다윗을 도와서 시글락을 약탈했던 아말렉 무리들을 섬멸하였다(참조, 삼상 30:1-20).
- (4)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깊이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녀들의 삶에 개입하여 당신의 뜻을 성취해 가신다(참조, 롬8:28).

11. **㉠** 역대기 저자는 흥왕하는 다윗의 군대를 어떻게 표현하였는가? (22절)

- ㉠** (1) 본절에는 다윗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고 기록되어 있다.
- (2) 이 말은 군인의 수가 많다는 의미보다는 그 군대가 정예의 병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의 군대와 같다는 뜻으로서 다른 인간들의 군대와는 달리 단결력과 복종심에

있어서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음을 가리킨다.

- (3) 이처럼 다윗의 주변에 날마다 사람들이 모였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힘과 지혜가 있었던 이유는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기 때문이다(참조, 잠 11:30;14:28;16:7).
- (4) 이와 같이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도 그에게 무한한 기쁨을 주신다.
- (5)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힘이 된다(참조, 느8:10).

12. **㉠**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23절)

- ㉠** (1) 사무엘이 예언했던 말, 즉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울을 버리시고 대신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겠다는 말을 가리킨다(삼상 13:14).
- (2)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와 달라서 하나님께서 특수하게 간섭하시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
- (3)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굳게 믿고 있던 다윗의 부하들은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투쟁하였다.
- (4) 이처럼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었을 때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모두 동원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다(참조, 마 22:37).
- (5)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도 몸소 그 뜻의 성취에 동참하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의 소유자, 즉 불신앙자의 태도이다(참조, 약 2:26).

13. **㉠** 다윗 주위에 모여 들었던 각 지파별 군인들의 수자를 도표화하라 (23-37).

지 파 구 분	군 사 수	장관 및 우두머리 수
유다 지파	6,800	
시므온 지파	7,100	
레위 지파	4,600	
아론의 집	3,700	
사독과 함께 한 자		22
베냐민 지파	3,000	
에브라임 지파	20,800	
므낫세 반 지파	18,000	
잇사갈 지파		200
스블론 지파	50,000	
납달리 지파	37,000	1,000
단 지파	28,600	
아셀 지파	40,000	
요단 건너편 두지파 반 (르우벤, 갓, 므낫세 반)	120,000	
합 계	339,600	1,222

14. **㉠** 다윗과 가까운 지파들이 오히려 먼 지파들보다 소수의 군인들을 다윗에게 보낸 이유는 무엇인가? (23-37절)

- ㉠** (1) 그것은 다윗과 가까이에 위치한 지파들이 다윗을 증오했거나 다윗이 추구하는 목적에 냉담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 (2) 다윗과 가까이 있던 지파들은 약간의 군사들만 보내는 신중책을 썼는데 그것은 나머지 사람들도 명령만 내리면 언제나 올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 (3) 그들은 먼 곳에서 온 지파들을 대접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었다(39절).
- (4)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의 삶의 한계와 직능을 정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목적을 실현해 가도록 하신다.
- (5) 그러므로 우리가 많은 일에 충성할 때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다.

15. **㉠** 다윗 주위에 몰려들었던 군사들의 마음은 어떠했는가? (38절)

- ㉠** (1) 그들은 '성심으로' 다윗에게 몰려들었다.
- (2) 여기서 '성심으로'란 말은 '흐트러지지 않은 순수한 마음'을 가리킨다.
- (3)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시대적 여론 아래 약 35만의 군대가 다윗에게 돌아와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셨다는 증거이다.
- (4) 오늘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될 때에 어떠한 대적도 물리칠 수 있을 뿐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참조, 요13:35).

16. **㉠** 모든 지파들이 음식을 가져와 잔치를 배설한 이유는 무엇인가? (38-40절)

- ㉠** (1) 그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회락이 있었기 때문이었다(40절; 전10:19).
- (2) 그 회락의 근거는 사악한 통치자 대신에 의로운 자(다윗)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부각되었다는 사실에 있다.
- (3) 이처럼 그리스도의 보좌가 인간 영혼 속에 자리잡고 그분의 통치가 실현될 때 그 영혼 가운데는 큰 기쁨이 있게 될 것이다.
- (4) 이러한 기쁨이 있는 자들은 다윗 무리들의 잔치처럼 2,3일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생애를 통하여 기쁨의 잔치가 계속될 것이다.
- (5)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그 영혼 속에 영원히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연구자료

구약 시대에 나타난 성령의 은사.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성신에 감동된 자' (18절), '여호와의 신' 또는 '하나님의 신'이 임한 자(출 35:31; 사 3:10)와 같은 말을 자주 접할 수 있다. 이는 성령께서 구약 시대에도 활동하시면서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시는 것을 일컫는 표현이다. 요셉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기에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다(창 41:1-39). 하나님께서는 브사렐(Bezalel)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자신의 신을 그에게 부여 주시어 성막 건축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출 31:1-5). 이러한 성령은 사사(士師)나 선지자들에게도 임하셨는데 웃니엘(Othniel)은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여 사사가 되었으며(삿 3:10) 삼손은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 사자를 마치 염소 새끼 찢는 것처럼 찢었다(삿 14:6). 그리고 엘리사나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은 성령을 힘입어 권능을 행하거나 예언을 하였다(왕하 2:12-15; 겔 11:24). 한편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았던 역대 이스라엘의 선왕(善王)들 역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었다(삼상 16:13).

제 13 장 다윗이 법궤를 기둥으로 옮기다

단락구분 1-8 다윗이 법궤를 기랏여아림에서 내오다 / 9-11 옷사가 부주의로 금사하다 / 12-14 법궤를 오벧에돔의 집에 보관하다

1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장수로 더불어 의논하고

2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선히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 있는 우리 형제와 또 저희와 함께 들어있는 성읍에 거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보내어 저희를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3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 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4 못 백성이 이 일을 선히 여기므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되 한지라

5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귀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랏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새

6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랏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시므로 그 이름으로 일컫는 궤라

7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담의

집에서 나오는데 옷사와 아히오의 수레를 몰며

8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주악하니라

9 기둥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옷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10 옷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음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라 치시매 옷사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11 여호와께서 옷사를 충돌하시므로 다윗이 분하여 그 곳을 베레스 옷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12 그 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13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 메어 들이지 못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벧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14 하나님의 궤가 오벧에돔의 집에서 그 권속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벧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1. ㉠ 본장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 (1) 본장에는 왕위에 오른 다윗이 최초의 일로 법궤를 옮긴 것과 법궤 운반 도중 일어났던 불상사에 관해 기록되어 있다.

(2) 본장의 사건은 이미 삼하 6장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특히 본장은 다윗이 법궤를 옮기기 전 얼마나 신중하게 이 일을 계획하고 결정했는가에 대하여 말해 주고 있다.

(3)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신도읍지인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기는 일이 급선무였다. 왜냐하면 법궤는 이스라엘 통치의 핵이었기 때문이다.

(4)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 아무리 훌륭한 지위와 조건들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삶 중심에 위치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외부적인 조건들은 무의미할 수밖에 없다.

(5) 왜냐하면 이러한 삶은 마치 일년생 화초와 같이 일시적으로는 화려할지 모르나 얼마 가지 않아 그 화려함은 사라지고 공허한 남기 때문이다.

2. ㉡ 다윗이 왕위에 오른 뒤 제일 먼저 행한 일은 무엇인가? (1:8절)

㉡ (1) 다윗은 왕이 된 후에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궤를 다윗 성(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였다.

- (2) 그가 법궤를 옮기려고 한 것은 그의 믿음이 사울과 다름을 나타내며 (3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신앙의 소유자임을 보여 준다.
- (3) 또한 그는 새로운 출발을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였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것임을 그는 알았던 것이다.
- (4)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선 순위를 바르게 정해야 하는데 예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도록 권면하셨다(참조, 마6:33).

3. **Q** 다윗이 법궤를 옮기기 전에 누구들과 논의하였는가? (1-4절)

- A** (1) 다윗은 군사 관계 지도자들(1절)과 일반 백성들(2절)에게 법궤 옮기는 일을 논의하였다.
- (2) 그는 왕의 자격으로 이 일을 명령할 수 있었으나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고 여러 사람과 상의하려 했던 것이다.
- (3) 이처럼 지혜로운 군주는 일을 독단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즉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며 그들의 지혜를 사용할 줄 아는 슬기로운 자이다.
- (4) 또한 백성과 그 대표자들의 협조를 얻을 수 있을 때야말로 나라는 가장 견고하게 된다.

4. **Q** '이스라엘은 땅에 남아 있는 우리 형제'란 누구를 말하는가? (2절)

- A** (1) 이스라엘 안팎의 어지러운 정국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땅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땅을 지키고 있었던 자들을 말한다.
- (2) 즉 블레셋과 암몬족의 침입과 사울 집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혼란에도 개의치 않고 자신들의 신앙을 사수했던 무리들을 말한다.
- (3)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등지고 이방 나라로 망명하는 것은 곧 여호와 신앙을 버리는 것으로 이해했다.
- (4) 이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위치를 사수하는 결의가 필요하다. 이것이 순교자적인 삶이다.
- (5) 정국(政局)이 불안하다고 해서 이민을 생각하고 삶이 풍요롭지 못하다고 해서 신앙을 포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태도이다. 그리스도는 죽음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다(참조, 롬8:35-39).

5. **Q** 다윗은 모든 백성들을 모아 놓고 어떠한 말을 하였는가? (3절)

- A** (1) 다윗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 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고 하였다.
- (2) 여기서 다윗은 사울의 치적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그에게 개인적인 비난을 하지는 않았다.
- (3) 그는 법궤를 잘못 다룬 원흉을 '우리'라고 일반화시켜 말함으로써 이것을 소홀히 한 죄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자기 자신에게로 돌렸다.
- (4) 이처럼 겸손하며 의로운 사람들은 민족과 단체가 범죄하였을 때 그들 자신의 잘못을 통탄하고 그들 스스로에게 수치를 돌린다(참조, 단9:3-6).

6. **Q** 다윗은 어디에 있는 백성들까지 모두 불러들였는가? (5절)

- A** (1) 다윗은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귀까지 있는 온 이스라엘 사람의 대표자들을 불러모았다.
- (2) 여기서 애굽의 시홀이란 이스라엘의 남방 경계선(왕상8:65)을 말하며 하맛 어귀는 이스라엘의 북방 경계선(왕하14:25)을 가리킨다.
- (3) 이것은 '단부터 브엘세바까지'란 관용 어귀와 같은 뜻이다(참조, 삼하3:10).
- (4) 이와 같이 세상 끝날에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부르실 때에 성도들이 어떠한 장소에 있

더라도 개의치 않으시고 모두를 불러내어 당신의 나라에 있게 하실 것이다.

7. **㉠** ‘그 이름으로 일컫는 제’란 무슨 뜻인가? (6절)
㉠ (1) 삼하6장의 ㉠4를 참조하라.
8. **㉠** 다윗은 법제를 어떠한 방법으로 운반하도록 하였는가? (7,8절)
㉠ (1) 삼하6장의 ㉠5를 참조하라.
9. **㉠** 법제를 운반하는 도중 소들이 갑자기 날뛰었던 곳은 어디인가? (9절)
㉠ (1) ‘기돈의 타작 마당’이었다.
 (2) 그런데 삼하6:6에는 ‘나곤의 타작 마당’으로 되어 있다.
 (3) 이러한 차이에 대해서 혹자는 ‘나곤’이란 단어가 ‘준비되었다’는 뜻으로 해석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 즉 미리 준비되어 있던 기돈의 타작 마당에 도착했을 때 법제를 진 소들이 날뛰게 되었다.
 (4)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에 있어서 모든 단계들을 예비하시며 성취해 나가신다.
10. **㉠** 법제를 운반하던 옷사가 급사(急死)한 이유는 무엇인가? (9-11절)
㉠ (1) 삼하6장의 ㉠7을 참조하라.
11. **㉠** 옷사의 일로 다윗이 밧하였던 ‘분’은 어떤 성격의 것인가? (11절)
㉠ (1) 다윗이 ‘분’을 내었다는 말에 사용된 단어는 7절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할 때 사용된 히브리 동사 <하라>와 동일하다.
 (2) 그러므로 다윗의 ‘분’은 스스로의 잘못에 대한 자책(自責)이나 법제를 붙든 옷사의 실수에 대한 감정의 고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정하게 옷사를 죽이신 그 일 때문에 표현한 분함이라고 할 수 있다.
 (3) 사실 다윗은 자기가 선한 동기와 목적 그리고 순수한 열정으로 법제 운반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옷사를 죽이시므로 자기의 계획에 차질이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4) 이처럼 다윗 역시도 하나의 인간으로서 순간적인 감정에 얽매어 하나님 앞에서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
 (5)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끝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그를 의(義)로운 길로 인도하셨다(참조, 시 23:3).
 (6) 이러한 사실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된다.
12. **㉠** 다윗은 옷사의 급사 사건으로 법제를 어디에 안치해 두었는가? (13절)
㉠ (1) 삼하6장의 ㉠8을 참조하라.
13. **㉠** 법제는 오벧에돔의 집에서 얼마 동안 머물렀는가? (14절)
㉠ (1) 법제는 오벧에돔의 집에서 3달 동안 머물러 있었다.
 (2)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오벧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
 (3) 이와 같이 복음도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들이 되지만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제 14 장 다윗의 명성과 블레셋 정벌

단락구분 1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호의를 표시하다 / 2 다윗의 행복 / 3-7 다윗의 아내들과 자녀들 / 8-12 블레셋의 내습과 다윗의 격퇴 / 13-17 두번째 블레셋 내습과 다윗의 승리

1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어 그 궁궐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2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로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진흥하게 하셨음이더라

3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취하여 또 자녀를 낳았으니

4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밧과 나단과 솔로몬과

5 입할과 엘리수아와 엘벨렛과

6 노가와 네벵과 야비아와

7 엘리사마와 브엘라다와 엘리벨렛이더라

8 다윗이 기쁨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방비하러 나갔으니

9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를 침범하였는지라

10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저희를 내 손

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저희를 네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11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저희를 치고 가로되 하나님이 물을 흡음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흡으셨다 함으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칭하니라

12 블레셋 사람이 그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하여 불에 사르니라

13 블레셋 사람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14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구 올라 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 뿔나무 수풀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 하되

15 뿔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하나님이 네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16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17 다윗의 명성이 열국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열국으로 저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1. ㉠ 본장의 개요를 간략히 설명하라.

- ㉠ (1) 본장은 이미 삼하 5 장에 기록된 사건들을 재언급하고 있다.
- (2) 즉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다윗의 번영과 새 도읍지인 예루살렘으로 옮겨 온 후 얻은 자녀들과 두 번씩이나 블레셋을 무찔렀던 사건들이 나열되어 있다.
- (3) 그러나 삼하 5 장의 사건과 본장의 사건은 그 배열상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하면 두 곳의 사건은 각각 법칙을 옮겨 오기 전후에 기록되어 있기에 시간적으로 모순이 생긴다.
- (4) 사무엘서 (B. C. 1000-950) 보다 상당히 후기에 기록된 본서 (B. C. 450 년경)의 기사는 이러한 위치 변경을 통하여 독자들에게 신앙적인 교훈을 주려고 했던 것 같다.
- (5) 그 교훈이란 새 도읍지로 옮긴 다윗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계를 옮겨 오는 일을 수행하여 하나님 제일주의의 모범을 보였다는 것이다.

2. ㉠ 다윗이 자기 왕궁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인가? (1절)

- ㉠ (1)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두로 왕 히람이 건축 자재와 기술자를 보내 주었기 때문이다.
- (2) 사실 다윗처럼 스스로 풍족한 자는 없었으나 그에게도 이웃이 필요했고 또 그들의 도움을 정중히 받아들이는 겸손이 필요했다.
- (3)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2 절) 날마다 번창하였으나 두로라는 나라는 이에 미치지 못한 나라였다.

- (4) 그러나 다윗은 이런 나라의 도움으로 자기가 거처할 왕궁을 건축할 수 있었다.
 (5)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보잘것없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가장 절실한 필요를 채워 주는 경우가 있다.
 (6)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을 외모로 취하지 말고 (약2:1)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신 사람들로 알아 그들과의 뜨거운 형제애를 나누어야 할 것이다 (참조, 롬8:28; 12:10).

3. **㉠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2절)**

- ㉠** (1)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여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백성을 인도하고 보호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에서 존귀와 부를 얻는 것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백성과 교회를 풍요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달아야 한다.
 (3) 즉 우리는 다른 사람의 복의 근원 (복의 전달자) 이 되기 위해서 축복을 받는 것이다 (참조, 창12:2).
 (4)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만을 위해 살도록 태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봉사와 희생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참조, 롬15:2; 고전10:24).

4. **㉠ 다윗은 왕궁이 건축되고 나라가 안정되자 어떠한 일을 하였는가? (3-7절)**

- ㉠** (1) 다윗은 나라가 안정되었을 때 또다시 아내를 취하고 많은 자녀들을 낳았다.
 (2) 이처럼 다윗이 많은 아내를 둔 사실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었다 (참조, 신17:17; 말2:15).
 (3) 사람들은 흔히 성공하게 되면 방심하여 육체의 일에 집념하기 쉽다.
 (4) 그러므로 우리들은 평안하고 부유할 때 더욱 죄에 몰들기 쉽다는 사실을 깨달아 날마다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딤후4:7, 8).

5. **㉠ 본장에 기록된 다윗의 아들들이 삼하5장 (13-16절) 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3-7절)**

- ㉠** (1) 본장에 기록된 다윗의 아들들은 13명인데 삼하5장에는 11명의 아들들만 기록되어 있다 (삼하5:13-16).
 (2) 본장에서 사무엘서에서 빠진 두 아들, 즉 '노가' 와 '엘벨렛' 은 아마도 일찍 죽었기 때문에 아들 명단에서 제외된 듯하다.
 (3) 그리고 '엘벨렛' 은 '엘리벨렛' 과 동일한 이름인데 이 이름이 두 번 언급된 이유는 그 이름을 가진 자가 일찍 죽을 경우 그 후에 태어난 형제에게 동일한 이름을 지어 주었기 때문인 것 같다.

6. **㉠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범해 온 이유는 무엇인가? (8-12절)**

- ㉠** (1) 삼하5장의 **㉠**19를 참조하라.

7. **㉠ 다윗은 블레셋을 물리친 후 어떠한 고백을 하였는가? (11절)**

- ㉠** (1) 다윗은 '하나님이 물을 흠음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흠으셨다' 라고 고백하였다.
 (2) 이와 같은 고백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것이 자신과 그 휘하의 용사들이 홀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밝혀 준다.
 (3) 이 같은 다윗의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명령을 준행하고 당신의 힘을 의지하여 우리 영혼의 적 (사단) 을 담대하게 대항하도록 격려해 준다.
 (4) 그러므로 우리들은 승리의 고백 (간증) 을 통하여 우리의 형제들을 권면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우는 일에 더욱 매진하도록 하자.

8. **㉠ 블레셋의 재침 (再侵) 때에 다윗에게 들려 주신 하나님의 작전 계획은 어떤 것이었는가? (13-15절)**

Ⓐ (1) 삼하5 장의 ㉑ 26을 참조하라.

9. ㉒ 다윗이 블레셋을 2차례나 물리친 것은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하였는가? (17절)

Ⓐ (1) 다윗의 명성(名聲)이 주변 국가들에 전파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의 두려운 대상이 되었다.

(2) 이처럼 다윗과 그 나라가 무시를 당하지 않을만큼 강대해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다.

(3) 하나님은 당신에게 속한 나라와 백성들이 세상 나라에 대해 궁극적인 승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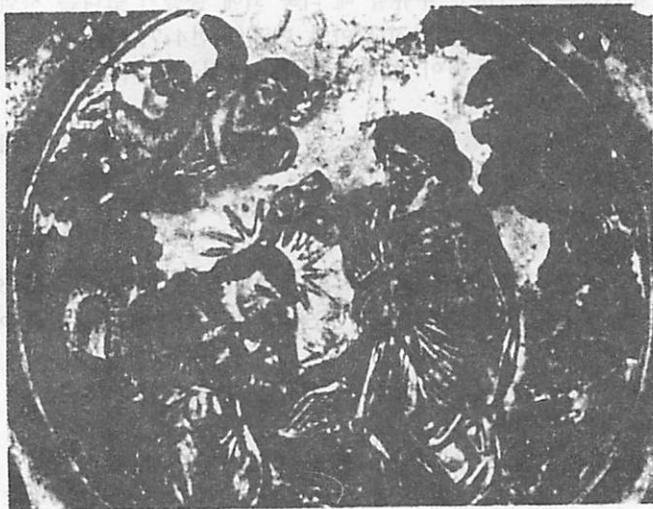
(4)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러한 승리의 확신을 가지기만 한다면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을 넘겨 이기고 남을 것이다(참조, 롬8:18).

10. ㉓ 하나님은 당신의 혼자 힘으로 블레셋을 물리쳤는가? (8-17절)

Ⓐ (1) 삼하5 장의 ㉑ 29를 참조하라.

화보자료

기름 부음을 받는 다윗. 아래는 프랑스 피니스테르 지방의 생 테 고네크 교회의 부조(浮彫)로서 18세기 작품이다.



본장에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8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잡으러 온 기사가 나온다. 기름을 붓는 의식은 선지자가 집행하는데 하나님의 인정과 능력이 임한다는 상징이다. 따라서 블레셋이 다윗을 잡으러 온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다.

제 15 장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법궤

단락구분 1-4 다윗이 왕궁과 법궤 처소를 예비하다 / 5-15 법궤를 운반할 레위인들을 뽑다 / 16-24 법궤를 운반할 행렬의 순서 / 25-28 다윗과 백성들의 큰 기쁨 / 29 미갈이 다윗의 태도를 업신여기다

1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궐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위하여 장막을 치고

2 가로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뭘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를 택하시라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영원히 저를 섬기게 하셨음 이니라 하고

3 이스라엘 은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와 궤를 그 예비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4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5 그핫 자손 중에 족장 우리엘과 그 형제 일백 이십 인이요

6 므라리 자손 중에 족장 아사야와 그 형제 이백 이십 인이요

7 게르솜 자손 중에 족장 요엘과 그 형제 일백 삼십 인이요

8 엘리사반 자손 중에 족장 스마야와 그 형제 이백 인이요

9 헤브론 자손 중에 족장 엘리엘과 그 형제 팔십 인이요

10 웃시엘 자손 중에 족장 암미나답과 그 형제 일백 십 이 인이라

11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12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족장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케 하고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궤를 메어 올리라

13 전에는 너희가 메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14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케 하고

15 모세가 여호와와 말씀에 따라 명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로 하나님의 궤를 궤어 어깨에 메니라

16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하여 그 형

제 노래하는 자를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제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며

17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그 동종 므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18 그 다음으로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마아세야와 맛디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므네야와 문지기 오벰에돔과 여이엘을 세우니

19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늦제금을 크게 치는 자요

20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아세야와 브나야는 비파를 타서 여청에 맞추는 자요

21 맛디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므네야와 오벰에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야는 수금을 타서 여덟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22 레위 사람의 족장 그나나는 노래에 익숙하므로 노래를 주장하여 사람에게 가르치는 자요

23 베레야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24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밧과 느다넬과 아미새와 스가랴와 브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벰에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더라

25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와 언약궤를 즐기며 메고 오벰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26 하나님이 여호와와 언약궤를 멘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일곱과 수양 일곱으로 제사를 드렸더라

27 다윗과 궤를 멘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 두목 그나나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겹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베 에봇을 입었고

28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각과 나팔을 불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와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29 여호와와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어다보다가 다윗 왕의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심중에 업신여겼더라

1. **㉠** 본장은 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 ㉠** (1) 본장은 삼하6장과 병행하는 기사이다. 그러나 사무엘서에서는 단지 법제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장면들만을 간략하게 서술하였다.
- (2) 반면에 본장은 법제 이동에 대하여 세밀하게 그리고 이 엄숙한 행동의 종교적인 면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법제 운반을 위한 준비와 레위인들의 직능별 배치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 (3) 다윗은 그가 처음으로 법제를 예루살렘으로 옮겨 오려 했을 때 범한 실수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명시해 놓으신 규례대로 법제를 옮기려 했다.
- (4) 이와 같은 점이 다윗을 위대하게 만들었다. 즉 다윗은 우리와 같은 범주의 사람으로 실수와 허물이 많았으나 그는 범죄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자신의 잘못된 점들을 시정해 나갔던 것이다.

2. **㉠**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예비했던 처소는 어디인가? (1절)

- ㉠** (1)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한 지점이었다. 다윗은 그곳에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쳤다(삼하6:16, 17).
- (2) 사실 이곳은 이미 모세 시대에 계시되었던 지점이다(참조, 출25:40).
- (3) 하나님의 궤가 보관될 이곳은 결국 하나님의 거처를 상징하며(히8:5)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成肉身)을 예표한다(요1:14).
- (4)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이처럼 하나님의 궤 또는 하나님 자신이 인류 가운데 거하게 된 사건보다 더 놀라운 것은 없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사건은 우리의 구원과 영생에 긴밀한 연관이 있음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 (5) 이와 같이 다윗이 하나님의 법제를 모시기 위해 자신의 성 안에 장막을 쳤듯이 우리들도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모실 수 있도록 말씀의 장막을 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3. **㉠** 다윗은 법제 메는 일을 누구에게 맡겼는가? (2절)

- ㉠** (1) 레위 사람 중 그핫 자손에게 그 일을 맡겼다.
- (2) 다윗은 처음의 실수(13:7)를 깨닫고 민4장에 기록된 대로 이제 법제 운반에 대한 레위인들의 임무를 공포하였다(민7:9).
- (3) 다윗은 법제 운반에 대한 규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으나 순간적인 실수로 그 규례를 잊어버렸던 것이다.
- (4)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 해서 항상 그것을 명심하여 필요한 때에 잘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5) 그러므로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화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을 망각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4. **㉠** 다윗은 법제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위하여 누구를 소집하였는가? (3-15절)

- ㉠** (1) 다윗은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였다(3절).
- (2) 여기서 '이스라엘 온 무리'란 각 지파의 우두머리격인 장로들, 방백들, 족장들을 가리킨다(참조, 삼하6:15).
- (3) 그리고 '아론과 레위 사람'을 모은 것은 법제 운반에 있어서 율법대로 순종하고자 한 것이다.
- (4) 여하튼 법제 운반은 단순히 다윗 정권에 이로운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에 있어서 가장 큰 경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그 일에 동참해야만 했다.
- (5)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 생활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공동체적 의식이 파괴될 때 사단은 기회를 틈타 교회를 뒤흔든다.

5. **㉠** 다윗은 제사장들과 족장들에게 무엇을 분부하였는가? (11-13절)

- ㉠** (1) 다윗은 그들에게 자신들과 형제들의 몸을 성결케 하고 미리 준비해 둔 곳으로 법궤를 옮기라고 명하였다(12절).
- (2) 여기서 '몸을 성결케 한다'는 말은 모든 불결한 것을 제거하기 위해 물로 몸을 씻으며, 부정을 피하고(레11:44), 여인과 동침을 금하고(출19:14,15), 자신이 입고 있던 옷마저 갈아입든지 세탁해서 입는 행위를 가리킨다(출19:10).
- (3) 이러한 외적인 결례는 결국 내면의 청결을 대변해 주는 것으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참조, 사58:3-7).
- (4) 이러한 형식적 정결 작업은 신약 시대에 이르러 신앙적 양심과 영혼의 순수로 대치되었다(참조, 마6:1).
- (5) 만약 우리가 내면적인 순결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없을 것이며 나아가서는 그분과의 교제도 단절되고 말 것이다(참조, 마5:8).

6. **㉠**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衝突)하셨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13절)

- ㉠** (1)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진노를 발하셨다는 의미이다. 즉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어 그들을 대신해서 옷사를 죽이셨다는 말이다(참조, 삼하6:8;12:10).
- (2)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충돌하신 이유는 그들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 접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3)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목적에 우리를 복종시키지 않는 것이 곧 죄이다.
- (4) 이러한 죄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충돌하신다.

7. **㉠** 다윗은 레위 지파의 어른들에게 무엇을 명하였는가? (16절)

- ㉠** (1) 다윗은 모든 형제 중 노래하는 자를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제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고 명하였다.
- (2) 한편 이러한 행진은 장차 성가대가 형성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 (3) 또한 다윗이 이처럼 입술과 악기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 것은 이스라엘 중심지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모셔 오기 때문이다.
- (4) 마찬가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도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중심에 거하시기 때문이다.

8. **㉠** 법궤를 중심하여 하나님께 봉사하던 자들은 어느 지파에 속한 자들인가? (16-24절)

- ㉠** (1) 그들은 모두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다.
- (2) 그들은 법궤를 중심하여 봉사할 뿐만 아니라 법궤에 다른 사람들의 접근을 막는 파수군 역할도 감당하였다(참조, 민1:47-54).
- (3) 한편 그 당시 레위인들에게만 제한되어 있던 성전 봉사의 사명은 오늘날 '왕 같은 제사장'으로(벧전2:9) 선택된 모든 성도들에게 확대되었다.
- (4) 그러므로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바 은사에 따라 교회라는 공동체와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며 또한 진리의 변질을 막는 파수군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9. **㉠** 다윗이 명한 찬양대는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었는가? (16-24절)

- ㉠** (1) 먼저 헤만과 아삽과 예단은 늦제금으로 소리를 내도록 했고(19절) 어떤 자들은 비파를 타 높은 음에 맞추도록 했으며(20절) 또 어떤 자들은 수금을 타서 가장 낮은 여덟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도록 했다(21절).
- (2) 또한 탁월한 음악 솜씨를 가진 자를 택하여(22절) 음악을 지도하게 했으며 더우기 궤 앞에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게 하였다(24절).
- (3) 여기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것은 궤를 옮길 때나(민10:8) 엄숙한 잔치 석상에서의(시81:3) 통례적인 일이었다.

(4) 이와 같이 각기 다른 기능들이 모여 한 화음을 발하듯이 모든 성도들도 각기 처한 환경에서 조화롭게 협조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한다.

10. ㉠ ‘여창’ (女唱)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20절)

- ㉠ (1) ‘여창’이란 히브리어로 <알라뭇>으로서 이것은 음악 용어로 ‘소프라노’를 말한다(참조, 시46편).
- (2)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비록 다윗이 명한 성가 대원 중에는 여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앞으로 여성 대원도 포함시킬 것이라는 암시적인 용어이다.
- (3) 하나님은 성(性)의 구별 없이 모든 입술을 통하여 찬양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참조, 출15:20; 시150:6; 빌2:11).

11. ㉠ ‘여덟째 음’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21절)

- ㉠ (1) ‘여덟째 음’이란 여덟 줄로 된 현악기에서 가장 낮은 음을 말한다(참조, 시6편).
- (2) 즉 오늘날로 말하면 남성의 ‘베이스’음을 말한다.
- (3) 이 음은 주로 침울하거나 비탄과 애조 섞인 내용의 노래를 부를 때 사용하였다(참조, 시6, 12편).

12. ㉠ 다윗이 임명한 성가 대원 명단 안에 성가대와는 별개의 직능이 포함되어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18, 23, 24절)

- ㉠ (1) 하나님의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문지기였다.
- (2) 사실 문지기라는 직책은 남자 뿐만 아니라 가끔 여자들도 수행하였다(참조, 요18:16, 17). 이것은 상대적으로 비천한 임무임을 밝혀 주는 것이다.
- (3) 그러나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집이라면 그렇게 천한 직책이더라도 기쁘게 감당할 것이라고 하였다(시84:10).
- (4) 이와 같이 우리의 생활에서도 악과 더불어 누리는 풍요보다 하나님과 함께 당하는 고난을 더욱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
- (5) 이런 고난이야말로 그 자체가 은혜이며 또한 소망이 있는 것이다(참조, 롬5:4).

13. ㉠ 이스라엘은 무리가 수송아지 일곱과 수양 일곱으로 제사를 드리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26절)

- ㉠ (1) 하나님께서 여호와와 궤를 멘 레위 사람들을 도와 무사히 옮길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 (2) 특별히 우리는 모든 믿음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행해야 한다(참조, 행26:22). 신성한 의무를 행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참조, 빌4:13).

14. ㉠ 법제를 운반했던 무리들은 어떠한 복장을 착용하였는가? (27절)

- ㉠ (1) 다윗과 궤를 메기 위해 동원된 모든 무리들은 세마포 겹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그 위에 베 에봇을 하나 더 입었다.
- (2) 그들이 입었던 세마포는 흰색으로서 소년 사무엘과 성전의 노래하는 자들처럼 주로 종교 의식에서 제복으로 사용되었으며(참조, 삼상2:18; 대하5:12). 그리고 존귀한 신분을 나타내는 데도 사용되었다(참조, 삼하6:14).
- (3) 이 세마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는 구속받은 무리들과 천사들이 착용하는 의의 예복을 상징하기도 한다(참조, 겔9:2; 계19:14).
- (4) 그리고 다윗이 입었던 베 에봇은 제단 앞에서 직무를 행할 때 입었던 옷으로 엉덩이가 지 내려오며 소매 없는 제사용 겹옷이었다(참조, 삼상2:18).
- (5) 이와 같이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맞아들임에 있어서 순결한 예복을 입고 그 일을 수행했듯이 오늘날의 성도들도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갖추게 된 의(義)의 옷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참조, 마22:11-14; 롬13:14).

15. ㉠ 법궤를 운반할 때 동행하였던 성가 대원과 연주자들의 모습은 어떠하였는가?(28절)
- ㉡ (1) 노래 부르는 자들은 '크게 부르며' 연주하는 자들은 악기를 '힘있게' 연주하였다.
 (2) 이와 같이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온 힘과 정성을 다하였다.
 (3) 즉 이들이 '크게' 그리고 '힘있게' 연주하였다는 것은 단지 큰 소음을 일으켰다는 것이 아니라 정교하고 아름다운 연주를 위해 온 신경을 쏟았다는 뜻이다(참조, 시33:3).
 (4) 그러므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찬양할 때 전심 전력하여야 한다.
16. ㉠ 사울의 딸 미갈이 무엇 때문에 다윗을 업신여겼는가?(29절)
- ㉡ (1) 미갈은 다윗이 법궤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춤추고 뛰노는 것을 보고 업신여겼다.
 (2) 미갈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겸손해진 다윗의 열정을 모르고 한 어리석음이었다.
 (3) 더우기 그녀는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4) 성도에게 있어 하나님을 삶 속에 모시는 것 이상 더 기쁜 일은 없을 것이다(참조, 16:10).

연구자료

다윗 성(City of David).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된 다윗이 여부스족으로부터 빼앗은 '시온 산성'에 붙인 명칭이 바로 이 '다윗 성'이다(11:5; 삼하 5:6-9). 이 성은 본래 이스라엘 족장 시대 때부터 있었는데(창 14:18) 동쪽의 기드론(Kidron) 시내와 서쪽의 두로베온(Tyropoeon) 계곡의 능선, 그리고 북쪽의 힌놈(Hinnom) 골짜기에까지 닿아 있는 큰 성읍이었다. 훗날 다윗은 이곳에 왕궁(1절)을 건축하였으며 솔로몬은 밀로(the Millo)를 재건하였는데 밀로는 '방축'(防禦)이자 거대한 보루(堡壘)로서 옛부터 있던 가나안의 능선을 보강한 것이다(왕상 9:15). 이처럼 왕궁을 건축한 다윗은 또한 이곳에 장막을 치고 레위인들을 오벵에돔(Obed-Edom)의 집에 보내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와 장막 안에 두었다(1-25절). 여호와의 언약궤는 B. C. 959년까지 이곳에 안치(安置)되었으나 솔로몬이 모리아 산 북쪽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후에 궤를 그곳으로 옮겨갔다(왕상 8:1; 대하 5:2). 한편 성경에 의하면 다윗 성에는 장지(葬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다윗(왕상 2:10) 및 솔로몬(왕상 11:43)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유다 왕들(대하 12:16; 16:14; 24:25)과 제사장 여호야다(Jehoiada) 같은 사람들(대하 24:15, 16)이 이곳에 묻혔다. 우리는 오늘날에도 이 같은 자취를 볼 수 있는데 다윗 성 남단부에 일부 남아 있는 반원통 모양의 지하 납골당이 바로 그것이다. B. C. 702년경 앗수르의 침략이 있기 전 히스기야 왕은 다윗 성을 중건하고 실로암 못을 파기도 하였으나(대하 32장) 결국 이 성은 B. C. 586년 바벨론에 의해 파괴되고 말았다.

제 16 장 다윗과 백성들의 감사 제사

단락구분 1-3 다윗이 헌생(獻牲)하고 백성을 축복하다 / 4-6 하나님 앞에서 항상 섬길 사람들 / 7-36 다윗의 감사 노래 / 37-43 레위인들의 제사를 중심한 직무

1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라

2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3 또 이스라엘 무리의 무른 남녀하고 매명에 딱 한 덩이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병 하나씩 나누어 주었더라

4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와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5 그 두목은 아삽이요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맞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벨에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제금을 힘있게 치고

6 제사장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7 그 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 위선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8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이르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9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10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라도

11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12-13 그 중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14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15 너희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16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17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18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19 때에 너희 인수가 적어서 매우 영성하며 그 땅에 깨이 되어

20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유리하였도다

21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연고로 열왕을 꾸짖어

22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23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24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25 여호와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임이여

26 만방의 모든 신은 헛 것이요 여호와께서 하늘을 지으셨음이라

27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줄거움이 그 처소에 있도다

28 만방의 족속들이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29 여호와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30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하는도다

31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 하며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라도

32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발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라도

33 그리 할 때에 삼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려 오실 것이므로

34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35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며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 내시고 모으시사 우리로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할지어다

36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 지라도

하대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37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여호와와 언약궤 앞에 머물러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38 오벰에돔과 그 형제 욱시 팔 인과 여두둔의 아들 오벰에돔과 호사로 문지기를 삼았고

39 제사장 사독과 그 형제 제사장들로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와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40 항상 조석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와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41 또 저희와 함께 헤만과 여두둔과 그 남아 택함을 받고 녹명된 자를 세워 여호와와 자비하심이 영원함을 인하여 감사하게 하였고

42 또 저희와 함께 헤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제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로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43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1. ㉠ 본장의 중요한 내용을 말하라.

㉠ (1) 본장에는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에 안치(安置)되었고 또 이로 인해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에 공적인 예배가 그 기틀을 잡게 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2) 특히 본장에는 다윗의 감사 노래가 나와 있는데 시105:1-15은 8-22절의 반복이고 시96:1-3은 23-33절의 반복이며 시106:1, 47, 48은 34-36절의 반복이다.

(3) 물론 위에 언급된 시편들은 익명(匿名)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이러한 비교를 통하여 그 시편들이 다윗의 노래임을 알 수 있다.

(4) 하나님의 궤가 다윗이 예비해 놓은 장막으로 무사히 옮겨질 수 있었던 그날은 영광스러운 날이었다. 그날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제도가 확립되며 모든 입술과 다윗에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나왔다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5)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 오셨을 때 우리는 의복을 새롭게 하고(창35:1-5) 하나님을 높이 찬양해야 할 것이다.

2. ㉠ 다윗은 법궤를 준비한 장막에 안치한 후 제일 먼저 무엇을 하였는가? (1절)

㉠ (1) 다윗은 법궤를 안치한 후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2) 여기서 ‘번제’는 하나님에게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이며, ‘화목제’는 하나님과 정상적인 교제를 위하여 드리는 평화의 제사이다.

(3) 그런데 이 두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다(참조, 롬5:10, 11).

(4) 더 자세한 내용은 삼하6장의 ㉠15를 참조하라.

3. ㉠ 다윗은 제사가 끝난 뒤 백성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었는가? (2, 3절)

㉠ (1) 다윗은 모든 남녀에게 ‘떡 한 덩이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병 하나씩’ 나누어 주었다.

(2) 자세한 내용은 삼하6장의 ㉠16, 17을 참조하라.

4. ㉠ 다윗은 법궤를 장막으로 옮긴 후 레위 사람을 세워 어떤 일을 맡겼는가? (4-6절)

㉠ (1) 다윗은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와 궤 앞에서 ‘섬기며’ 하나님을 ‘칭송(稱頌)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다(4절).

(2) 이 같은 다윗의 처사는 온 국민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기쁨의 한 표현이었다.

(3) 이와 같이 다윗이 새롭게 마련했던 레위인의 직책들은 거의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기리며 또한 감사와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었다.

(4) 우리가 오늘날 행하는 예배 의식도 레위인의 직책처럼 하나님의 뜻을 기리고 감사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들로 충만해야 한다.

(5) 그러나 이러한 예배의 모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교회 내에서는 사람의 주장과 인위적인 의식들로 가득 차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5. ㉠ 제사장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어떤 직분을 맡았는가? (6절)

㉠ (1) 이들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직분을 맡았다.

- (2) 여기서 '항상' 이란 말은 계속적인 의미보다는 고정적이며 규칙적으로 그 일을 담당했음을 의미한다.
- (3)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예배도 항상성을 띠고 고정적이며 규칙적으로 드러져야 할 것이다.

6. **㉠** 다윗은 성가 대원을 임명한 후에 무엇부터 먼저 하도록 했는가? (7절)

- ㉠** (1) 다윗은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 위선(爲先) 여호와께 감사를 드렸다.
- (2) 여기에서 '위선'이란 '우선', '맨 처음으로'라는 뜻으로 8절 이하에 나오는 찬양의 이유를 밝혀 주고 있다.
- (3) 즉 다윗은 법궤가 무사히 다윗 성으로 옮겨져 안치된 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의 선하심과 이스라엘과 맺으신 영원한 언약을 노래하였다.
- (4) 이처럼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의 모범을 보였는데 이와 같은 태도가 성경에 등장되는 모든 위대한 신앙 선배들의 한결같은 신앙 자세의 특징이다.
- (5)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아침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잊지 말자. 그리고 어떤 일 앞에서도 먼저 감사하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도록 하자.
- (6) 하나님께서는 찬양하는 입술에 또 다른 찬양의 제목을 주시며 감사하는 마음에 더 나은 감사의 조건을 허락하신다.

7. **㉠** '그 행사'란 무엇을 말하는가? (8절)

- ㉠** (1) '그 행사'란 말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들을 가리킨다.
- (2) 즉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사역하셨던 하나님의 열심으로서 돌이켜 보면 모두가 놀라운 일들이었다.
- (3) 그리고 '그 행사'를 만민에게 알리라고 한 것은 온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 (4) 이와 같이 우리가 '찬양'하는 일은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 그 찬양이 모든 어두운 심령들을 깨우는 역할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5)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이다. 찬양하는 곳에는 놀라운 일이 생긴다(참조, 행16:25, 26).

8. **㉠**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10, 11절)

- ㉠** (1)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워진다(10절).
- (2) 여기서 '구한다'는 말은 연구한다는 뜻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옛 은혜를 찬양하며 놀라우신 하나님을 날마다 찾으며 은혜를 사모하라고 하였다.
- (3) 참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며 그 뜻의 참 의미를 깨닫는 자는 복있는 자이다(시1:2).
- (4)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다(참조, 요14:15-17, 26).

9. **㉠**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할 '언약'이란 무엇인가? (12-18절)

- ㉠** (1)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맹세하신 언약을 말한다(창12:1-3).
- (2)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으로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전달할 의무를 맡겼으며 천국을 상징하는 쾰과 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다.
- (3) 하나님은 그 언약을 영원토록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은 변개치 않는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여호와의 율례와 계명을 좇아 살아야 한다.
- (4)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복의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며 또한 약속한 나라를 상속받은 자로서 그 나라의 법도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한다(마5:3-7:27).

10. **㉠** 시인은 아브라함의 이방 생활을 어떻게 묘사하였는가? (19-22 절)

- ㉠** (1) 인구(人數)가 적어서 매우 영성(零星)하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유리하였다고 묘사하였다 (19,20절).
- (2) 이것은 애굽과 그랄에서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나그네로 지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창12:11-20;20:1-18).
- (3) 사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은 아브라함처럼 나그네와 행인으로서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다(참조, 벧전2:11).
- (4)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주 연약한 존재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19절) 하나님께서 그들과 더불어 계시며 그들의 힘이 되어 주셨다 (21, 22절).
- (5) 그러므로 우리의 안전과 승리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알 수 있다.

11. **㉠**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의 처소를 어디까지로 규정하였는가? (23-36절)

- ㉠** (1)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무리들이 온 세계에 산재해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즉 그 경계를 규정할 수 없는 무한대로 그 처소를 규정하였다.
- (2) 예를 들면 ‘온 땅’ (23절), ‘열방’ (24절), ‘만민’ (24절), ‘만방의 족속들’ (28절), ‘하늘’ (31절), ‘땅’ (31절),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 (32절), ‘삼림의 나무들’ (33절) 등이다.
- (3) 이러한 경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경계에만 제한되어 활동하시는 분이 아닌 온 우주를 통괄하시는 분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 (4) 더우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된 이방 나라의 복음화를 예표하는 표현이기도 하다.
- (5)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초월적으로 활동하신다.

12. **㉠** 성도들이 부르는 찬송의 동기는 무엇인가? (23-36절)

- ㉠** (1) 성도들이 부르는 찬송의 동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데 있다.
- (2) 즉 다윗이 노래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데 근거한다.
- (3)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은 그 입술에 찬송이 있다는 사실이다.
- (4) 그러므로 교회는 출석하지만 그 생활에서 찬송이 흘러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비정상적인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해 준다고 할 수 있다.

13. **㉠** 다윗의 노래는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맺고 있는가? (8-36절)

- ㉠** (1) 다윗의 노래는 ‘여호와께 감사하며’(찬양하며)로 시작하여 ‘하나님을 송축할지로다’로 끝맺고 있다 (8, 36절).
- (2) 즉 그의 노래의 알파와 오메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로 꾸며져 있다.
- (3)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처음과 마지막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는 말로 채워져야 할 것이다.

14. **㉠** 레위인들의 찬양이 끝난 후 백성들은 무엇이라고 화답하였는가? (36절)

- ㉠** (1) 모든 백성이 ‘아멘’ 하며 여호와를 찬양하였다.
- (2) 여기서 ‘아멘’이란 말은 ‘믿는다’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아만>에서 파생된 것으로서 (참조, 창15:6) ‘진실함’, ‘건고함’, ‘확신’, ‘긍정’을 뜻한다.
- (3) 그들은 비록 레위인들처럼 성전에서 노래할 수는 없었으나 레위인들의 찬양에 화답함으로 ‘아멘’이라고 하나님께 동일한 찬양을 드렸다.
- (4) 사실 ‘아멘’이란 말은 입술만의 긍정과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승락과 진실을 말한다.
- (5) 그러므로 우리의 전생애를 통하여 이러한 ‘아멘’의 생활을 함이 마땅하다.

15. **㉠** 아삽과 그 형제들은 어떤 직책을 맡았는가? (37절)

- ㉠** (1) 이들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겨 놓은 (15:29) 법궤 앞에서 날마다 노래로 봉사하는 일을 맡았다 (4-6절).
- (2) 법궤는 예루살렘으로 옮겨졌으나 성막과 그 기구들은 아직 기브온에 있었다(39절). 이 성막과 법궤는 솔로몬 성전이 지어질 때까지 함께 하지 못했다(참조, 왕상 8:4).
- (3) 그리고 법궤가 있었던 곳에는 아직 제단이 없었으므로 제물을 바치거나 분향을 하지 않았다.
- (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형식 이전에 우리들의 내면 깊숙이에서 나오는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신다.

16. **㉠** 오벰에돔과 그 형제 68명이 맡았던 직책은 무엇인가? (38절)

- ㉠** (1) 이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1절) 성막의 문지기 일을 맡았다.
- (2) 성막 문지기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총을 받은 오벰에돔을 주축으로 수행되었다.
- (3) 또한 오벰에돔은 레위 자손 여두둔의 아들로서 다윗이 악대를 조직하는 중 그는 비파와 수금을 탔으며 문지기도 겸하였다 (15:18-24;16:5).
- (4) 오벰에돔과 함께 문지기 역할을 맡았던 호사(도피처라는 뜻)는 므라리 자손의 레위인인데 그에게는 13명의 아들이 있었다.

17. **㉠** 제사장 사독과 그 형제 제사장들은 어떠한 일을 맡았는가? (39-43절)

- ㉠** (1) 그들은 성막이 있는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께 봉사하는 일을 맡았다 (39, 40절).
- (2) 즉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준행하여 조석(朝夕)으로 번제단 위에 제물을 드리고 분향하는 일을 맡았다.
- (3) 비록 예루살렘에 있는 궤를 중심으로 예배가 행하여진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든 제사 의식을 수행하여야 했다.
- (4)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면적인 신앙을 먼저 원하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외적인 의식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18. **㉠** 다윗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몇 명이 있었는가? (39-43절)

- ㉠** (1) 다윗 시대에는 두 사람의 대제사장, 즉 사독과 아비아달이 있었다(삼하8:17;20:25).
- (2) 왜냐하면 한 대제사장은 기브온의 제단에서, 또 한 대제사장은 예루살렘의 법궤 옆에서 수종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 (3) 사실 이 땅위에서 시행되었던 제사 제도는 불완전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변칙이 용납되었던 것 같다.
- (4) 그러나 모든 인류의 대제사장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불완전한 제사 제도가 완전하게 되었다(참조, 히 10:10-12).
- (5)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불완전한 것이 완전한 모습을 갖추게 되듯이 우리의 인격도 예수를 닮아 온전해져 간다.

제 17 장 성전을 세우려는 다윗의 소망

단락구분 1-2 다윗이 하나님의 전 건축을 계획하다 / 3-10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시다 / 11-15 솔로몬 때에 성전이 건축될 것을 약속하다 / 16-27 다윗의 감사 기도

1 다윗이 그 궁실에 거할 때에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기를 여호와와 언약케는 휘장 밑에 있도다

2 나단이 다윗에게 고하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3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4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와 말씀이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5 내가 이스라엘을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 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6 무릇 이스라엘 무리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7 연하여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8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9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회를 심고 저회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는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회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10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또 네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지라

11 네 수한이 차서 네가 열조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네 뒤에 네 종 곧 네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2 저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3 나는 그 아버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자비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네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않을 것이며

14 내가 영영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15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목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니라

16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여호와 하나님이며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관대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17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며 나를 존귀한 자 같이 여기셨나이대

18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존귀에 대하여 다윗이 다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대

19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시라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대

20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 신이 없나이대

21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시라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크고 두려운 일로 인하여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열국을 쫓아 내셨사오며

22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로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회 하나님이 되셨나이대

23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케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라

24 견고케 하시고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25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집을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대

26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27 이제 주께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 | 이다 하나라
 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

1. **㉠ 본장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라.**

- ㉠** (1) 다윗은 자신의 왕궁이 건축되고 법궐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진 후 성전을 건축할 뜻을 선지자에게 밝혔다.
 (2)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허락하시지 않고 다윗 후손(솔로몬)에게 그 일을 맡기실 것이라는 응답을 주셨다.
 (3) 이런 응답을 받은 다윗은 그 약속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례(謝禮)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다.
 (4) 이와 같은 본장의 기사(記事)들은 삼하 7장에 이미 언급되어 있는 것으로서 성도들이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열망하고 간구해야 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2. **㉠ 다윗 때에 활동하였던 선지자는 누구인가? (1, 2절)**

- ㉠** (1)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활약했던 선지자는 나단이었다(참조, 삼하12:1-15; 왕상1:11).
 (2) 다윗이 이런 신실한 사람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의지한 것은 그의 영적인 민감성을 잘 말해 준다.

3. **㉠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열망하는 다윗에게 어떠한 응답을 하셨는가? (3, 4절)**

- ㉠** (1) 하나님은 나단을 통하여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다(4절).
 (2) 즉 다윗은 법궐을 위한 성막을 마련해야 했지만 그것을 안치할 고정 건물(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허락받지 못했다.
 (3) 그것은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앞까지 데리고 왔으나 그들이 그 땅을 소유하도록 하는 일은 여호수아에게 남겨진 것과 같았다.
 (4) 이와 같이 사람의 계획이 하나님께 부합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 이상으로 활동할 수는 없다.

4. **㉠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건축되기 전까지 어디에 거처하셨다고 말씀하셨는가? (5절)**

- ㉠**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하신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않으시고 이 장막과 저 장막에 거하였다고 말씀하셨다.
 (2) 사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만든 어떤 구조물에 제한되어 활동하시는 분이 아니다(참조, 고후5:1).
 (3) 더우기 이 땅에 건립된 하나님의 처소는 장차 온 인류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역할만으로도 충분하다.
 (4)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의 열정에 의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고 하지만 위와 같은 하나님의 속성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열심에 불과하다.

5. **㉠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하여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수 없는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다. 그것은 무엇인가? (4-6절)**

- ㉠** (1) 삼하 7장의 **㉠**5를 참조하라.

6. **㉠ 다윗의 선한 계획(성전 건축)은 수포(水泡)로 돌아갔는가? (7-15절)**

- ㉠** (1) 다윗은 그런 선한 계획이 자기 당대에서는 성취될 수 없었으나 자신의 후손(솔로몬)이 그 일을 이룰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얻었다.
 (2)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선한 뜻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현실적인 축복을 허락하셨다(7-10절).
 (3) 그 축복에 대해서 삼하 7장의 **㉠**6을 참조하라.

- (4) 그와 더불어 지금까지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다윗의 집을 영영히 세우시며 그의 씨를 하나님의 집과 나라에 세우시리라고 축복하셨다.
- (5) 이것은 이스라엘 왕국을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는 신약 시대에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을 의미한다(참조, 눅 1:33).

7. **㉠**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축복은 무엇인가? (11-15절)

㉠ (1) 삼하 7장의 **㉠** 7을 참조하라.

8. **㉠** '내 집과 내 나라'란 무엇을 말하는가? (14절)

㉠ (1) 이것은 이스라엘을 말한다. 그러나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메시아 왕국을 예언한 것이다(참조, 눅1:33).

(2)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義)의 통치를 하시는 영원한 나라를 말한다.

(3) 영원한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호와와 전을 건축하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다.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을 것이며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을 것이다(참조, 슄6:12, 13).

9. **㉠**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응답을 받은 후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갔는가? (16절)

㉠ (1) 다윗은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갔다.

(2) 즉 그는 자기와 자기 가문이 아무것도 아닌데도 자기를 왕위에 앉게 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태평하게 해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임을 고백하였던 것이다.

(3)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임을 알 수 있다.

(4) 이와 같이 다윗은 자기를 철저히 부정하고 하나님만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신앙의 소유자였다.

(5) 흔히 사람들은 확보된 자신의 지위에 덧붙여지는 행운만을 하나님의 은혜인 양 감사하고 있다.

(6)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10. **㉠** 다윗의 감사 기도는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가? (16절)

㉠ (1) '여호와 하나님이며'라고 시작되고 있다.

(2) 이와 같이 다윗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은 그의 도움과 기쁨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적인 표현이다(참조, 시 121:1, 2).

(3) 주기도문의 첫마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마6:9)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참조, 대하6:14; 요17:1).

(4) 신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가장 큰 힘이 된다(참조, 느8:10).

11. **㉠**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떠한 자로 취급하셨다고 고백하였는가? (17절)

㉠ (1)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존귀한 자같이' 취급하셨다고 하였다.

(2) 이처럼 하나님은 믿는 자들과의 계약 관계를 인정하시고 그들에게 은총을 내리실 뿐 아니라 항상 그들을 도와 주심으로 존귀케 하신다.

(3) 이것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이다.

12. **㉠** 다윗은 자기의 존재를 어떻게 표현하였는가? (18, 19절)

㉠ (1) 다윗은 자기를 '주의 종'이라고 하였다.

(2) 이 신분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직임(職任)을 예표한 것이다(참조, 사53장).

(3)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 (레 19:13)인 동시에 '하나님의 종' (사42:1)이었다.

(4)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종과 중재자의 역할을 맡은 바로 그리스도 때문이었다.

(5) 그는 겸손한 사역을 행하시고 전세계에 의를 가져오셨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와 함께 하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신다(참조, 마 12:18-20; 요 8:29).

13. **㉠**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어떠한 신앙 고백을 하였는가? (20-22절)

- ㉠** (1)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참신이 없다'고 하였다(20절).
 (2)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지 전능하심을 노래하였다.
 (3)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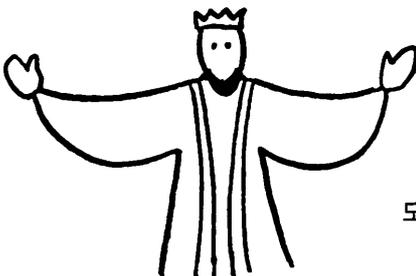
14. **㉠** 다윗의 기도의 결론 부분을 요약하면 어떤 내용인가? (23-27절)

- ㉠** (1) 다윗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하여 허락하신 말씀에 기초하여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였다.
 (2) 즉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믿음에서 나온 것이다.
 (3) 또한 그 약속을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은 것이었다.
 (4) 우리가 기도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대상도 다윗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어야 할 것이다.
 (5) 왜냐하면 그 말씀은 영원하고 변함없으며 그분 또한 신실하고 능히 이루실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15. **㉠** 다윗이 하나님께 '복' (福) 을 달라고 간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23-27절)

- ㉠** (1)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집안을 축복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므로 그는 용기를 얻어 복을 간구할 수 있었다(14절).
 (2)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이 진실되고 영원하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었으므로 진지하게 복을 간구하였다.
 (3) 인간은 복을 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을 명령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4)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뜻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또한 인간과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신다.
 (5) 하나님은 마침내 다윗과 다윗의 집안에 크나큰 복을 허락하셨는데 그 축복이 바로 인류의 대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마 1:1).
 (6)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더 귀한 복이 없다.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본장의 요절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증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19절).

제 18 장 다윗의 정복 사업

단락구분: 1-6 다윗이 주변 4대국(블레셋, 모압, 소바, 아람)을 정복하다 / 7-13 다윗이 획득한 전리품과 전과(戰果) / 14-17 다윗이 베푼 선정과 그 신하들

1 이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2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3 소바 왕 하닷에셀이 유브라테 강 가에서 자기 권세를 펴고자 하매 다윗이 저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4 그 병거 일천 승과 기병 칠천과 보병 이만을 빼앗고 일병거 일백 승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5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 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이만 이천을 죽이고

6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7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의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 오고

8 또 하닷에셀의 성을 디브핫과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취하였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바다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9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닷에셀의 군대를 쳐서 파하였다 함을 듣고

10 그 아들 하도람을 보내어 다윗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이왕에도 우로 더불어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파하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11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 등 여러 족속에게서 취하여 온 은금과 함께 하여 드리니라

12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염곡에서 에돔 사람 일만 팔천을 쳐 죽인지라

13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14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새

15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장관이 되고 아힐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16 아히둡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위사는 서기관이 되고

17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셔 대신이 되니라

1. ㉠ 본장은 어떤 내용을 취급하고 있는가?

- ㉠ (1) 본장은 하나님의 축복 아래 다윗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다.
 (2) 본장의 사건은 이미 삼하 8장에 언급되어 있고 그 내용은 거의 비슷하게 수록되어 있다.
 (3) 이와 같이 다윗의 나라가 든든히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우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에게는 결코 적이 있을 수 없다.
 (4) 이와 같은 다윗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예시한 것으로서 본장에 기록된 사건은 구속사적 관점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5) 즉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모든 세력들을 파멸시키고 그 위에 완성되는 의(義)의 나라이다.

2. ㉠ 본장은 어떤 말로 시작하고 있는가? (1절)

- ㉠ (1) '이 후에'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다.
 (2) 즉 이 말은 앞장에서 언급되어져 있는 대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즐거운 교제를 가진 후에라는 말이다.
 (3) 다윗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진 후에 놀라운 힘과 용기로 적들을 이와 같이 쳐서

글복시켰다.

- (4) 한편 야곱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마친 후 그의 나그네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다.
 (5)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먼저 이루지 않고는 결코 대적 마귀를 물리칠 수 없을 뿐더러 나그네 생활을 승리로 장식할 수 없다.

3. **㉠** 다윗이 블레셋을 치고 획득한 것은 무엇인가? (1절)

- ㉠** (1)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리'를 빼앗았다.
 (2) 여기서 '가드와 그 동리'란 문자적으로 '가드와 그 딸들'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3) '그 딸들'이란 말은 가드에 딸린 동네들을 비유한다.
 (4) 그러므로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리'를 빼앗았다는 것은 가드와 그 주변의 모든 땅을 점령했다는 말이 된다.

4. **㉠** 다윗은 모압을 어떻게 징벌하였는가? (2절)

- ㉠** (1) 삼하8장의 **㉠** 3을 참조하라.
 (2) 모압과 블레셋은 여러 대(代)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으나 이제 다윗이 그들을 정복하여 그들의 주인이 되었다.
 (3) 즉 오랫동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자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 이스라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
 (4) 이와 같이 모든 대적은 마지막에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무력하게 될 것이며 가장 뿌리깊은 적들도 그 앞에서 쓰러지게 될 것이다.

5. **㉠** 다윗이 소바 왕 하닷에셀을 정복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3, 4절)

- ㉠** (1) 소바 왕 하닷에셀이 유브라테 강까지 자기 권세를 확장하려 했기 때문이다.
 (2) 이에 다윗은 유브라테 강 근처 하맛 어귀까지 군사를 몰고 나가 소바 왕 하닷에셀 군대를 섬멸하였다. 이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다(창 15:18; 수 1:4). 왜냐하면 '유브라테 강'은 약속의 땅의 동쪽 경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3) 이와 같이 부귀와 권력이란 흔히 그것을 확신하고 있을 때 그리고 팽창하려고 할 때 오히려 잃을 염려가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무상함이다.
 (4) 그러므로 의지할수록 더욱 큰 힘과 용기를 제공하는 하나님을 의뢰함이 가장 안전하다.

6. **㉠** 소바 왕 하닷에셀을 다윗의 손에서 구원하려 왔던 사람들은 누구인가? (5절)

- ㉠** (1) 다메섹을 중심으로 살고 있던 아람 사람들이었다.
 (2) 그러나 다윗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물리치고 적지(敵地)에 이스라엘 수비대를 두었다(6절).
 (3)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의 적들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서로 도움으로써 흔히 그들 자신들을 파멸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
 (4) 그런데 비록 힘을 합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마치 타작 마당에 있는 곡식단을 타작하듯이 그들을 심판하신다(참조, 미 4:12).
 (5) 그러므로 우리들은 악인들의 단합된 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7. **㉠** 다윗이 전쟁에서 노획한 것은 무엇인가? (1-8절)

- ㉠** (1) 다윗은 많은 성읍과(1절), 말들(4절) 그리고 조공(朝貢)과, 금방패와 많은 놋(7, 8절)을 노획하였다.
 (2) 그런데 그는 이러한 많은 노획물들을 예루살렘으로 가져다가 성막과 기구들을 만드는데 사용하였다(7, 8절; 왕상 7:48-51).
 (3) 이처럼 죄인들의 재물이라 할지라도 때로 의로운 자와 거룩한 사업을 위해 쓰여지기도 한다(참조, 잠 13:22).
 (4) 이러한 사실들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방인들의 수고가 복음과 교회를 위

해 유익이 될 경우가 있음을 보여 준다.

8. **㉠** 하맛 왕 도우가 다윗에게 많은 선물을 보냈던 이유는 무엇인가? (9, 10절)

- ㉠** (1) 하맛 왕 도우는 당시 망각한 군사력을 과시하였던 이스라엘의 다윗 왕과 화친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하도람을 파견해 많은 선물을 다윗에게 바쳤다.
 (2) 그러나 도우가 이런 행위를 한 근본 이유는 다윗이 그의 대적이었던 소바 왕 하닷에셀을 대신 물리쳐 주었기 때문이었다(10절).
 (3) 다윗은 도우가 가져왔던 선물들을 자신의 왕궁을 치장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모두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사용하였다.
 (4) 이것은 전쟁의 승리가 온전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확신하는 다윗의 신앙이었다(참조, 시18:29, 50).
 (5)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조건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인 줄 알고 그분을 위해 기꺼이 투자할 줄 아는 것이 참다운 신앙인의 태도이다(참조, 눅21:4).

9. **㉠** 다윗이 많은 전쟁에서 계속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12, 13절)

- ㉠** (1)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다(13절).
 (2)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은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번영할 것이며 승리할 것이다.
 (3) 비록 그의 삶에 있어서 고통과 역경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것은 당신의 자녀를 더욱 성숙한 인격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일 뿐 결코 실패라고 볼 수 없다(사43:1-3).
 (4)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있는 자들은 영원한 승리가 약속되어 있다(시17:7-9; 사40:31).

10. **㉠** 다윗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통치(統治) 하였는가? (14절)

- ㉠** (1) 삼하8장의 ㉠10을 참조하라.

11. **㉠** 다윗은 자신의 내각(內閣)을 어떻게 구성하였는가? (15-17절)

- ㉠** (1) 삼하8장의 ㉠11을 참조하라.

12. **㉠** 다윗이 구성했던 내각에서 제사장의 사역을 맡았던 자는 누구인가? (16절)

- ㉠** (1) 아히둡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이었다.
 (2) 먼저 사독은 아론의 세째 아들 엘르아살의 후손으로서(24:1-3) 압살롬의 반역 때 법계를 다윗의 피난처로 옮기려 했으며(삼하 15:24-29) 후일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주고(왕상 1:32-45) 나아가서는 아비아달의 뒤를 이어 제사장으로 임명됨으로써(왕상 2:35) 모든 레위인들의 귀감이 되었다(겔 48:11).
 (3) 한편 아비멜렉에 대해서는 다소 기록상의 혼란이 있다. 즉 삼상 22:9과 삼하 8:17에는 '아히멜렉'으로 나와 있는데 이는 원래 아비아달의 아버지 곧 그의 할아버지를 가리키는 이름이었다(참조, 삼상 22:20). 결국 이 문제는 할아버지의 이름을 손자에게 물려주었던 유대인의 관습을 이해하면 쉽게 해결된다.

13. **㉠** 다윗의 제속되었던 전쟁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1-17절)

- ㉠** (1) 삼하8장의 ㉠9를 참조하라.

제 19 장 다윗이 암몬과 아람을 정복하다

단락구분 1-5 하논과 그의 신하들이 다윗의 사자(使者)들을 옥보이다 / 6-15 요압과 아버지새가 암몬을 징벌하다 / 16-19 다윗이 아람 사람과 싸워 승리하다

1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2 다윗이 가로되 하논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 아들 하논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고 사자를 보내어 그 아버지 죽은 것을 조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복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하논에게 나아가 조상하매

3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하논에게 고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를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 신복이 왕에게 나아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이까

4 하논이 이에 다윗의 신복들을 잡아 그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의 중동 불기까지 자르고 돌려 보내매

5 혹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의 당한 일을 고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저희를 맞으러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기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6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밋게 한 줄 안지라 하논이 암몬 자손으로 더불어 은 일천 달란트를 아람나하라임과 아람마아가와 소바에 보내어 병거와 마병을 샀 내되

7 곧 병거 삼만 이천 승과 마아가 왕과 그 백성을 샀 내었더니 저희가 와서 메드바 앞에 진 치매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 쫓아 모여 와서 싸우려 한지라

8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은 무리를 보내었더니

9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앞에 진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10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 백자 중에서 또 뽑서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치고

11 그 남은 무리는 그 아우 아버지새의 수하에 붙여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치게 하고

12 가로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13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14 요압과 그 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저희가 그 앞에서 도망하고

15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의 도망함을 보고 저희도 요압의 아우 아버지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 오니라

16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자를 보내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닷에셀의 군대 장관 소박이 저희를 거느린지라

17 혹이 다윗에게 고하매 다윗이 은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저희를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저희가 다윗으로 더불어 싸우더니

18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칠천 승의 군사와 보병 사만을 죽이고 또 군대 장관 소박을 죽이매

19 하닷에셀의 신복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으로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이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싫어하니라

1. ㉠ 본장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 ㉠ (1) 본장에는 다윗이 암몬 자손과 아람 사람들을 징벌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 (2) 이 사건은 이미 삼하 10 장에 언급되어 있는 것으로서 앞장에 기록된 다윗의 전공(戰功)을 더 확실하게 밝혀 주는 구실을 하고 있다.
- (3) 다윗이 이렇게 계속되는 전투에도 불구하고 기진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

나눔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18:6).

- (4) 거침없는 전쟁과 끝내 승리를 쟁취하는 다윗의 모습은 바로 죄악의 세력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 (5) 그러므로 끝없는 마귀와의 전쟁을 앞에 둔 우리들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참조, 엡6:10-18).

2. **㉠** 다윗이 적국(敵國)인 암몬에 조문 사절단(弔問使節團)을 보내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1, 2절)

㉠ (1) 다윗이 언제 암몬 왕 나하스의 은혜를 입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나하스 생전에 많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적국임에도 불구하고 조의(弔意)를 표하기 위해 사절단을 보낸 것이다(2절).

(2) 더 자세한 내용은 삼하10장의 **㉠** 2를 참조하라.

3. **㉠** 다윗의 조문 사절단에 대해 하논과 그 부하들은 어떻게 대접하였는가? (3-5절)

㉠ (1) 삼하 10장의 **㉠** 3을 참조하라.

4. **㉠** 다윗은 하논에게 모욕 당하고 돌아오는 부하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였는가? (5절)

㉠ (1) 삼하 10장의 **㉠** 6을 참조하라.

5. **㉠** 암몬 왕 하논은 자기의 행동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가? (6-9절)

㉠ (1) 암몬 왕 하논은 이스라엘의 반응에 대비하여 전쟁을 준비하였다.

(2) 또한 그는 이웃 나라에서 값을 주고 고용병을 데려왔다.

(3) 이런 행동은 자신들의 잘못을 정당화시키기를 좋아하는 악인들의 한 특징이다.

(4) 이와 같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은 자신들의 불의한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므로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경우가 있다.

(5) 이렇게 순환되는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자기 부정과 겸손을 통하여 정의를 실현해 가야 할 것이다.

6. **㉠** 암몬 왕 하논이 다윗과 대전하기 위해 구성했던 외인 부대(外人部隊)는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었는가? (6-9절)

㉠ (1) 암몬 왕 하논은 은 1,000 달란트(약34t)로 외인 부대와 무기들을 구입하였다(6절).

(2) 이와 같이 세상에는 돈으로 사람과 그 힘을 살 수 있고 또한 삶의 조건들을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수도 있다.

(3) 이처럼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모르나 진정한 승리는 돈으로 성취할 수 없는 것이다.

(4) 즉 하논은 돈으로 불의의 병기를 갖추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돈의 힘이 무능할 수밖에 없었다.

(5)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으로서 그것을 친히 다스려 가시기 때문이다(참조, 창1:1).

7. **㉠** 암몬 군대에 대처했던 요압의 전략은 어떠했는가? (10-15절)

㉠ (1) 요압은 앞뒤에 배진(配陣)한 적군을 보고 이스라엘 군을 들로 나뉘어 일진(一進)은 아람 사람을, 그 남은 무리는 아비새의 수하에 붙여 암몬 자손을 향하여 진치게 했다.

(2) 즉 요압은 이스라엘 군이 적군에 의해 포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퇴하거나 도망가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결심을 더욱 확고히 하였다.

(3) 또한 그는 그의 아우 아비새와 서로 도움이 되어 줄 것을 약속하였는데 이것은 (12절) 그 자신과 남은 무리들을 격려하여 그들 자신의 영광과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들 나라의 유익함을 위해 싸워 줄 것을 당부하였다.

(4) 이처럼 진정한 용기의 소유자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일수록 더욱 용기있게 되고 또 활기를 얻게 된다.

(5) 사실 기독교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영적인 부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날마다 용기를 잃지 않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 각자의 삶에 내주(內住) 하셨기 때문이다(참조, 마28:20).

8. **㉠** 요압은 이스라엘 군대에게 무엇을 위하여 '담대하라'고 독려했는가? (13-15절)

㉠ (1) 삼하 10장의 **㉠**10을 참조하라.

9. **㉠**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암논 군대는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14, 15절)

㉠ (1) 그들은 돌격해 오는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힘도 쓰지 못하고 자기들의 거처로 도망하고 말았다.

(2) 암논 사람들은 그들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하였다. 즉 그들은 가능한 한 모든 군사력을 싸움터에 동원시켰고 최대한의 전략과 전술을 사용하였다.

(3) 그러나 그것은 그릇된 동기를 지니고 있었고 악을 옹호하려는 행위였으므로 그들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최악의 사태를 맞게 되었다.

(4) 이처럼 정의와 공평을 대적하는 기교와 힘은 아무리 거대한 것이라 할지라도 헛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5) 결국 의(義)가 모든 불의를 극복하고 승리하게 되었다.

10. **㉠** 다윗의 군대에 패배한 아람 군대는 어디에서 재집결하였는가? (16절)

㉠ (1) 삼하 10장의 **㉠**11을 참조하라.

11. **㉠** 아람의 재침(再侵)은 결국 다윗에게 어떠한 결과를 안겨 주었는가? (16-19절)

㉠ (1) 삼하 10장의 **㉠**2를 참조하라.

12. **㉠** 암논 자손에 대한 다윗의 승리는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였는가? (19절)

㉠ (1) 하닷에셀의 신복이 다윗과 더불어 화친(和親) 하고 다윗을 섬겼기 때문에 아람 사람들은 암논 사람 돕기를 싫어하였다.

(2) 즉 이스라엘이 승리하였다는 것을 알게 된 아람 사람들은 암논 사람들과의 동맹을 끊고 더 이상 악한 계획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였던 것이다.

(3) 이처럼 자기들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분쟁에 끼어들어 그들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은 마침내 자기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고 더 이상 그런 일에 간섭하려 하지 않는다.

(4)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본의 아니게 악한 일에 동참하였을 때 재빨리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결단력이 요구되어진다.

(5)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동안은 모두 스스로가 파멸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3. **㉠** 본장의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 (1)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있어서 많은 희생과 노력이 따른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2) 또 아람인의 무모한 점을 배울 수 있다. 남의 싸움에 혈기를 부리며 동참했다가 40,000명의 희생을 지불하고 노예가 된 것이다(참조, 시1:2).

(3) 즉 그들은 혈기와 명예욕 때문에 전인격이 몰살당했던 것이다.

(4) 그리고 전쟁에서의 승리는 군대의 다수에 있지 않고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참조, 벰전5:6).

(5) 참으로 하나님은 인간의 삶을 지배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다(참조, 행17:24).

제 20 장 다윗이 암몬과 블레셋을 격파하다

단락구분 1-3 다윗이 랍바를 공략하여 거주민인 암몬 사람들을 종으로 삼다 / 4-83차에 걸친 블레셋 원정

1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회파하고 가서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2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면류관을 취하여 달아보니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그 면류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어오고

3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레질과 도끼질을 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4 이 후에 블레셋 사람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

에 후사 사람 십브개가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십배를 쳐죽이매 저희가 항복하였더라

5 다시 블레셋 사람과 전쟁할 때에 아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호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 자루는 베틀채 같았더라

6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 곳에 키 큰 자 하나는 매 손과 매 발에 가락이 여섯씩 모두 스물 넷이 있는데 저도 장대한 자의 소생이라

7 저가 이스라엘을 능욕하는 고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저를 죽이니라

8 가드 장대한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복의 손에 다 죽었더라

1. ㉠ 본장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라.

- ㉠ (1) 전장(前章)에서는 암몬 사람과 그 동맹군들이 다윗의 군대에 어떻게 참패하였는가를 기록하고 있다.
- (2) 이제 본장에서는 그들 왕국의 중심지인 랍바가 파멸하는 것과 그들 왕의 면류관을 다윗이 취한 것 그리고 그곳 백성들이 겪은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다.
- (3) 이 사건과 더불어 본장에는 다윗 군대가 블레셋과의 3차에 걸친 전투로 블레셋의 장대한 군인 3명을 죽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 (4) 이와 같은 내용이 삼하 11, 12 장에서도 기록되어 있다.
- (5) 그러나 이와 같이 빛나는 승리 뒤에는 다윗의 엄청난 죄악(간음과 살인)이 가려져 있었다(참조, 삼하 11:2-21).
- (6) 이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건설하시고자 하는 커다란 물줄기 앞에서는 어떤 악의 세력도 빛을 발할 수 없으며 또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방해할 수 없다.

2. ㉠ 본장은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가? (1 절)

- ㉠ (1) '해가 돌아와서' 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다.
- (2) 이 말은 '새해가 되어서' 라는 의미이다. 이스라엘의 새해란(참조, 출 13:4; 23:15; 느 2:1) 태양력으로 3, 4 월을 가리킨다.
- (3) 이때는 전쟁하기 아주 좋은 시기로서 그 전에 후퇴하였던 암몬 군대(삼하 10:14)와 이스라엘 군대가 다시 전쟁을 하게 되었다.
- (4) 이와 같이 고대 전쟁은 주로 기후에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반하여 오늘날의 전쟁들은 기후에는 상관없이 치루어지고 있다.

- (5) 이것은 고대에 비하여 오늘날이 과학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을 말해 주는 동시에 집단적인 형태의 죄악이 고대보다 훨씬 많이 자행되고 있음을 증명해 준다.
- (6) 전쟁은 결코 하나님이 주신 최선의 방책은 아니다. 그렇다고 차선책(次善策)도 아니다.

3. **㉠** 다윗은 자기의 군대가 암몬 족속의 왕도(王都) 랍바를 정복하자 그 정복지에 대해 어떠한 정책을 썼는가? (2, 3절)
- ㉡** (1) 삼하 12장의 **㉠** 21를 참조하라.
4. **㉠** '장대(長大) 한 자의 아들' 이란 누구를 말하는가? (4 절)
- ㉡** (1) 장대한 자의 아들이란 거인족인 '르바임' 을 가리킨다(참조, 신2:20;3:11).
 (2) 다윗과 그 나라가 이런 막강한 힘의 소유자를 무너뜨린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3) 이것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악한 세력을 무찌를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좋은 예이다(참조, 요일5:4).
5. **㉠** 다윗의 부하였던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인 자는 누구인가? (5절)
- ㉡** (1)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호미였다.
 (2) 이 자는 다윗이 물맷들로 죽인 블레셋 장수 골리앗(삼상 17:4, 50)의 동생으로 그 형과 같이 기골이 장대하였다. 이 사실은 '... 창자루는 베틀채 ...' 라는 말속에 잘 나타나 있다.
 (3) 한편 이 기사는 삼하 21:19의 사실과 똑같다.
6. **㉠** 본장은 어떠한 말로 끝맺고 있는가? (8절)
- ㉡** (1) '가드 장대한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복의 손에 다 죽었더라' 는 말로 끝맺고 있다.
 (2) 이러한 언급은 다윗의 부하들이 블레셋의 용사들을 완전히 멸절시킨 사실을 가리킨다.
 (3) 또한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의 현격한 차이를 보여 준다.
 (4)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러한 승리를 얻게하시므로 당신의 나라가 안정된 기반 위에 당신만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 이처럼 성도의 승리는 곧 하나님의 영광이다.

본장의 요절

'가드
장대한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복의 손에
다 죽었더라'
(8절).



제 21 장 인구 조사를 행한 다윗의 죄

단락구분 1-6 다윗이 요압에게 인구 조사를 명하다 / 7-8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다 / 9-12 선견자(先見者) 갓에 의해 선고된 하나님의 형벌 / 13-14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온역(瘟疫)을 내려 7만 명이 죽다 / 15-17 다윗의 참회(懺悔)로 예루살렘이 구출되다 / 18-30 다윗이 선택한 죄를 회개하고 제물을 바침으로써 징계가 완전히 멈추었다

1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2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두목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서 내게 고하여 그 수효를 알게 하라

3 요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 보다 백 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이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로 죄가 있게 하시나이까 하나

4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떠나서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5 백성의 수효를 다윗에게 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뽑 만한 자가 일백 십만이고 유다 중에 칼을 뽑 만한 자가 사십 칠만이라

6 요압이 왕의 명령을 밍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7 하나님이 이 일을 꾀심히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시매

8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9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이르시되

10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11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고하되 여호와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12 혹 삼 년 기근일지, 혹 내가 석 달을 대적에게 패하여 대적의 칼에 쫓길 일일지, 혹 여호와와 칼 곧 온역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와 사자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일지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 것을 결정하소서

13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공흠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14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역을 내리시매 이스라엘 백성의 죽은 자가 칠만 이었더라

15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 사자를 보내셨더니 사자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사자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에 여호와와 사자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 곁에 선지라

16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와 사자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편을 가리켰는지라 다윗이 장로들로 더불어 굵은 베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17 하나님께 아뢰되 명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이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내니이다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18 여호와와 사자가 갓을 명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19 다윗이 이에 갓이 여호와와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올라가니라

20 때에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네 아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21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 마당에서 나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매

22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불이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불이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한 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온 역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23 오르난이 다윗에게 고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의 종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24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다 내가 결단코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네 물건을 취하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고

25 그 가치 값으로 금 육백 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26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

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 하시고

27 사자를 명하시매 저가 칼을 집에 꽂았더라

28 이 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29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와 장막과 번제단이 그 때에 기브온 산당에 있으나

30 다윗이 여호와와 사자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함이라

1. **㉠ 본장의 내용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 ㉠ (1) 본장에는 다윗이 불순한 동기로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 인구 조사를 실시했던 사건이 기록되었다(참조, 삼하 24 장).
- (2) 다윗의 인구 조사는 이스라엘 중에서 칼을 뽑 만한 자들을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군인의 수를 조사하는 징병 검사(徵兵檢査)와 마찬가지로였다.
- (3)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 이루어진 일(인구 조사)에 대하여 꽤 씁쓸히 여기시고 그들을 역병(疫病)으로 징벌하셨다.
- (4) 그때에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침으로 하나님의 징계는 일단락 되었으나 그 상처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 (5) 이와 같이 다윗 한 사람의 실책은 이스라엘 전역을 어지럽게 하였고 또한 많은 생명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6) 요즈음도 소수의 범죄로 인하여 공동체(교회) 전체에 아픔을 제공하는 일이 많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삶 주위를 살펴서 공동체에 피해를 입히는 일이 없는가를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2. **㉠ 다윗이 이스라엘 전역에 인구 조사를 실시했던 근본 이유는 무엇인가? (1 절)**

- ㉠ (1) 사단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激動) 하였기’ 때문이다.
- (2)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당신이 직접 움직여 범죄로 내모시지 않으시고 대신 사단의 계획을 그대로 방임하셨다.
- (3) 즉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거룩한 목적을 위해 사단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뜻이다.
- (4) 왜냐하면 하나님은 최악의 창시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어느 인간도 유혹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참조, 약 1:13).

3. **㉠ 다윗이 무엇 때문에 인구 조사를 명령하였는가? (1-4 절)**

- ㉠ (1) 다윗이 인구 조사를 명한 것은 장차 있을 전쟁에 대비하여 군인의 수자를 파악하기 위함이었다(참조, 5절).
- (2) 그런데 인구 조사를 한 것은 다윗의 지나친 교만에서 우러나온 행동이었다.
- (3) 즉 그는 나라가 평안할 때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앞으로 전개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태도로 지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세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점검했던 것이다(참조, 사 39:1-7).
- (4)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내왔던 다윗이었으나 한 순간의 실수로 그는 자신과 온 백성에게 많은 상처를 안기게 되었다.
- (5) 이처럼 성도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 늘 깨어 근신하는 삶을 살므로 시험에 드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참조, 벰전 5:8).

4. **㉠** 요압은 다윗의 인구 조사 명령에 대하여 어떠한 반론(反論)을 제기하였는가? (3절)
㉠ (1) 삼하 24장의 **㉠**5를 참조하라.
 (2) 요압은 다윗의 인구 조사를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그것을 만류하였으나 다윗이 그 일을 강행하였다.
 (3) 이처럼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은 그 귀가 무디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유익이 되는 충고도 거부하고 만다.
 (4)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기에 비록 당장은 감정이 상하고 내키지 않더라도 그 충고를 받아들인다.
5. **㉠** 인구 조사 결과 전쟁에 참가할 수 있는 자들의 수자는 몇 명이나 되었는가? (4, 5절)
㉠ (1) 삼하 24장의 **㉠**7을 참조하라.
6. **㉠** 요압이 인구 조사 중 래위와 베냐민 사람들을 계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6절)
㉠ (1) 요압이 왕의 명령을 밋게 여겼기 때문에 이 두 지파를 계수하지 않았다.
 (2) 이 일이 있기 전에는 다윗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나 모든 백성이 다 기뻐하였었다 (참조, 삼하 3:36).
 (3) 그러나 이제 개인적인 욕심에 의한 다윗의 명령은 요압과 백성들의 불만을 사기에 충분하였다.
 (4) 이처럼 공적(公的)인 인물이 사리 사욕(私利私慾)에 얽매일 때 모든 백성들이 싫어할 뿐 아니라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는다.
 (5) 특히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의 타락과 이기주의적 행동은 이 세상에서의 비난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서의 추궁을 면치 못할 것이다(참조, 약 3:1).
7. **㉠** 다윗의 인구 조사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하였는가? (7절)
㉠ (1)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인구 조사를 실시한 것에 대해 ‘패썸히 여기시고’ 이스라엘에게 징계하실 것을 계획하셨다.
 (2) 하나님께서 패썸히 여기시는 경우는 인간이 범죄할 경우에 한해서이다(참조, 창 6:5-7).
 (3) 사실 인간의 교만보다 하나님을 불패하게 만드는 죄악은 없을 것이다.
8. **㉠** 다윗의 마음에 회개할 생각이 들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8절)
㉠ (1) 삼하 24장의 **㉠**8을 참조하라.
9. **㉠**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다윗에게 보내신 이유는 무엇인가? (9-12절)
㉠ (1) 삼하 24장의 **㉠**9, 10을 참조하라.
10. **㉠** 다윗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셨던 세 가지 징벌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였는가? (13절)
㉠ (1) 다윗은 자신에게 있어서 조금이라도 덜 불리한 어느 한 가지를 택하지 않고 이 문제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다.
 (2)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를 범할 경우 그 죄의 해결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그 죄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죄를 해결받는 것만이 신앙인에게 요구된다.
 (3) 죽음 앞에 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의 뜻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추구하였다(막 14:36).
11. **㉠** 다윗의 인구 조사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어떤 것이었는가? (14절)
㉠ (1)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역에 온역(瘟疫)을 내리셔서 7만 명이나 되는 생명을 앗아 가셨다.
 (2) 이처럼 죄의 결과는 흔히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3) 다윗이 자신의 허물에 대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셨으나 이스라엘 백

- (58) 성의 죄(삼하 24:1)는 간과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당신의 뜻에 따라 재앙을 내리셨다.
- (4) 이 재앙의 결과 이스라엘 백성의 수효는 많이 줄어 들었으며 결국 다윗이 자랑하던 군인의 수자도 줄어 들게 되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당신의 주권으로 다스려 나가신다.
12. **Q** 하나님께서 '뉘우쳤다'는 말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가? (15절)
- A** (1) 삼하 24장의 **Q** 13를 참조하라.
13. **Q** '오르난'은 어떤 인물인가? (15절)
- A** (1) 삼하 24:16에는 '아리우나'로 불려지고 있다.
(2) 더 자세한 내용은 삼하 24장의 **Q** 16을 참조하라.
14. **Q** 다윗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가까운 것을 바라보고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이러한 다윗의 기도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16, 17절)
- A** (1) 다윗의 기도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 전체의 안전을 도모하는 중보 기도였다. 이 기도에는 올바른 회개자의 자세가 나타나고 있다.
(2) 그는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한 후 그분의 권위 앞에 엎드려졌다. 이것은 기도가 어떠한 대상을 향해 기도해야 할 것인지를 보여 주는 행동이다.
(3) 더우기 그는 자신의 얼굴을 땅에 댈 만큼 지극히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겸손한 자의 기도를 즐겨 들으신다.
(4)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의 허물에 대한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키지 않는 성실한 모습을 보였다. 자신의 죄를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아뢰는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
(5) 이와 같이 진실된 회개는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15. **Q** 하나님은 참으로 회개하는 다윗에게 용서의 길로 무엇을 제시하였는가? (18, 19절)
- A** (1) 삼하 24장의 **Q** 15를 참조하라.
16. **Q**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치뤄진 제사는 신약 시대에 무엇을 예표하는가? (18-26절)
- A** (1) 구약 시대에 실시된 모든 제사들은 인류를 대속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한다(참조, 히 10:1-10).
(2) 그러므로 이때에 다윗이 드린 희생은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것으로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3) 한편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으로 올라간 것은 자이 여호와의 이른 말씀대로 행한 것이었다.
(4)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힘입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5)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은총의 길을 막으신다면 우리는 결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는 눈먼 자가 될 뿐이다.
17. **Q** 오르난의 타작 마당은 어디에 위치하였는가? (18-26절)
- A** (1) 그곳은 브엘세바에서 3일 거리로 예루살렘 북쪽 모리아 산에 위치해 있었다.
(2) 이곳은 물론 과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좇아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그 모리아 산과(창 22:2) 같은 장소로서 다윗이 쌓은 제단을 훗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증축시켜 성전을 건축했던 곳이기도 하다(대하 3:1).
(3) 이처럼 하나님께서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제단을 쌓고서 거기에 사죄의 제물을 바치라 하셨고, 또 거기에서 그의 기도의 응답으로 역병이 물러났기 때문에 다윗은 이 장소야말로 하나님께서 이후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자비로운 존재를 알리실 그런 장소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이러한 암시는 솔로몬이 지을 성전의 위치를 결정하기에 충분하였던 것이다.

18. **㉠**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 마당을 얼마를 주고 구입하였는가? (18-26절)

㉠ (1) 삼하 24장의 **㉠** 17을 참조하라.

19. **㉠** 다윗의 제사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26, 27절)

㉠ (1)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셨다(26절).

(2) 여기서 '불' 이 제물을 태운 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의 진노를 발하지 않으시겠다는 상징적인 표현이다.

(3) 그러므로 다윗이 드렸던 화목제와 번제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의미에서 드러진 것이었다.

(4) 하나님께서 이처럼 화해의 제물을 소멸하시고 멸망의 칼을 그 칼집에 꽂으시므로(27절) 이스라엘을 향한 당신의 진노를 종식(終熄) 시키셨다.

(5)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와 저주를 짊어지시고 기꺼이 고난을 당하셨으며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벌의 불이 되지 않고 화해하는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참조, 사 53:4-12).

20. **㉠** 다윗이 여호와의 장막과 번제단이 있는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28-30절)

㉠ (1) 그것은 다윗이 여호와의 사자(使者)의 칼을 보고 두려워하여 감히 그 산당에 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30절).

(2) 즉 다윗은 기브온에서의 제사를 마치고 돌아오기도 전에 예루살렘 위에 치명적인 타격이 가해질 것이 두려워 칼을 빼어든 하나님의 사자의 결을 떠날 수가 없었다.

(3) 그러나 하나님은 너그럽게도 현재의 이 재난을 참작하시어 한 제단만 고수하라는 당신의 율법을 제하여 주시었고 새로운 제단에 제물 바치는 것을 허락하시었다.

(4) 다윗은 그가 살아 있는 동안 기브온에도 제단이 계속 보존되어 있게 했지만 그가 새로 쌓은 제단(24-26절)에 제물을 드렸다.

(5) 왜냐하면 그는 새로운 제단을 통해서도 제물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6)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정하신다는 것 때문에 어떠한 모험도 감행할 수 있다(참조, 빌 4:13).

본장의 요절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8절).



제 22 장 성전 건축을 위한 다윗의 준비

단락구분 1-5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준비를 하다 / 6-16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성전 건축을 위탁(委託)하다 / 17-19 다윗이 방백들에게 솔로몬을 돕도록 명하다

1 다윗이 가로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2 다윗이 명하여 이스라엘 땅에 우거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3 다윗이 또 문짝 문과 거덜못에 쓸 철을 한 없이 준비하고 또 심히 많아서 중수를 셀 수 없는 놋을 준비하고

4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음이라

5 다윗이 가로되 내 아들 솔로몬이 여리고 언약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전은 극히 장려하여 만국에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6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7 이르되 내 아들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8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9 한 아들이 네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저로 사면 모든 대적에게서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저의 생전에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나라

10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지라 저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저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11 내 아들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네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와의 전을 건축하며

12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너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13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든 율례와 규례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14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와의 전을 위하여 금 십만 달란트와 은 일백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중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예비하였고 또 재목과 돌을 예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15 또 공장이 네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16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리로다

17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하여 그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가로되

18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강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거민을 내 손에 붙이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19 이제 너희는 마음과 정신을 진정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소를 건축하고 여호와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를 가져다가 여호와와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1. ㉠ 본장의 내용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안겨 주는가?

㉠ (1) 전장(前章)에서는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무서운 심판을 받아 고통당한 후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하나의 제단을 쌓을 것을 암시해 주셨으며 성전을 건축할 장소를 알려 주셨다.

(2) 이에 다윗이 새 힘을 얻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준비를 마치고 또한 성전 건축의 주역(主役)이 될 솔로몬과 그를 도와 일할 방백들에게 철저한 교육과 당부를 한 사실이

본장에 기록되었다.

- (3) 또한 전장에서는 백성들을 계수한 다윗의 교만한 마음을 볼 수 있으나 본장에서는 하나님의 전을 위해 준비하는 그의 겸손한 태도를 볼 수 있다.
- (4)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맡길 때에 먼저 그 말을 자에게 겸손을 선물하신다.
- (5)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교만과 독선(獨善)을 일삼는 자들은 하나님과 무관(無關)한 자일 수밖에 없다.

2. **㉠** 다윗이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고 말했던 곳은 어디인가? (1절)

- ㉠** (1) 이것은 다윗이 성별했던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을 가리킨다(21:18).
- (2) 다윗이 이곳을 택하여 성전을 지으려고 한 것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기 때문이다(21:26).
- (3)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거할 처소를 친히 택하시고 그곳에서 안식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안식처이다(참조, 고전 6:19).
- (4) 또한 그가 택하신 그 터전은 원래 이방인의 소유지였다(21:18). 이것은 이방 사회에서도 복음의 교회를 세우게 되리라는 행복한 예시이다(참조, 행 15:16, 17).
- (5) 그리고 그 땅은 타작 마당이었다(21:18). 왜냐하면 살아가신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그의 마당이며 또한 타작물이기 때문이다(참조, 사 21:10).
- (6)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마당을 온전히 정결케 하기 위하여 그 손에 킶를 가지고 제신다(참조, 요 2:14-17).

3. **㉠**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어떤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가? (2절)

- ㉠** (1)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이방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 (2) 이들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정복에서 정복된 가나안 후손들이며 이스라엘 통치하에서 노예였던 사람들이다(참조, 대하 2:17; 8:7-10).
- (3) 솔로몬 시대에도 이러한 예속인들이 15만 명이었다고 전해지며 이들은 주로 성전 건축 때 짐을 나르는 일이나 일하는 일군들로 사역하였다.
- (4) 이 사실은 장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이방인들의 역할이 어떠한을 보여 주는 것이다.

4. **㉠**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준비한 것은 무엇인가? (2-5절)

- ㉠** (1) 먼저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이방 사람을 모았다. 이들은 대체로 좋은 기술자들로서 성전 건축에 적당한 자들이었다.
- (2) 또한 석수(石手)를 시켜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였으며 문짝 못과 거멀 못에 쓸 철을 한없이 준비하고 또 수없이 많은 못을 준비하였다.
- (3) 그리고 시돈과 두로 사람의 도움으로 많은 백향목을 준비하였다(참조, 14:1; 시 45:12).
- (4) 이처럼 다윗은 자신이 직접 성전 건축에 착수하지는 못하였지만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정성껏 준비하였다.
- (5) 이것은 주님의 참된 종들이 일하는 방법이다. 즉 주님의 종들은 이름도 빛도 없이 주님의 나라 건설에 힘쓰는 자들이다.

5. **㉠** 다윗이 생각했던 성전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5절)

- ㉠** (1) 다윗은 성전이 '극히 장려(壯麗)하여 만국에 명성과 영광'이 있을 것으로 보았다.
- (2) 여기서 '장려'란 말은 '웅장하여'란 뜻이다.
- (3) 다윗은 자신의 욕심에 따라 성전 건축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이런 상상도(想像圖)를 마음속으로 그렸다.
- (4) 그리고 '장려하다'는 것은 외모가 뛰어나다기 보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

러내는 것이라는 의미이다(참조, 28:11-19).

(5)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시므로 이뤄진 성전(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계시대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극히 아름답고 웅장하다.

6. **㉠**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이유는 무엇인가? (6-8절)

- ㉠** (1) 그는 많은 전쟁에 참여해 많은 사람을 살육하고 피를 흘리게 하는 불의를 저질렀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자격을 상실하였다(8절).
- (2) 즉 성전 건축의 책임자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화평한 자만이 합당하였다.
- (3) 왜냐하면 이것은 성전과 성전에서 진행될 모든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평화의 사신으로 오셨다.
- (4) 즉 복음의 성전을 지을 자는 인간의 생명을 멸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는 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7. **㉠**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9절)

- ㉠** (1) '솔로몬'은 '평강', '평화의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
- (2) 성전 건축에 가장 적합한 자는 평화를 사랑하는 자이어야 했다.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은 그 적격자이다.
- (3) 더우기 성전 그 자체는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그것을 건축할 자는 피를 흘리는 무사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 (4) 이러한 평화는 성전을 건축할 당시에도 지켜졌는데 성전 안에서는 물건을 파괴하는 소리가 일체 나지 않을 정도로 엄격히 지켜졌다(왕상 6:7).
- (5)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일컬어지는 성도들도 솔로몬, 즉 '평화', '평강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전이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드러날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8. **㉠**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할 솔로몬을 위해 약속하신 것은 무엇인가? (9, 10절)

- ㉠** (1)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생전에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라고 하셨다(9절).
- (2)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은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한다.
- (3) 또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아버가 되어 그 나라 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10절).
- (4) 이러한 말씀은 솔로몬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다.
- (5)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의 본질이었다(참조, 히 1:5). 그러므로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메시아의 나라, 즉 천국의 성취를 말한다(참조, 눅 1:33).

9. **㉠** 다윗은 솔로몬에게 어떤 기원(祈願)과 당부(當付)를 하였는가? (11-13절)

- ㉠** (1) 다윗은 먼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라고 기원했다.
- (2) 그리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도록 당부했다(11절).
- (3) 또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를 원했고 나아가서는 이러한 지혜와 총명으로 그가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고 모든 율법과 규례를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했다(12절).
- (4) 끝으로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였다. 이렇게 4번씩이나 강조한 것은 전혀 놀라지 말라는 뜻인데 이것을 수사학(修辭學)에서 완전 강조라 한다.
- (5) 이처럼 자식을 위한 간절한 간구야말로 자식을 가장 올바르게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의 표현이다.

10. **㉠** 다윗은 성전 건축용 재료와 기술자들을 어떻게 준비하였는가? (14-16절)

- ㉠** (1) 다윗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재료와 기술자들을 마련하였다.

- (2) 여기서 ‘환난 중에’란 말은 ‘고통스러운 노력으로’라고 번역될 수 있다.
- (3) 이러한 표현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물질 양면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즉 그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갖 정성을 다 쏟았으며 전쟁에서 획득한 전리품들을 아낌없이 성전 건축에 헌납했던 것이다.
- (4)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고난을 통해서 드러지는 예를 기뻐하시며 그 삶을 인정하신다.

11. **㉠**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해 솔로몬에게 했던 마지막 당부는 무엇인가? (16절)

- ㉠** (1)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르다’라고 하였다.
- (2) 우리들은 흔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태만히 할 때가 있다.
- (3)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게으르게 만드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 (4)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일어나 일하여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 (5)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할 때 역사는 일어나며 그와 더불어 앞으로 계속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리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

12. **㉠** 다윗은 자신의 방백들에게 어떠한 명령을 내렸는가? (17-19절)

- ㉠** (1) 다윗은 솔로몬이 해야 할 성전 건축을 돕도록 모든 이스라엘 방백들에게 명령하였다 (17절).
- (2) 왜냐하면 성전 건축은 왕 개인의 사업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온 백성이 협력하고 보필해야 할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이다.
- (3) 다윗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위대한 일을 알려 줌으로써 그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이 일에 열심을 다하도록 하였다(18절).
- (4) 과거의 은혜를 회상하는 것은 미래의 승리를 확신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 (5) 그리고 다윗은 그들에게 마음과 정신을 진정하여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것을 부탁하였다(19절).
- (6)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모든 것을 기쁘게 행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힘과 소망을 주시기 때문이다(참조, 시 33:18-20).

13. **㉠** ‘마음과 정신을 진정(鎮靜)하여’란 말은 무슨 뜻인가? (19절)

- ㉠** (1) ‘마음과 정신’은 온 인격을 가리킨다. 또한 ‘진정하여’란 말은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자신을 포기한다는 의미이다.
- (2)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추종하는 데 온 인격을 드리라는 뜻이다.
- (3)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은 헌신과 회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 (4) 사실 자신의 온 인격을 동원하지 않는 헌신과 봉사는 하나님을 우롱하는 죄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99%가 아니라 100%의 헌신이다.

제 23 장 레위인의 수효와 각자의 직무들

단락구분 1 다윗이 솔로몬을 후계자로 지명하다 / 2-6 레위인의 인구와 각자의 임무 / 7-11 게르손 자손 / 12-20 그핫의 아들들 / 21-23 므라리의 후손 / 24-32 레위인의 직분

- 1 다윗이 나이 많아 늙으매 아들 솔로몬으로 이스라엘 왕을 삼고
- 2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 3 레위 사람은 삼십 세 이상으로 계수하였으니 모든 남자의 명수가 삼만 팔천인데
- 4 그 중에 이만 사천은 여호와와 전 사무를 보살피는 자요 육천은 유사와 재판관이요
- 5 사천은 문지기요 사천은 다윗의 찬송하기 위하여 지은 악기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라
- 6 다윗이 레위의 아들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의 각 족속을 따라 그 반열을 나누었더라
- 7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 8 라단의 아들들은 족장 여히엘과 또 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요
- 9 시므이의 아들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족장들이며
- 10 또 시므이의 아들들은 야핫과 시나와 여우스와 브리아니 이 네 사람도 시므이의 아들이라
- 11 그 족장은 야하이요 그 다음은 시사며 여우스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저호와 한 족속으로 계수되었더라
- 12 그핫의 아들들은 아르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웃시엘 네 사람이라
- 13 아르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케 하여 영원토록 지극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며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을 받들어 축복하게 되었으며
- 14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 15 모세의 아들은 게르숨과 엘리에셀이라
- 16 게르숨의 아들 중에 스브엘이 족장이 되었고
- 17 엘리에셀의 아들은 족장 르하바라 엘리에셀이 이 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바의 아들들은 심히 많았으며

- 18 이스할의 아들들은 족장 슬로밋이요
- 19 헤브론의 아들들은 족장 여리야와 들째 아마라와 세째 야하시엘과 네째 여가므암이며
- 20 웃시엘의 아들들은 족장 미가와 그 다음 잇시아더라
- 21 므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요 마홀리의 아들들은 엘르아살과 기스라
- 22 엘르아살이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 형제 기스의 아들이 저에게 장가 들었으며
- 23 무시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에델과 여레못 세 사람이더라
- 24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종가를 따라 계수함을 입어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와 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이십 세 이상 된 족장들이라
- 25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 26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 쓰는 모든 기구를 뗄 것이 없다 한지라
- 27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이십 세 이상으로 계수 되었으니
- 28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에게 수종들어 여호와와 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케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일과
- 29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제물 곧 무교 전병이나 납비에 지지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 30 새벽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찬사하며 찬송하며
- 31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 명하신 규례의 정한 수효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 32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와 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1. ㉠ 본장의 중요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라.

- Ⓐ (1) 다윗은 이미 전장(前章)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관한 개괄적(概括的)인 내용을 솔로몬과 그 방백들에게 지시하였다.
- (2) 그리고 본장에는 자기의 생전에 정치적, 종교적으로 아들 솔로몬을 보좌할 기구를 정비함으로 새 왕국의 기초를 확립하려 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 (3) 그래서 본장과 다음 장에서는 성전의 직무를 수행하는 방법을 설정하고 그 일의 사무와 순서를 맡을 자들을 결정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 (4) 다윗 통치 초기의 불안정한 시대와 많은 전쟁이 있었던 때에는 아마 율법에 정해진 의식이 지켜져 오긴 했더라도 율법에 명시(明示)된 전내용들을 지키지는 못했을 것이다.
- (5) 이제 다윗은 왕으로서 또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권능과 명령에 의해서 필요한 것들을 질서 정연하게 배치하였다.
- (6)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이 새롭게 바로 서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질서 정연하게 배치되어야 한다.

2. ⓐ 다윗이 솔로몬을 자기 후계자로 지명할 때의 나이는 몇 살이었는가? (1절)

- Ⓐ (1) 다윗의 나이는 약 70세 정도 되었을 것이다(참조, 삼하 5:4).
- (2) 그는 자신의 기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1절) 자기가 죽은 후의 왕국의 번영과 안정을 위한 준비를 서둘렀다.
- (3) 그는 하나님의 약속(22:9)을 신뢰하고 평화의 아들 솔로몬을 자신의 후계자로 지명하였다.
- (4) 그 아들은 자신의 불륜(不倫)을 극복하고 낳은 아들로써(삼하 11:2-5; 12:24)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얻을 수 없었던 자식이었다.
- (5) 이와 같이 우리의 최후에 유일하게 남는 것은 우리의 늙어 빠진 명예나 지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명심하자.

3. ⓐ 다윗이 자신의 후계자를 지명할 때에 소집하였던 사람들은 누구인가? (2절)

- Ⓐ (1)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 (2) 이들을 불러 모은 이유는 이스라엘의 정치적, 종교적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였다.
- (3)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당신의 나라에 필요한 일꾼들을 모으고 계신다(참조, 마 9:35-38).
- (4)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야말로 주님의 제자로서 합당한 태도이다.

4. ⓐ 레위인들은 몇 살부터 성막(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었는가? (3-5절)

- Ⓐ (1) 레위인들은 30세부터 성막(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었으며 그 정년(停年)은 50세였다(민 4:3).
- (2) 그러나 25세가 되면 성막 일을 보좌하는 견습생으로서 일을 할 수 있었다(민 8:24). 또한 다윗 때에는 그 하한선(下限線)을 20세로 낮추었다(24절).
- (3) 그런데 다윗 때에 성전 봉사를 위해 소집되었던 30세 이상의 레위인들의 총수는 3만 8천 명이였다(3절).
- (4) 이들 중에 여호와의 전 사무(事務)를 담당한 자가 2만 4천 명이었고 유사(有司)와 재판관이 6천 명, 문지기가 4천 명 그리고 악기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가 4천 명이였다(4, 5절).

5. ⓐ 다윗이 레위인들에게 각각의 임무를 맡겼던 사실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3-5절)

- Ⓐ (1) 다윗이 이같이 각자의 임무를 분담시킨 것은 그들로 하여금 각자가 지닌 능력과 특기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하여 그 맡겨진 직분에 성실히 봉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참조, 사 9:8-13).

- (2) 또한 서로간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화롭게 일하게 하고 각자의 분야에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그 달란트에 따라 맡겨 주신 사명이 있다.
- (4)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사명을 조화롭게 수행해 나갈 때만이 하나님의 나라(교회)가 바로 설 수 있다(참조, 고전 12:12-31).

6. **Q** '여호와의 전 사무(事務)'란 무엇을 가리키는가? (4절)

- A** (1) 이것은 제사장들의 직무를 보조하는 일을 말한다(참조, 28-32절).
- (2) 그들은 주로 정신적인 노동보다는 육체적인 봉사에 힘썼다.
- (3)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날 육체 노동을 천하게 생각하는 노동관(勞動觀)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4) 하나님이 지으시고 제정하신 모든 것은 선하고 아름답다(참조, 딤후 4:4).

7. **Q** 레위인이 맡은 직책 중에 성전 이외에도 활동해야 하는 직책은 무엇인가? (4절)

- A** (1) 유사(有司)와 재판관이었다.
- (2) 즉 그들은 각 지파의 방백과 장로를 도와 사법권을 행사하는 역할도 전국 각지에서 수행했다.
- (3) 또한 그들은 장관(유사)의 직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며 백성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나갔다.
- (4)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활해야 하며 또한 그 말씀을 토대로 하여 판단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
- (5) 이렇게 말씀을 중심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 바로 목사요 교사요 장로들이다(참조, 딤후 2:1-3:11).

8. **Q** 다윗은 무슨 이유로 악기(樂器)를 만들었는가? (5절)

- A** (1)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약 4천 개의 악기를 만들었다(참조, 암 6:5).
- (2) 다윗이 만들도록 했던 악기들은 요즈음처럼 공명관(共鳴管)이 발달된 현악기나 다양한 음을 내는 관악기라고는 볼 수 없다.
- (3) 그러나 단순하고 통명스런 음들이지만 한꺼번에 4천 명이 그것을 연주할 때의 웅장함이란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 (4) 이와 같이 비록 우리의 목소리가 뛰어나지 못하더라도 온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될 것이다.

9. **Q** 레위의 아들들은 누구인가? (6절)

- A** (1)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였다(참조, 민 3:17).
- (2) 여기서 '게르손'이란 말은 '게르손 가문'의 사람들을 가리킨다.
- (3) 따라서 '라단'과 '시므이'는 게르손의 아들이라기보다는 몇 대 자손으로 추측된다.
- (4)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이러한 난제(難題)들을 깊은 연구 없이 단순히 처리해 버린다면 많은 오류를 범하게 될 것이다.

10. **Q** 시므이의 아들들이 어떻게 라단의 족장이 될 수 있는가? (7-9절)

- A** (1)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라단과 시므이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 우선이다.
- (2) 7절에 언급된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는 말은 이 두 사람이 동시대의 인물이라는 뜻이 아니라 시므이가 게르손 자손 중 라단 계통의 후손임을 의미한다.
- (3) 따라서 시므이의 아들들은 '라단의 족장들' 곧 라단 가문 출신의 족장이 될 수 있다.

11. **Q** 다윗은 레위인을 계수할 때 수효가 많지 않은 자손에 대해서는 어떻게 취급하였는가? (10, 11절)

- A** (1) 다윗은 수효가 많지 않은 두 자손을 하나로 합하여 계수하였다(11절).

- (2) 왜냐하면 힘이 약하고 수가 적은 자들을 합해 놓으면 큰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 (3)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합함을 아시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규합시키고 거기에서 큰 힘을 발휘하게 만드셨다.
- (4) 그런데 레위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재능은 모두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위해 쏟아야 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시는 단합된 힘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투자되어야 한다.

12. ㉠ 아론의 후손들은 어떠한 직책을 수행해야 했는가? (13절)

- ㉠ (1) 아론의 후손들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몸을 성결케 하여 영원토록 지극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께 분향하고 섬기며 그 이름을 받들어 백성에게 축복하는 일을 맡았다.
- (2) 즉 그들은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들이었다(참조, 레 8:1-10:20).
- (3) 그들의 사역은 가장 거룩한 자로서 온 인류에게 진정한 복을 선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한다(참조, 히 8:1-6).

13. ㉠ 아론 후손의 지위가 다른 후손보다 높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13절)

- ㉠ (1) 이것은 아론의 자기 부정(否定) 덕택이었다.
- (2) 즉 아론의 동생인 모세가 바로에게 신(神)이 되었을 때 아론은 그의 대변자로서 동생의 명령을 지키고 그가 명령한 대로 행하였다(출 4:10-16).
- (3) 아론은 결코 이에 대하여 논박하지 않았으며 자기가 손위 사람임을 주장하지도 않았다.
- (4) 단지 그는 하나님 앞에서 모세보다 못한 자로서 모세에게 복종했고 어떤 때에는 그에게 '내 주여'라고까지 하는 겸손을 보였다(출 32:22).
- (5) 아론이 이렇게 그의 손아래 사람에게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후손을 모세의 후손보다 높이셨다.
- (6) 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가장 훌륭한 방법으로 높이실 것이다(참조, 마 23:1-12; 빌 2:5-11).

14. ㉠ 본장에서는 모세를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14-20절)

- ㉠ (1)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다(14절).
- (2)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맡은 사람'(참조, 신 33:1; 수 14:6; 시 90편; 딤펴전 6:11)을 뜻한다.
- (3) 모세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릴 만큼 위대한 인물이었으나 그 자손들은 제사장직을 맡지 못하고 다른 가문과 동등한 위치에 있었다(15-20절).
- (4) 만약 모세가 하나님과 인간의 중간 위치에서 자기 가문을 권세와 재물로 높이려 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 지도 모른다.
- (5) 그러나 그는 이기적인 인간이 아니었으므로 그의 후손들에게 어떠한 특권도 남겨 놓지 않았다.
- (6)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있는 모든 교역자들에게 귀감(鑑鑒)이 될 만한 일이다.

15. ㉠ 출애굽 당시 므라리 자손들이 맡은 일은 무엇인가? (21-23절)

- ㉠ (1) 이들의 직무는 성막의 널판과 그 부속품을 관리하는 것이었다(참조, 민 3:36).
- (2) 즉 이들은 성막의 부속품들 중에서 가장 외부적인 것들을 맡아 운반하게 되었다(참조, 민 4:29-33).
- (3) 비록 이들이 하는 일이 이와 같이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사용하셔서 당신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 (4) 오늘날도 교회에서 아주 보잘것없는 일로 봉사하는 무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고 또한 영광 받으신다.

(5)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내의 직책에 따라 사람을 대우하거나 멸시해서는 결코 안 된다
(참조, 약 2:2-5).

16. **㉠** 다윗이 새로 제정한 법에는 레위인들이 몇 살부터 성전에서 봉사 하도록 되어 있었는가? (24-27절)

㉠ (1) 레위인들은 20세부터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었다(24절).

(2) 그들은 원래 30세가 되어야 공적인 봉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민 4:3).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고통을 겪는 일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들의 능력 이상을 맡기시지 않는다.

(3)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셨고(25절) 영원히 예루살렘에 그의 거처를 마련하셨으므로 성막과 비품들을 다른 곳으로 옮길 필요가 없었다(26절).

(4) 따라서 레위인들의 일은 매우 쉽게 되었고 20세에도 충분히 그 일들을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이를 낮추었다.

(5)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형편과 처지를 구체적으로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과제를 부과하시고 또한 능력을 제공하신다(참조, 창 22:1-19).

17. **㉠** 다윗의 유언(遺言) 중에서 나타난 신앙 고백은 무엇인가? (25절)

㉠ (1) 다윗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신다'고 고백하였다.

(2) 다윗은 장차 하나님의 성전이 이스라엘에 세워질 것을 확실히 믿고 이러한 고백을 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3)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제실 뿐 아니라 그들에게 평강도 제공하신다는 것이다.

(4)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무시한 채 교만과 허세를 일삼는 자들에게는 평강도 함께 하여 주시는 것도 허락하지 않는다.

(5)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과 허위의 탈을 벗어버리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이다(참조, 히 12:1, 2).

18. **㉠** 레위 사람들이 성막과 그 가운데서 쓰는 모든 기구를 뭘 필요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26절)

㉠ (1) 성전이 건축되어 모든 기구들이 한 곳에 영원히 정착되었기 때문이다.

(2) 즉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것이 예루살렘에서 이뤄져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의 이동이 필요 없게 되었다.

(3) 이러한 안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위에 큰 평안을 제공하시고자 했던 것이다.

(4)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안식은 인간에게 안정과 평안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확신을 제공한다(참조, 창 2:1-3).

19. **㉠** 다윗의 '유언' (遺言) 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는가? (27절)

㉠ (1) 다윗의 '유언' 에는 레위 자손들이 제도적인 보장 아래서 성전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2) 또한 다윗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건축 재료 준비 그리고 일꾼들의 분담을 명확히 하여 자신의 아들 대에는 성전이 건축될 수 있도록 지시하였다(22:2-5, 14; 29:2-5).

(3) 이 모든 예언은 자신의 감정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대언한 것뿐이다(참조, 28:12,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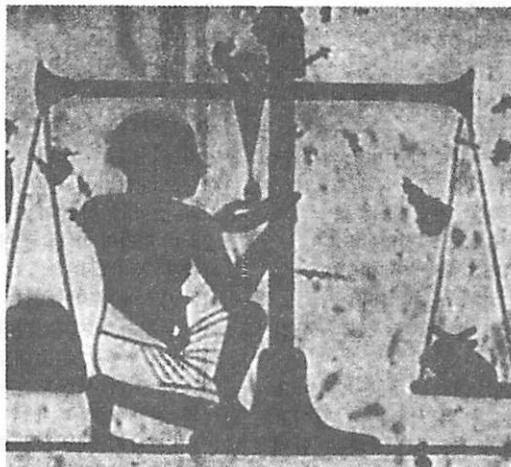
(4) 이처럼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남겨질 최후의 말도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밝히는 신앙적인 유언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는 분이다.

20. **㉠**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수행하여야 할 직분은 무엇인가? (28-32절)

- Ⓐ (1)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제사장)에게 수종들어 하나님의 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케 하는 일과 제사에 필요한 일체의 식물을 준비하는 것이었다(28, 29절).
- (2) 또한 유사와 재판관의 직책(4절)을 맡은 자들은 ‘저울과 자’의 역할을 했다(29절).
- (3)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은 아침 저녁 상번제(常燔祭)를 따라 월삭 때에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일을 담당하였다(30절).
- (4) 제사장들은 물론 제사 일을 수행하여야 했다(31절).
- (5) 마지막으로 문지기들은 회막과 성소의 직무를 수행해야 했으며 아론 자손(제사장)의 직무를 지켜 그 시중을 드는 일을 했다(32절).
- (6)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직분을 맡고 있었으나 그들의 관계는 ‘형제’로서 동등한 위치에 머물렀다(32절).
- (7) 이것은 오늘날 교회 제도 속에서도 다양한 직능(職能)들을 찾아볼 수 있지만 모두가 한 가족이며 동등한 자격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더욱 분명히 밝혀 준다(고전 12:12-31).

화보자료

저울을 다는 애굽인. 아래의 사진은 테베에서 출토된 느바문(Nebamun)과 이푸키(Ipuky)의 묘실 벽화 가운데 일부로서 현재 대영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B. C. 1380년경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본장에는 레위 자손들이 제사장들을 보좌하여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 가운데 특이한 것은 그들이 저울과 자를 맡고 있다는 점이다(29절). 성경에는 공평한 저울과 추를 사용할 것이 여러 번 강조되어 있다(참조, 레 19:35; 신 25:15).

제 24 장 레위인들을 24 반열(班列)로 나누다

단락구분 1-19 제사장들을 24반열로 나누다 / 20-31 일반 레위인들을 24반열로 구분하다

1 아론 자손의 반차가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 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2 나답과 아비후가 그 아비보다 먼저 죽고 아 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3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 손 아히멜렉으로 더불어 저희를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4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족장이 이다말의 자 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족장이 십 육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열 조의 집을 따라 여덟이라

5 이에 제비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 으니 이는 성소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 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6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 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족장 앞에 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서 한 집을 취하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취하였으니

7 첫째로 제비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8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스오림이요

9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10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아요

11 아홉째는 예수야요 열째는 스가냐요

12 열 한째는 엘리아십이요 열 둘 째는 야김 이요

13 열 셋째는 흠바요 열 넷째는 예세브압이요

14 열 다섯째는 빌가요 열 여섯째는 임멜이요

15 열 일곱째는 헤실이요 열 여덟 째는 합비 세스요

16 열 아홉째는 브다히야요 스무째는 여헤스 겔이요

17 스물 한째는 야긴이요 스물 둘째는 가물이요

18 스물 셋째는 들라야요 스물 넷째는 마아시 야라

19 이와 같은 반차로 여호와와의 전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희 조상 아론에 게 명하신 규례대로 수종들었더라

20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르 람의 아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 중 에는 예드며

21 르하비에게 이르러는 그 아들 중에 족장 잇 시야요

22 이스할의 아들 중에는 슬로못이요 슬로못 의 아들 중에는 야핫이요

23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 마라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므람이요

24 옷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 중 에는 사밋이요

25 미가의 아우는 잇시야라 잇시야의 아들 중 에는 스가라며

26 므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요 야아시 야의 아들들은 브노니

27 므라리의 자손 야아시아에게서 난 자는 브 노와 소함과 삭굴과 이브리요

28 마홀리의 아들 중에는 엘르아살이니 엘르 아살은 무자하며

29 기스에게 이르러는 그 아들 여라므엘이요

30 무시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에델과 여리못이 니 이는 다 그 족속대로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31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 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족장 앞에서 그 형제 아 론 자손처럼 제비뽑혔으니 장자의 종가와 그 아 우의 종가가 다름이 없더라

1. ㉠ 본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 ㉡ (1) 본장에는 제사장들과 일반 레위인들을 각 계층으로 보다 세밀하게 분류해 놓고 있다.
 (2) 이처럼 레위인들을 세분한 이유는 그들의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였다.
 (3) 즉 레위인들을 이렇게 분류한 것은 분파 의식을 조장(助長)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

나님의 일을 더욱 조직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처이다.

(4) 이와 같은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기 다른 재능과 환경을 허락하셨다.

(5) 그러므로 우리는 부조화스러운 각자의 재능들을 동원하여 조화롭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 본장은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가? (1절)**

㉡ (1) '아론 자손의 반차(班次)가 이러하니라' 로 시작되고 있다.

(2) 이렇게 반차를 구분한 것은 서로를 분리해 놓거나 간격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각자가 맡은 일을 분명히 해두기 위한 구분이었다.

(3)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특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4) 무질서한 다수는 방해와 혼돈의 원인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각자가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알고 지킬 줄 안다면 큰 힘이 나타날 것이다.

(5) 우리의 신비스런 몸(교회)에도 많은 지체들이 있으나 각기 전체의 선을 도모하고 있기에 아름답고 건강하다(참조, 롬 12:4, 5; 고전 12:12).

3. **㉠ 나답과 아비후가 그 아비 아론보다 먼저 죽은 이유는 무엇인가? (2절)**

㉡ (1) 하나님의 규례를 업신여기고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焚香)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었기 때문이다(레 10:1-3).

(2) 즉 그들은 순수치 못한 마음과 동기로 하나님을 섬기려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부하셨다.

(3) 그러므로 우리의 안전은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수행하는데 있음을 깨닫고 날마다 그의 뜻을 추구하는데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

4. **㉠ 다윗 시대 때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였던 가문은 어느 가문인가? (2-4절)**

㉡ (1)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가문이었다(2절).

(2) 엘르아살 가문에서는 16명의 족장이 그리고 이다말 가문에서는 8명의 족장이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였다(4절).

(3) 이처럼 이다말 가문이 상대적으로 엘르아살 가문보다 절반밖에 되지 않은 것은 아마도 엘리의 집안에 하나님의 진노가 가해진 이래로 엘리의 혈통인 이다말의 집이 쇠퇴했기 때문일 것이다(참조, 삼상 4:1-22).

(4) 여하튼 이렇게 뿔뿔히 제사장들은 24반열로 나누어져 각 반열이 안식일 아침부터 한 주간 동안 1년에 2번씩 그 직임을 각각 수행하였다.

(5) 이런 제도는 바벨론 포수 이후 재정립되었고 신약 시대까지 계속되었다(참조, 눅 1:5).

5. **㉠ 다윗은 24명의 제사장들을 어떻게 구분하여 차례대로 봉사하게 했는가? (5절)**

㉡ (1) 다윗은 '제비를 뽑아' 이들을 구분하고 각각의 순서에 따라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했다.

(2) 제비뽑기는 공개적으로 왕과 방백들과 제사장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엄숙히 정해졌으므로 거기에는 부정이 개입되거나 의심할 여지가 조금도 없었다(6절).

(3) 또한 제비뽑기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일이었으므로 경외함과 진지함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했다. 신약에서의 맛디아는 사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는 후 제비를 뽑음으로써 사도로 선택되었다(행 1:24, 26).

(4)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 이런 방법은 합당치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완전한 모습으로 놓여 있기 때문이다(참조, 딤후 3:15-17).

6. **㉠ 24명의 제사장들이 선택된 목적은 무엇인가? (6-19절)**

㉡ (1) 그들이 하나님에게 선택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전)에 봉사하기 위해서였다.

(2)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 내에서 교사와 목사와 장로로 그리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게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영예와 안일을 추구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즉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이 맡겨 주신 삶을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다(마 6:33).

7. **㉠** 제비로 뽑혀진 24명의 제사장들의 봉사 순서를 도표화하라(6-19절).

㉠ (1)

순서	이름	이름의 뜻
1	여호야림	여호와께서 대신 싸우신다
2	여다야	여호와께서 알고 계신다
3	하림	바치지다
4	스오림	보리
5	말기야	여호와께서 왕이시다
6	미야민	오른손에서
7	학고스	가시
8	아비아	여호와와는 아버지
9	예수아	여호와와는 구원
10	스가나	여호와께서 머물다
11	엘리아십	하나님이 회복하시다
12	야김	여호와께서 일으키시다
13	홉바	덮개
14	예세브압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15	빌가	기쁨
16	임멜	양
17	헤실	돼지
18	합비세스	박살내다
19	브다히야	여호와께서 열으셨다
20	여헤스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다
21	야긴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22	가물	보상해 준다
23	들라야	여호와께서 구원해 주셨다
24	마아시아	여호와와는 피난처

(2) 본서의 기자가 이처럼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빠짐없이 기록한 것은 성경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책임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8. **㉠** 제사장직을 수행할 아론 자손을 제외한 나머지 레위인들은 주로 어떠한 일을 담당하였는가? (20-31절)

㉠ (1) 그들은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 의식을 행하는 제사장들을 돕는 일과 찬송하는 일 그리고 백성들의 양심으로서 백성들을 인도하는 임무를 맡았다(참조, 23:14-32).

(2) 비록 그들이 제사장과는 차이가 나는 일을 수행하였지만 그들은 제사장들을 그들의 지배자로서가 아니라 형제로서 긴밀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며 기록한 일을 수행해 나갔다(23:32).

(3)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맡는다는 것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계급을 둔다는 것이 아니라 각각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즉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이냐 자유인이나 순위 사람이나 손아래 사람의 차이가 없다 (참조, 고전 12:13; 갈 3:28).

(5)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는 가장 겸손한 위치에서 온 무리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참조, 뱀전 5:3).

9. **㉠** 다윗은 성전에서 봉사할 레위인들을 어떻게 선별하였는가? (20-31절)

㉠ (1) 다윗은 백성의 지도자들과 더불어 제사장 선별 때와 마찬가지로 '제비'를 뽑아 레위인들을 선별했다(31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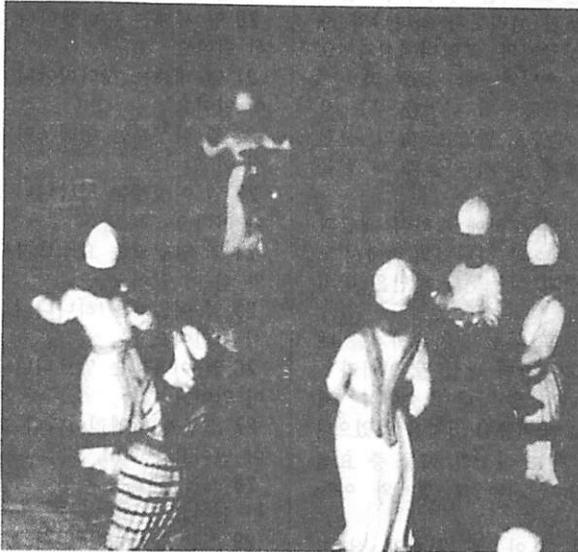
(2) 구약 시대에 있어서 제비를 뽑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 한 방법이었다.

(3)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 할 수 없는 일로서 모든 결정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4)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목사, 장로 등)들을 치밀한 계산 속에서 마구 뽑아내는 그릇된 현상과 매우 대조적이다.

화보자료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 아래의 사진은 암스텔담 성경 박물관에 있는 제사장들의 모형이다.



24반열로 나누어진 제사장들은(4절) 각기 맡은 기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책임을 맡았다. 물론 이러한 역할 분담은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루어졌다(5절).

제 25 장 다윗이 찬양대를 세우다

단락구분 1 찬양대의 주축이 될 아삽, 헤만, 여두둔 자손 / 2-7 성전 찬양대의 수요와 그 직무 / 8-31 제비로 결정된 직임 순서

1 다윗이 군대 장관들로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제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부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2 아삽의 아들 중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수하에 속하여 왕의 명령을 좇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3 여두둔에게 이르러는 그 아들 그달리야와 스리와 여사야와 하사바와 맛디디야 여섯 사람이니 그 아버지 여두둔의 수하에 속하여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4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 아들 북기야와 맛다냐와 웃시엘과 스브엘과 여리못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디와 로암디에셀과 요스브가사와 말로디와 호달과 마하시웃이라

5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께서 헤만에게 열 네 아들과 세 딸을 주셨더라

6 이들이 다 그 아버지의 수하에 속하여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서 노래하여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수하에 속하였으니

7 저희와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이백 팔십 팔 인이라

8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무른하고 일례로 제비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9 첫째로 제비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야니 저와 그 형제와 아들 십 이 인이요

10 셋째는 삭굴이니 그 아들과 형제와 십 이 인이요

11 넷째는 이스리니 그 아들과 형제와 십 이 인이요

12 다섯째는 느다냐니 그 아들과 형제와 십 이 인이요

13 여섯째는 북기야니 그 아들과 형제와 십 이 인이요

14 일곱째는 아사렐라니 그 아들과 형제와 십 이 인이요

15 여덟째는 여사야니 그 아들과 형제와 십 이 인이요

16 아홉째는 맛다냐니 그 아들과 형제와 십 이 인이요

17 열째는 시므이니 그 아들과 형제와 십 이 인이요

18 열 한째는 아사렐이니 그 아들과 형제와 십 이 인이요

19 열 둘째는 하사바니 그 아들과 형제와 십 이 인이요

20 열 셋째는 수바엘이니 그 아들과 형제와 십 이 인이요

21 열 넷째는 맛디디야니 그 아들과 형제와 십 이 인이요

22 열 다섯째는 여리못이니 그 아들과 형제와 십 이 인이요

23 열 여섯째는 하나냐니 그 아들과 형제와 십 이 인이요

24 열 일곱째는 요스브가사니 그 아들과 형제와 십 이 인이요

25 열 여덟째는 하나니니 그 아들과 형제와 십 이 인이요

26 열 아홉째는 말로디니 그 아들과 형제와 십 이 인이요

27 스무째는 엘리아다니 그 아들과 형제와 십 이 인이요

28 스물 한째는 호달이니 그 아들과 형제와 십 이 인이요

29 스물 둘째는 깃달디니 그 아들과 형제와 십 이 인이요

30 스물 셋째는 마하시웃이니 그 아들과 형제와 십 이 인이요

31 스물 넷째는 로암디에셀이니 그 아들과 형제와 십 이 인이었던라

1. ㉠ 본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하라.

㉡ (1) 다윗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성전 봉사 순서를 정해 놓은 후 (24장) 이제 본장에서는 성

전에서 노래 부르는 일과 연주하는 일을 맡을 자들을 정해 놓았다.

- (2) 찬양대 구성에 대한 내용은 이미 6:31-48에 언급되어 있으나 본장에는 더 자세하게 그 문제를 다루고 있다.
- (3) 이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있어서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가를 보여 주는 것이다.

2. **㉠** 다윗이 성전 성가대를 창설한 이유는 무엇인가? (1-7절)

- ㉠** (1) 다윗이 성전 성가대를 창설한 이유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기 위해서였다(3절).
 (2)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품안으로 부르신 이유도 우리를 통하여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려는 이유에서이다(참조, 빌 2:10, 11).
 (3) 그러므로 오늘날 복음적인 교회에서는 마땅히 찬양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엡 5:19).
 (4) 만약 찬양이 사라진 교회나 찬송을 잊어버린 입술이 있다면 그것은 사단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3. **㉠** '군대 장관'은 누구를 말하는가? (1절)

- ㉠** (1) 여기 나오는 '군대 장관'이란 성전 봉사하는 자들의 지도자들을 가리킨다.
 (2) 즉 성전을 위해 택정된 레위인들의 우두머리(사독, 아히멜렉)를 뜻한다(15:16; 24:3).
 (3)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맡겨 주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혼자 힘으로 꾸러가지 않고 모든 사람의 지혜를 모았다.
 (4) 이러한 왕이야말로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 간다. 그렇지 않고 자신의 고집과 계획으로만 한 공동체를 인도하려는 지도자는 자신 뿐 아니라 공동체를 파멸로 이끌고 만다.

4. **㉠** 다윗은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을 구별하여 어떠한 일을 맡겼는가? (1절)

- ㉠** (1) 다윗은 이들에게 수금과 비파와 제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2) 여기서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했다는 것은 '예언'을 하게 했다는 의미이다.
 (3) 즉 이들의 신령한 노래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 표현된 것이므로 예언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때때로 이 예언을 성령께서는 시나 음악과 더불어 주셨던 것으로 보인다(참조, 삼상 10:5).
 (4) 우리가 '신령한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의 충만함, 즉 성령의 완전한 지배를 받아야 한다(참조, 엡 5:18-20).

5. **㉠** 다윗이 만들었던 성가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누구인가? (1절)

- ㉠** (1)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다(참조, 6:31-48).
 (2) 먼저 선견자라고 불리었던 아삽은 시편 중 12편의 시를 지었으며(대하 29:30; 시 50:1-23; 73:1-83:18) 노래에 뛰어난 자였다.
 (3) 그리고 헤만은 고라 계통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의 손자이기도 했다(6:33; 15:17).
 (4) 또한 여두둔은 단순히 선견자(대하 29:30)라는 사실만 알려져 있을 뿐 특이할 만한 것은 밝혀져 있지 않다. 대신 그의 이름과 관련된 시가 몇 편 있다(시 39, 62, 77편).
 (5) 이들 세 사람은 이스라엘 음악의 지도자로서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훌륭한 재질을 전수하였다(2-31절).
 (6) 그런데 이들 성가 대원들은 제사장 못지 않는 대우를 받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은 신분(죄인)이며 다 같은 봉사자이기 때문이다.

6. **㉠**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은 각각 몇 명의 아들을 두고 있었는가? (2-4절)

- ㉠** (1) 아삽은 삭굴을 비롯해 4명의 아들을 두었고 여두둔은 그달리야 등 6명, 헤만은 북기야와 마하시웃에 이르기까지 14명이나 되었다.
 (2) 이들 세 사람은 자신의 아들들을 모두 성전 성가 대원으로 키웠다.

- (3) 이것은 자식들을 교육하는 부모나 후배들을 지도하는 선배들에게 후세대에게 전해 줄 것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특히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보다 더 필요하고 귀중한 일이 없음을 암시해 준다.
- (4) 우리의 가정에 날마다 찬송이 흘러 넘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왜냐하면 찬송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만이 부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7. **㉠** 헤만의 아들들이 아삽과 여두둔의 아들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2-5절)

- ㉠** (1) 헤만의 아들들은 모두 '나팔을 부는 자' 들이었다(5절).
- (2) 여기서 '나팔을 분다'란 '뿃을 쳐든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 (3) 이 말씀은 헤만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재능이 다분했음을 가리킨다.
- (4)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아는 자만이 능력있는 찬송을 부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 말씀에 의한 생활을 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

8. **㉠** 다윗은 노래 부를 자들의 직임(職任)을 어떻게 정하였는가? (7, 8절)

- ㉠** (1) 다윗은 그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무론하고 한결같이 제비를 뽑아 그 직임을 맡겼다(8절).
- (2) 다윗이 선택했던 지도자급의 성가 대원들은 288명이었으며(7절) 그 제자적인 성가 대원들은 4,000명이나 되었다(23:5).
- (3) 이렇게 많은 식구를 가진 성가대는 아름다운 음악성과 인간적인 화합과 합력이 절실히 요청되었다.
- (4) 이런 의미에서 다윗은 그 직임을 맡길 때 인간적인 지위를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는 공평함으로 그들을 대우하였다.
- (5) 아무리 아름다운 찬양이라 하더라도 부르는 자들의 마음이 분열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받으시지 않는다(참조, 사 1:10-17; 마 5:23-26).

9. **㉠** 다윗이 직임을 구분하기 위해 뽑았던 대표적인 24명의 성가 대원을 그 순서에 따라 도표화하라(8-31절).

㉠ (1)

순번	이름	소속	이름의 뜻
1	요셉	아삽의 둘째 아들	여호와께서 더하실 것이다.
2	그달리야	여두둔의 맏아들	여호와는 위대하심
3	삭굴	아삽의 맏아들	순결
4	이스리	여두둔의 둘째 아들	여호와께서 형성하셨다
5	느다나	아삽의 세째 아들	여호와께서 주시다
6	북기야	헤만의 맏아들	여호와의 그릇
7	여사렐라	아삽의 막내	하나님께서 채우셨다
8	여사야	여두둔의 세째 아들	여호와는 구원하심
9	맛다나	헤만의 둘째 아들	여호와의 선물
10	시므이	여두둔의 막내	들어주심
11	아사렐	헤만의 세째 아들	하나님께서 도우심
12	하사바	여두둔의 네째 아들	여호와께서 생각하셨다
13	수바엘	헤만의 네째 아들	오 하나님 돌아오소서
14	맛디디아	여두둔의 다섯째 아들	선물
15	여레못	헤만의 다섯째 아들	높은 곳들
16	하나나	헤만의 여섯째 아들	여호와께서 은혜로우시다

17	요스브가사	헤만의 열한째 아들	하나님께서서 어려운 운명을 가져 오신다
18	하 나 니	헤만의 일곱째 아들	은혜로움
19	말 로 디	헤만의 열두째 아들	내가 말했다
20	엘 리 아 다	헤만의 여덟째 아들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21	호 달	헤만의 열세째 아들	그가 남아 있게 하였다
22	깃 달 디	헤만의 아홉째 아들	나는 위대하게 되었다
23	마 하시 웃	헤만의 열네째 아들	환상들
24	로담디에셀	헤만의 열째 아들	나는 도움을 일으키게 했다

(2) 이상의 이름들은 거의 다 하나님을 중심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3) 그러므로 그 당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인 생활을 했음을 볼 수 있다.

10. ㉠ 24명의 성가 대원 명단 가운데 공통적으로 따라 다니는 문구는 무엇인가?(9-31절)

㉠ (1)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라는 말이다.

(2) 이와 같이 가족 공동체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생활 중심이 되었다는 말이다.

(3) 아마도 이들 12명 가운데 어떤 자들은 노래를 또는 악기 연주를 했을 것이다(6절).

(4)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기능 속에 뚜렷한 공동체 의식이 살아 있을 때만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 된다.

연구자료

여호와 찬양에 사용된 악기들. 다윗이 기초를 놓았으며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 절정을 이룬 이스라엘의 성가대 및 찬양 예배 제도(참조, 1-31절)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B. C. 586)까지 지속되었다. 이러한 예배의 찬양은 물론이고 이외의 일상적이고도 개인적인 여호와 찬양과 관련하여 히브리인들은 여러 악기를 사용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악기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비파: 히브리어로 <네벨>이라고 하는 이 현악기는 역사서(삼상 10:5; 왕상 10:12; 대하 9:11)와 시편(33:2; 57:8; 92:1-3)에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 일종의 하아프이다. ② 수금: 히브리어로는 <킨노르>라고 하며 역사서(삼상 16:23; 삼하 6:5), 시편(43:4; 71:22; 137:2), 이사야서(5:12; 23:26; 30:32) 등에 많이 언급되어 있다. 대개는 6줄로 이루어져 있다. ③ 제금: 히브리어로 <므칠타임> 또는 <첼출림>으로 불리는 이 악기는 심벌즈의 일종으로서 본서(13:8; 15:16; 16:5)에 많이 나온다. ④ 양금: 히브리어로 <므나아느임>이라고 하는 이 악기(삼하 6:5)는 오늘날의 탬버린과 같은 것이다. 이 외에도 자주 사용된 악기로는 작은 북(출 15:20; 삼상 18:6; 시 81:2)이 있으며 신호용으로 쓰이던 나팔도 때때로 악기로 사용되곤 하였다(시 98:6).

제 26 장 다윗이 문지기와 유사(有司)와 재판관을 임명하다

단락구분 1-11 레위인 중 문지기의 반차(班次) / 12-19 문지기의 담당 구역 / 20-28 레위인 중에 참고를 맡은 자들 / 29-32 레위인 중에 유사와 재판관을 임명하다

1 문지기의 반차가 이러하니라 고라 조속 아삽의 자손 중에 고례의 아들 므셀레마와

2 므셀레마의 아들들 만아들 스가라와 둘째 여디아엘과 셋째 스바다와 넷째 야드니엘과

3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내며

4 오벰에돔의 아들들 만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야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벨과

5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잇사갈과 여덟째 브올래대니 이는 하나님께서 오벰에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며

6 그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저희의 족속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7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가는 능력이 있는 자니

8 이는 다 오벰에돔의 자손이라 저희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벰에돔에게서 난 자가 육십 이 명이며

9 또 므셀레마의 아들과 형제 십 팔 인은 능력이 있는 자며

10 므라리 자손 중 호사가 아들들이 있으니 그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만아들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장자를 삼았고

11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라니 호사의 아들과 형제가 십 삼 인이더라

12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와의 전에서 섬기는 자라

13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 종족을 따라 무론대소하고 다 제비뽑혔으니

14 셀레마는 동방에 당첨되었고 그 아들 스가라는 명철한 의사라 저를 위하여 제비뽑으니 북방에 당첨되었고

15 오벰에돔은 남방에 당첨되었고 그 아들들은 곳곳에 당첨되었으며

16 습빔과 호사는 서방에 당첨되어 큰 길로 통한

살갓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17 동방에 레위 사람이 여섯이요 북방에 매일 네 사람이요 남방에 매일 네 사람이요 곳곳에는 둘씩이며

18 남실 서편 큰 길에 네 사람이요 남실에 두 사람이니

19 고라와 므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반차가 이러하였더라

20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을 맡았으며

21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족장은 여히엘리라

22 여히엘리의 아들은 스담과 그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와의 전 곳을 맡았고

23 아르람 자손과 이스할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웃시엘 자손 중에

24 모세의 아들 게르숨의 자손 스브엘은 곳곳을 맡았고

25 그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 아들 르하바와 그 아들 여사야와 그 아들 요람과 그 아들 시그리야와 그 아들 슬로못이라

26 이 슬로못과 그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곳곳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족장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장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27 저희가 싸울 때에 노략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와의 전을 중수하게 한 것이며

28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벨의 아들 아브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무론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 못과 그 형제의 수하에 있었더라

29 이스할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 아들들은 이스라엘 바깥 일을 다스리는 유사와 재판관이 되었고

30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바와 그 동족 용사 일천 칠백 인은 요단 서편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말았으며

31 헤브론 자손 중에 여리야가 그 세계와 족속대로 헤브론 자손의 족장이 되었는데라 다윗이 위에 있는지 사십 년에 길르앗 야셀에서 그 족속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32 그 형제 중 이천 칠백 명이 다 용사요 족장이라 다윗 왕이 저희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1. **㉠ 본장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 ㉠ (1) 본장에는 레위인의 직무 가운데 문지기와 창고지기 그리고 백성들의 지도자(유사)와 재판관직에 대하여 언급되어 있다.
 (2) 레위 지파는 사사 시대를 거쳐서 엘리와 사무엘이 등장하기까지는 매우 보잘것없는 위치에 머물렀었다.
 (3) 그러나 다윗이 왕위에 오르자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가 감히 따를 수 없을 만큼의 위치를 확보하게 되었다.
 (4) 이처럼 다윗 시대에 레위인들이 부각된 사실로 볼 때 그 당시 종교적인 열심이 얼마나 컸는지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5)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이 가끔 대중 매체를 통해 오르내리는 것도 그만큼 하나님의 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대변해 주는 것이다.
 (6) 그러나 이러한 때에 사단의 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명심하자.

2. **㉠ 다윗 시대에 문지기로 봉사했던 레위인은 모두 몇 명인가? (1절)**

- ㉠ (1) 다윗 시대에 문지기는 4,000명이었다(참조, 23:5).
 (2) 그들은 성전으로 통하는 통로를 밤낮으로 지켰으며 모든 문을 통제했고 울레를 행하기 위해 성소의 뜰에 경배하러 오는 자들을 인도하는 일을 맡았다.
 (3) 또한 그들은 이방인들과 부정한 자들이 오면 되돌려 보냈고 하나님의 전에 피해를 주는 자들을 엄중히 감시하였다(참조, 민 1:53).
 (4) 이러한 문지기 직책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예표한다. 즉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지키는 진리의 파수군으로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위치해 있는 자들이다.
 (5) 그러므로 우리들은 충실한 그리고 늘 승리하는 파수군이 되기 위해서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한다(참조, 엡 6:10, 11).

3. **㉠ '고라 족속'은 어느 계통에 속한 자들인가? (1절)**

- ㉠ (1) '고라 족속'은 고향 자손 중 이스힐의 아들 고라의 후손들이다(민 16:1).
 (2) 사실 고라는 하나님과 모세를 무시한 처사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었다(민 16:31-33).
 (3) 그러나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잘 보존되었으며 성전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았다. 더우기 그들이 지은 시편(시 42, 44-49, 84, 85, 87, 88편)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경건한 인물들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
 (4) 이처럼 조상이 불경건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손은 하나님으로부터 언정을 받고 사는 훌륭한 신앙인들이었다.
 (5) 그러므로 우리의 어려운 처지를 조상과 환경 탓으로 돌리는 행위는 한낱 핑계에 불과하다.

4. **㉠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로 오벰에돔에게 복을 주셨는가? (5절)**

- ㉠ (1) 오벰에돔은 그의 집에 3달 동안 법궤를 안치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삼하 6:10, 11).
 (2) 이러한 오벰에돔에게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녀를 많이 선사하셨다.
 (3) 사실 오벰에돔은 그가 적극적으로 법궤를 모셔 온 것이 아니라 단지 자기집에 들어오

는 법계를 모셨을 뿐이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하셨는데 이것은 복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는 사건이다(참조, 창 1:22, 28; 2:2; 민 6:27; 엡 1:3).

5. **㉠** 문지기 므셀레마와 오벰에돔의 아들들을 도표화하라(1-5절).

㉠

이 름	소 속	이름의 뜻
스 가 라	므셀레마의 맏아들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
여 디 야 엘	“ 둘째 아들	하나님을 암
스 바 다	“ 세째 아들	여호와께서 심판하셨다
야 드 니 엘	“ 네째 아들	하나님의 계속하심
엘 람	“ 다섯째 아들	감추인 곳
여 호 하 난	“ 여섯째 아들	여호와께서는 은혜로우심
엘여호에내	일곱째 아들	내눈이 여호와를 향한다
스 마 야	오벰에돔의 맏아들	여호와는 들어주심
여 호 사 바	“ 둘째 아들	여호와께서 판단하심
요 아	“ 세째 아들	여호와께서 형제가 되심
사 갈	“ 네째 아들	보상
느 다 벨	“ 다섯째 아들	하나님께서 주심
암 미 엘	“ 여섯째 아들	하나님의 백성
잇 사 갈	“ 일곱째 아들	고용하다
브 올 래 대	“ 여덟째 아들	하나님의 상급

6. **㉠** 다윗 왕 때 성전 문지기 역할을 했던 므셀레마의 자손과 오벰에돔 자손들은 모두 어떠한 인물이었는가? (6-9절)

㉠

- (1) 그들은 모두 '큰 용사'였으며 능력을 갖추었고 '직무를 잘하는 자'였다.
- (2) 그러므로 그들은 성전 문지기로서 적절한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
- (3)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들이었을 뿐 아니라 백성에게도 존경받는 지도자들이었다(6절).
- (4) 이처럼 그들이 모든 일에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 (5) 이와 같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은 '능력'의 유무(有無)에 있으며 이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다(참조, 시 62:11; 행 1:8; 빌 4:13).

7. **㉠** 프라리의 자손 중에서 그 서열상 순서를 달리한 사람은 누구인가? (10절)

㉠

- (1) 시므리였다. 그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었으나 그 아버지가 그를 장자(長子)로 삼았다.
- (2) 이와 같이 서열의 순서를 바꾼 이유는 아마도 시므리가 매우 뛰어난 인물이었거나 맏아들이 매우 유약한 자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3) 즉 그를 장자로 삼은 것은 재산을 상속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일(문지기)을 하기에 적합한 자였기 때문이다.
- (4) 왜냐하면 장자의 권리를 다른 아들에게 이양(移讓)하는 것은 율법이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참조, 신 21:16, 17).
- (5) 이런 일은 영적인 차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맏아들격인 이스라엘에게만 맡기셨던 당신의 일을 이방인들도 택하여 나라를 건설해 가신다(참조, 롬 2:24-29; 3:28-30).

8. **㉠** ‘문지기의 반장(班長)’이란 누구를 말하는가? (12절)

- ㉠** (1) ‘큰 용사’요 ‘능력있는 자’며 ‘직무를 잘 감당하는 자’들을 말한다.
 (2) 그들은 비록 직함이 ‘반장’이었으나 그들이 맡은 임무는 다른 동료들과 같은 일이었다.
 (3) 이것은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종의 신분엔 불과하다는 사실을 가리켜 준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겸손한 위치에 서야 한다.
 (4) 즉 하나님 나라에서 얻은 직분은 권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만 책임이 따르는 것이다.

9. **㉠** 다윗은 성전 문지기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구분하여 배치하였는가? (13-19절)

- ㉠** (1) 다윗은 문지기들도 제사장과 성가 대원들처럼 제비뽑기로 그들의 자리를 결정하였다 (24:5;25:8).
 (2) 다윗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었다(잠 16:33).
 (3)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계획보다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하였다.
 (4)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일들을 경영해 가신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의 일부분이다(참조, 시 11:4).

10. **㉠** ‘명철한 의사(讖士)’란 무슨 뜻인가? (14절)

- ㉠** (1) 이것은 ‘지혜 있는 조언자’라는 의미이다.
 (2) 이들이 비록 지혜롭고 훌륭한 특질들을 소유하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전 문지기역을 기꺼이 담당한 것은 이들의 겸손을 보여 주는 것이다.
 (3) 이처럼 신약 시대의 모든 교역자들은 자신이 아무리 뛰어난 기능과 재질을 가졌다 할 지라도 하나님이 맡겨 주신 일이라면 어떠한 자리에서도 감사하며 그 일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4) 예수께서는 이 일에 친히 모범을 보이셨다(참조, 요 13:4, 5; 빌 2:5-8).

11. **㉠** ‘하나님의 전 공간’은 어떤 곳인가? (20절)

- ㉠** (1) ‘하나님의 전 공간’은 백성들이 바친 헌물과 성전 기구들을 보관해 두는 창고를 말한다(참조, 29:7, 8; 레 27장; 민 18:16).
 (2) 즉 이곳에는 제사에 필요한 예복과 그릇들 이외에 매일 사용될 밀가루, 포도주, 기름, 소금, 연료, 그리고 백성들이 여호와께 드린 예물들이 보관되어 있다.
 (3) 또한 이같이 풍부한 공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집에 있는 풍족함을 예표하기도 한다(참조, 말 3:10-12).
 (4) 그리고 참된 성전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원한 생명과 지혜와 지식의 공간이 있어 헤아릴 수 없는 풍요함이 숨겨져 있다(참조, 요 4:13, 14; 골 2:3).

12. **㉠** ‘성물(聖物) 공간’이란 어떤 곳인가? (20절)

- ㉠** (1) ‘성물 공간’은 전쟁에서 탈취해 온 물건을 보관해 둔 창고이다(참조, 18:11; 대하 5:1).
 (2)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감사하는 마음에서 전쟁 중 노략하여 얻은 물건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쳤다(참조, 수 6:24; 삼하 8:7-12).
 (3) 즉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노략물 중 10분의 1을 주었으며(히 7:4) 모세 시대에도 싸움에서 승리하여 돌아온 자들이 노략물을 여호와께 드렸다(민 31:50).
 (4)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면 주실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물질과 마음을 더욱 많이 투자해야 할 것이다.
 (5) 즉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성공은 그에 비례하는 대가를 요구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서는 더 많은 감사의 제물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기 때문이다(참조, 말 3:10).

13. **㉠** 성전 고간(庫間)을 맡았던 스브엘은 누구의 후손인가? (24절)

- ㉠** (1) 스브엘은 게르숨 계통으로서 모세의 후손이었다.
 (2) 한편 스브엘의 조상인 게르숨의 할례 사건으로 인해 게르숨의 아버지 모세는 하나님으

로 부터 노여움을 산 적이 있었다(참조, 출 2:22;4:24-26).

- (3) 또한 모세의 후손들은 아버지의 훌륭한 신앙 인격을 전수받지 못하고 단에 있는 성소에서 이방 신을 섬기는 경박함을 보였다(삿 18:29-31).
- (4) 그러나 본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들 모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만족할 만한 위치에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 (5)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불의를 어떻게 심판하시며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를 보여 준다(참조, 출 20:5,6;34:6,7;민 14:18;신 5:9,10).

14. **㉠** 이스할 자손 중에 그나나와 그 아들들은 어떠한 일을 맡았는가? (29절)

- ㉠** (1) 그들은 유사(有司)와 재판장이 되어 이스라엘 바깥 일을 다스렸다.
- (2) 즉 그들은 이스라엘 내의 모든 살림을 꾸려가는 행정적·법적 업무를 수행하였다.
- (3) 이들은 모두 6,000명에 달했으며(23:4) 전국에 산재(散在)하여 모든 일을 율법에 기초하여 처리해 나갔다.
- (4) 이처럼 레위인들은 그들 중 어떤 자들은 종교적인 일에 그리고 어떤 자들은 비종교적인 일에 전념하여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해 봉사하였다.
- (5)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각자가 처한 위치에서 제각기 맡은 바를 수행해 나가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한 것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참조, 고전 10:31).

15. **㉠**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바와 그 동족 용사 1,700명은 어떤 일을 수행하였는가? (30절)

- ㉠** (1) 그들은 요단 서편에서 이스라엘을 주관(主管)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분을 수행하였다.
- (2) 즉 그들은 종교적인 일과 세속적(世俗的)인 일을 동시에 수행하였다.
- (3) 이것은 다윗의 통치 원리가 철저히 하나님 중심주의였음을 보여 준다.
- (4)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의미에서 성(聖)과 속(俗)의 중간에 위치하여 하나님께 봉사하는 중간인(中間人)이라고 할 수 있다.
- (5)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근본이 선한 것이기에 우리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16. **㉠** 다윗이 길르앗 야셀에게 헤브론 자손 중 큰 용사를 택하여 요단 동편을 다스리도록 조치한 때는 언제인가? (31, 32절)

- ㉠** (1) 이 일은 다윗이 왕위에 오른지 40년 되던 때에 실시한 것이다.
- (2) 그때는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마지막 해이기도 하다.
- (3) 이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마지막 날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부지런히 선한 일을 행하여야 할 것이다.
- (4) 비록 우리가 생전에 우리의 수고한 열매를 즐길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후손에게 그 열매를 넘기는데 인색해서는 안 될 것이다.
- (5)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한 바를 이미 알고 계신다.

제 27 장 다윗이 거느린 군대 조직과 정치 분담

단락구분 : 1-15 다윗의 군대 장군 12명이 각 달마다 번갈아 근무하다 / 16-24 각 지파의 방백들이 배정되다 / 25-31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유사(有司)들 / 32-34 다윗의 측근자(側近者)들

1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족장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유사들이 그 인수대로 반차가 나누이니 각 반열이 이만 사천 명씩이라 일 년 동안 달마다 체번하여 들어가며 나왔으니

2 정월 첫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브암이요 그 반열에 이만 사천 명이라

3 저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정월 반의 모든 장관의 두목이 되었고

4 이월반의 반장은 아호아 사람 도대요 또 미글뮈이 그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 반열에 이만 사천 명이요

5 삼월 군대의 세째 장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요 그 반열에 이만 사천 명이라

6 이 브나야는 삼십 인 중에 용사요 삼십 인 위에 있으며 그 반열 중에 그 아들 암미사밧이 있으며

7 사월 네째 장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요 그 다음은 그 아들 스바다니 그 반열에 이만 사천 명이요

8 오월 다섯째 장관은 이스라 사람 삼훗이니 그 반열에 이만 사천 명이요

9 유월 여섯째 장관은 드고아 사람 익게스의 아들 이라니 그 반열에 이만 사천 명이요

10 칠월 일곱째 장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니 그 반열에 이만 사천 명이요

11 팔월 여덟째 장관은 세라 족속 후사 사람 실브개니 그 반열에 이만 사천 명이요

12 구월 아홉째 장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 반열에 이만 사천 명이요

13 시월 열째 장관은 세라 족속 느도바 사람 마하래니 그 반열에 이만 사천 명이요

14 십일월 열한째 장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브나야니 그 반열에 이만 사천 명이요

15 십이월 열둘째 장관은 웃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대니 그 반열에 이만 사천 명이었다

16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

라 르우벤 사람의 관장은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므온 사람의 관장은 마아가의 아들 스바다요

17 레위 사람의 관장은 그무엘의 아들 하사바요 아론 자손의 관장은 사독이요

18 유다의 관장은 다윗의 형 엘리후요 잇사갈의 관장은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19 스블론의 관장은 오바다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관장은 아스리엘의 아들 예레못이요

20 에브라임 자손의 관장은 아사시야의 아들 호세야요 므낫세 반 지파의 관장은 브다야의 아들 요엘이요

21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의 관장은 스가라의 아들 잇도요 베냐민의 관장은 아브넬의 아들 야아시엘이요

22 단의 관장은 여로합의 아들 아사렐이니 이스라엘 지파의 관장이 이러하며

23 이스라엘 사람의 이십 세 이하의 수효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음이라

24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 못하여서 그 일로 인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효를 다윗 왕의 역대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25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뱃은 왕의 곳간을 맡았고 웃시야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촌과 산성의 곳간을 맡았고

26 글뮈의 아들 에스리는 밭 가는 농부를 거느렸고

27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곳간을 맡았고

28 게말 사람 바알나한은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곳간을 맡았고

29 사론 사람 시드래는 사론에서 먹이는 소떼를 맡았고 아들래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소떼를 맡았고

30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약대를 맡았고 메로

넷 사람 예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31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리하였더라

32 다윗의 아자비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의 아들들의 배종이 되었고

33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새는 왕의 벗이 되었고

34 브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다음이 되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장관이 되었더라

1. **㉠** 본장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 ㉠** (1) 본장은 다윗의 말기에 있었던 일로서 군대가 평화시에는 어떻게 유지되었으며 왕실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각각 어떠한 일을 수행하였는지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다.
 (2) 이처럼 다윗은 그의 마지막 때가 온 것을 깨닫고 이스라엘과 그의 후계자(솔로몬)가 안정된 기반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3) 이런 뜻에서 본장은 23-26장에 언급된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 분담과 연관이 있다.
 (4) 사실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분명히 오고야 말 것이다.
 (5)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처럼 마지막 때를 위해서 영적인 일 뿐만 아니라 육적인 일도 철저히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2. **㉠** 다윗이 거느리고 있었던 군인들은 모두 몇 명인가? (1-15절)

- ㉠** (1) 다윗은 288,000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있었다.
 (2) 다윗은 이와 같이 많은 군인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들을 24,000명씩 12 반열로 편성하고 각 반열로 하여금 1년에 1개월씩 순번으로 봉사하게 했다(1절).
 (3) 즉 이스라엘에서 20세 이상된 건장한 자들은 모두 국방의 의무를 가지되(민 1:3) 1년에 1차(1달씩)만 복무하면 되었다.
 (4) 이처럼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로(딤후 2:3) 모든 대적(사단)과의 싸움에 참전할 의무를 가진다.

3. **㉠** 각 반열(班列)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지휘하던 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1절)

- ㉠** (1) 이스라엘의 모든 족장들과 천부장과 백부장 그리고 유사(有司)들이었다.
 (2) 여기서 족장들은 각 지파의 고문격이었으며 천부장과 백부장은 장교들, 그리고 유사는 왕을 섬기던 관료들을 가리킨다.
 (3) 이 뿐만 아니라 각 반열을 총괄하는 총사령관이 1명씩 있었다. 이 12명의 총사령관들은 11장과 삼하 23장에서 다윗의 훌륭한 용사라고 언급되어 있다.
 (4)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 군대를 통솔하는 지위에 있었으나 그들 스스로 군림(君臨)한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이스라엘과 왕을 위해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모든 회생을 감수하였다(참조, 12:16-22; 삼하 23:13-17).
 (5) 오늘날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도 다윗 휘하의 지휘관들처럼 대접받는 위치에 앉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철저한 헌신과 봉사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참조, 마 20:26-28).

4. **㉠** 이스라엘 군대 순번(順番) 중 정월 첫 반열을 지휘할 반장(班長)은 누구인가? (2, 3절)

- ㉠** (1) 베레스 계통의 삼디엘의 아들 야소브암이었다.
 (2) 야소브암은 다윗에게 절대 충성을 맹세한 30용사의 우두머리였다(11:11). 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 곳에 돌아오게 하다'이다.
 (3) 그는 경건한 신앙인으로서 이스라엘의 대적 300명을 한번에 몰살시키는 공적을 남겼다.
 (4) 이처럼 그는 자기의 이름이 상징하는 바와 같이 원수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했던 것이다.

5. **㉠** 이스라엘 군대의 2월반 반장은 누구인가? (4절)

- ㉠** (1) 아호아 사람 '도대' (하나님에게 은총을 받은 자란 뜻)였다.
 (2) 그런데 실제로 본절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인물은 도대가 아니라 그의 아들 '엘리에셀'이었다(11:12). 그러므로 본서의 저자가 이 부분에서 잘못 기록한 것 같다.
 (3)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으로 큰 용사가 될 수 있었으며(11:12-14) 예언자로 활동하기도 했다(대하 20:37).
 (4) 다윗 주위에 이렇게 훌륭한 재능과 인품의 소유자가 있다는 것은 큰 복이었으며 그가 나라를 안정되게 통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5) 이처럼 우리가 좋은 친구를 주위에 둔다는 것은 자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데도 큰 도움이 됨을 명심하자(참조, 잠 17:17; 18:24; 27:10).

6. **㉠** 이스라엘 군대의 2월반 안에 또 한 사람의 지휘자는 누구인가? (4절)

- ㉠** (1) '막대기들'이란 이름의 뜻을 가진 '미글롯'이었다(8:32; 9:37).
 (2) 2월반 반장인 엘리에셀은 이처럼 그의 밑에 '미글롯'을 두었는데 이것은 자기가 결석하거나 힘이 약할 때 그리고 죽었을 때 자신의 대리인 또는 후계자로 만들기 위한 조처였다.
 (3) 이와 비슷하게 브나야(6절)와 아사헬(7절)은 자기 아들들을 휘하에 두기로 했다.
 (4) 이처럼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라도 뒷일을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7. **㉠** 이스라엘 군대의 3월반 반장은 누구인가? (5, 6절)

- ㉠** (1)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였다(11:22-25).
 (2) 그런데 여기서 '대제사장'을 뜻하는 히브리어 <코헨>과 <로쉬>는 제사장이라는 의미 뿐 아니라 '방백', '우두머리'라는 뜻도 지니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서는 '대장' 또는 '유사'로 번역함이 옳을 것이다(참조, 11:22).
 (3) 여하튼 '브나야'란 이름은 '여호와께서 만드셨다'는 뜻으로서 그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드신 목적에 따라 행동한 사람이었던 것 같다. 즉 그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시 127:1)는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반영시킨다.
 (4) 우리들이 지닌 이름 중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나타내는 이름이다.

8. **㉠** 이스라엘 군대의 4월반 반장부터 12월반 반장까지의 이름을 열거하라(7-15절).

순 번	이 름	소 속	이름의 뜻
4월반	아 사 헬	요압의 아들	하나님이 만드심
5월반	삼 쏫	이스라 사람	황무함
6월반	이 라	드고아 익게스의 아들	깨어 있다
7월반	헬 레 스	에브라임 사람	하나님이 구원하심
8월반	십 브 개	세라 족속 후사	알 수 없음(20:4)
9월반	아비에셀	세라 느도바 사람	아버지가 도우시다
10월반	마 하 래	베나민 아나돗 사람	빠르다
11월반	브 나 야	에브라임 사람	여호와께서 만드심
12월반	헬 대	웃니엘 느도바 사람	인내하다

9. **㉠** 다윗은 이스라엘 각 지파를 어떠한 방법으로 통솔하였는가? (16-22절)

- (A) (1) 다윗은 각 지파마다 그 지파를 관할하는 관장(官長)을 한 사람씩 임명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뜻에 맞추어 다스리게 하였다(16절).
- (2) 이것은 다윗의 통치력이 뛰어났음을 입증해 준다. 사실 이스라엘은 단일 국가이지만 각 지파의 독창적인 특성과 각 계보간의 결속이 중앙 정부의 영향력보다 더욱 크게 발휘한 때도 있었다(참조, 민 32:1-5; 36:1-12).
- (3) 이와 같은 다윗의 통치 철학은 오늘날 지역 교회와 각기 다른 교파가 존재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다.
- (4) 우리들의 교회가 비록 분산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한 분의 지배만을 받고 있는 한 형제임을 늘 명심해야 할 것이다(참조, 고전 12:4-7, 18-27).

10. (C) 이스라엘 각 지파를 관할했던 관장(官長)들의 명단을 도표화하라(16-22절).

(A)

이 름	소 속	관할 대상	이름의 뜻
엘리에셀	시그리의 아들	르우벤 지파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스 바다	마아가의 아들	시므온 지파	여호와께서 다스리심
하사 바	그무엘의 아들	레 위 지파	여호와께서 인정하심
사 독	엘트아살 계통	아 른 지파	의인
엘 리 후	다윗의 형	유 다 지파	그분이 바로 하나님
오 르 리	미가엘의 아들	잇사갈 지파	곡식 묶음
이스마야	오바다의 아들	스블론 지파	여호와께서 들으심
여 레 못	아스리엘의 아들	납달리 지파	두꺼운
호 세 아	아사시아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	구원
요 엘	브다야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잇 도	스가라의 아들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기대 이상의 성취
야아시엘	아브넬의 아들	베냐민 지파	하나님이 지켜 보신다
아 사 렐	여로함의 아들	단 지파	하나님이 도우심

11. (C) 다윗이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 인구 조사를 실시한 목적은 무엇인가? (23, 24절)

- (A) (1)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고자 했던 것은 막강한 군사력을 과시하려는 자만심에 의한 것이다(참조, 21:1, 2; 삼하 24:1-3).
- (2) 다윗은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의 인구를 조사했을 뿐이지만(참조, 민 1:3) 그 일은 그의 나라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한 것임에 틀림없다.
- (3) 우리들은 흔히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은폐하고 하나님의 법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는 자처럼 행세할 때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살피시고 계신다(참조, 시 33:13; 잠 16:2; 롬 8:27).

12. (C) 다윗 말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위에 임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24절)

- (A) (1) 근본적인 원인은 다윗이 시행한 인구 조사 때문이었다(21:1-14; 삼하 24:10-15).
- (2) 그런데 개역 성경에서는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 못하여서'로 번역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 요압이 자기 임무를 마치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처럼 되어 있다.
- (3) 그러나 이 귀절은 '요압은 병적 조사를 시작해 놓고는 끝내지 않았다'(공동번역)로 해석함이 옳을 것이다.
- (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노하신 이유는 요압이 인구 조사를 끝맺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인구 조사를 시키게 한 다윗의 교만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다.

13. **㉠** 다윗의 재산을 관리하던 자들은 누구인가? (25-31절)

㉠

이름	맡은 일	이름의 뜻
아스마뻬	왕의 곳간	죽음은 강렬하다
요나단	밭과 성읍, 촌과 산성의 곳간	여호와가 공급하심
에스리	농부들을 관리	하나님께서 협조하심
시므이	포도원	하나님이 들으심
삼디	포도주 곳간	하나님이 공급하심
바알하난	평양의 감람나무와 뽕나무	자비하신 하나님
요아스	기름 곳간	여호와가 공급하심
시드래	사론에서 소 떼를 관리	알 수 없음
사밧	골짜기 소 떼를 관리	하나님이 심판하심
오빌	약대(낙타)	약대 모는 자
에드야	나귀	여호와가 즐거워하시리라
야시스	양 떼	알 수 없음

14. **㉠** '왕의 곳간' 과 '밭과 성읍과 촌(村)과 산성의 곳간' 은 각각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25절)

㉠

- (1) 먼저 '왕의 곳간'이 있었던 곳은 수도 예루살렘이었다.
- (2) 이곳은 성전 재산을 보관했던 곳(26:22)은 아니지만 예루살렘에 위치하여 왕의 필수품과 무기를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되었다.
- (3) 반면에 '밭과 성읍과 촌과 산성의 곳간'은 외곽 지대에 위치해 있었다.
- (4) 이곳에서도 왕실에 필요한 물건들과 무기들을 보관하고 있었다.
- (5)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다윗과 같이 필요한 물건들을 쌓아 놓은 창고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창고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다(참조, 눅 12:13-21).
- (6)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고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참조, 마 6:19-34).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에 우선권을 두고 생활해야 할 지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15. **㉠** 다윗 측근(側近)에서 다윗을 보필(輔弼)했던 사람은 누구인가? (32-34절)

㉠

이름	소속	직책	이름의 뜻
요나단	다윗의 친척	모사(謀士), 서기관	여호와가 공급하심
여히엘	학모니의 아들	왕의 자녀를 교육하는 관리	하나님이 살아계심
아히도벨	길로 사람	모사(謀士)	기도의 형제
후호새	아렉 사람	왕의 친구	쟁싸게 하다
여호야다	브나야의 아들	왕의 정치 보좌관	여호와가 알고 계심
아비아달	아히멜렉의 아들	왕의 정치 보좌관	아버지는 특출하심
요압	스루야의 아들	왕의 군대장관	여호와는 아버지

제 28 장 백성들과 솔로몬에게 남긴 다윗의 유언

단락구분 1-10 다윗이 백성과 솔로몬에게 여호와를 경외할 것과 성전 건축을 유언하다 / 11-19 다윗이 성전 양식을 가르치다 / 20-21 다윗이 솔로몬을 격려하다

1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방백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체번하여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산업과 생축의 감독과 환관과 장사와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2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가로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이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계 곧 우리 하나님의 발동상을 봉안할 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3 오직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군인이라 피를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4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시라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족속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시라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5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시라 여호와의 나라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새

6 내게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저를 택하여 내 아들을 삼고 나는 그 아버가 될 것임이라

7 저가 만일 나의 계명과 규례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날과 같이 하면 내가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하셨느니라

8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의 보는 데와 우리 하나님의 들으시는 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9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 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못 마음을 감찰하시라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10 그런즉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소의 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11 다윗이 전의 낭실과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식양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12 또 성신의 가르치신 모든 식양 곧 여호와의 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식양을 주고

13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전에 섬기는 모든 일과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식양을 설명하고

14 또 모든 섬기는 데 쓰는 금기명을 만들 금의 중량과 모든 섬기는 데 쓰는 은기명을 만들 은의 중량을 정하고

15 또 금등대와 그 등잔 곧 각 등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중량과 은등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중량을 각기 적당하게 하고

16 또 진설병의 각 상을 만들 금의 중량을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17 고기 갈고리와 대접과 종자를 만들 정금과 금잔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중량과 또 은잔 곧 각 잔을 만들 은의 중량을 정하고

18 또 향단에 쓸 정금과 또 타시는 처소된 그룹들의 식양대로 만들 금의 중량을 정하여 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계를 덮는 것이더라

19 다윗이 가로되 이 위의 모든 것의 식양을 여호와와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셨느니라

20 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와 전 역사의 모든 일을 마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라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21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이 있으니 여호와와의 전의 모든 역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역에 공교한 공장이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장관과 백성이 온전히 네 명령 아래 있으리라

1. **Q** 본장은 누구의 언설문을 담고 있는가?

- A** (1) 본장에서는 다윗이 은퇴에 앞서 백성과 솔로몬에게 가장 필요한 일, 즉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전을 건축하라고 유언(遺言)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 (2) 그 뿐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은 대로 성전의 모습을 제시하여 백성과 솔로몬이 평안과 확신 가운데서 그 일을 마칠 수 있도록 했던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 (3) 다윗은 이처럼 그의 최후까지 최선을 다했던 성실한 하나님의 일군이였다. 그가 일생 동안 펼쳐 놓았던 사업들과 미래에 대한 준비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 건설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들이다.
- (4) 그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공헌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말은 바 임무에 충실하였기 때문이다(행 13:36).
- (5)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가 처한 현재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건설에 큰 보탬이 됨을 명심하자.

2. **Q** 다윗이 최후의 유언(遺言)을 위해 소집하였던 사람은 누구인가? (1절)

- A** (1)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방백, 즉 각 지파의 어른과 체번(替番)하여 왕을 섬기는 족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산업과 생축을 감독하는 감독과 환관과 장사와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였다.
- (2) 다윗이 소집했던 자들은 그가 이미 새 왕국을(솔로몬) 위해 임명했던 자들이다(참조, 27:1-34).
- (3) 그가 이렇게 불러 모은 이유는 백성의 대표들 앞에서 마지막 유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고 솔로몬의 후계 문제를 확실히 해 두기 위해서였다(참조, 신 31:28; 수 23:2; 24:1).
- (4) 그러므로 그의 죽음은 그의 마지막이 아니었고 오히려 그가 남긴 말과 후계자를 통하여 그의 삶은 계속될 수 있었다.
- (5) 이와 같이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은 비록 몸은 죽었으나 그들의 정신은 살아 숨쉬며 지금도 말하고 있다(참조, 히 11:1-12:1).

3. **Q**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어떤 호칭(呼稱)을 사용하였는가? (2절)

- A** (1) 다윗은 그들을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이라고 불렀다.
- (2) 다윗은 백성들이 그의 종이라고 생각했었고 백성들도 그들 스스로가 다윗의 종임을 시인하였다(참조, 21:3).
- (3) 그러나 다윗은 최후의 순간에 모든 백성들이 그의 형제이며 동일한 지위에 있는 백성임을 깨달았던 것이다.
- (4)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동일한 위치에 있음을 아는 자는(참조, 롬 3:9; 10:12) 비록 우월한 지위에 있을지라도 열등한 지위에 있는 자들에게 사랑과 겸손을 베풀 수 있다.

4. **Q**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무엇이라 불렀는가? (2절)

- A** (1) 다윗은 언약궤를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하였다.
- (2) 이 표현은 일반적으로 언약궤를 가리키는 말로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교제하시기 위해 임재하시는 장소라는 뜻도 지닌다(참조, 출 25:22).
- (3) 사실 하늘은 당신의 영광의 보좌이지만 땅과 그 위에 세워진 모든 것들은 당신의 발등상에 불과하다(참조, 시 11:4).

- (4)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우리들은 단지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 따름이었다(참조, 시 99:5;132:7).
- (5)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육체를 우리의 영원한 대속물로 허락하신 이후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참조, 히 4:16;7:25).

5. **㉠** '봉안' (奉安)이란 말은 무슨 뜻인가? (2절)

- ㉠** (1) '봉안'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매누하>는 '휴식', '평안'이란 뜻을 지니고 있다.
- (2) 사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휴식'하기를 원하셨던 것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는 더 이상의 광야 여행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 (3)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휴식하셨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에 영원한 평안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참조, 마 1:23).
- (4)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안식처로 삼으신 것은 곧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며 평안이다(참조, 마 28:20; 롬 8:9-11; 고전 6:19).

6. **㉠** 다윗이 성전 건축을 계획했던 동기(動機)는 무엇인가? (2절)

- ㉠** (1) 다윗은 자신의 거하는 궁전은 아름다운 반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누추한 곳에 있음을 통탄히 여기고 하나님의 전 건축을 계획하게 된 것이다(참조, 17:1).
- (2) 그는 성전을 건축하기로 계획만 세운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행동화하여 건축 재료를 많이 준비하였다(22:2-5).
- (3) 우리들은 흔히 선한 계획을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동화하지 않아 그 선한 계획마저도 포기해 버릴 때가 있다.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죄이다(참조, 약 4:17).

7. **㉠** 다윗이 품었던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은 어떤 성질의 것인가? (2절)

- ㉠** (1) 다윗이 마음에 품었던 성전 건축에 대한 결심은 자신의 명예욕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다(참조, 시 69:9).
- (2) 즉 다윗은 자기 과시욕(誇示欲)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에서 성전 건축을 생각하였다.
- (3) 요즈음 몇몇 잘못된 교회에서는 교회 건축을 경쟁 심리에서나 자아 실현(自我實現)으로 계획 추진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 (4)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외적인 화려함 보다 개인의 마음속에 숨어 있는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귀하게 보신다(참조, 삼상 15:22; 사 1:10-17; 막 12:41-44).

8. **㉠**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자신이 직접 건축할 수 없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3절)

- ㉠** (1)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린 군인이라는 이유를 들어 성전 건축을 그에게 맡기지 않으셨다.
- (2) 사실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이며(참조, 출 25:22) 하나님께 간구하는 곳이며(참조, 딤후 2:8) 하나님과 화평을 도모하는 거룩한 장소다.
- (3) 그런데 다윗은 파괴와 멸망을 초래하는 전쟁을 많이 한 군인이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평(和平)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다.
- (4) 물론 그에게는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으나 그의 전생애를 통해 보면 군인으로서의 이미지가 더욱 강하다.
- (5)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마음속으로 성전 건축을 열망한다는 사실을 알고 제쳤지만 그 일을 직접 수행하도록 허락하지는 않으셨다.
- (6) 이와 같이 어떤 자는 칼로써 하나님께 봉사하고 혹 어떤 자는 망치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9. **㉠**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할 솔로몬을 '택하신'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

인가? (4-6절)

- Ⓐ (1)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선택하시고 그 중에 다윗의 가계를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으로 삼으셨으며 나아가서는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의 거룩한 사명을 위임하셨다.
- (2) 하나님이 이들을 택하신 동기는 택함받은 자들의 지위와 재능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한 것이다.
- (3)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선택된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는 인물이었다(참조, 요 2:19).
- (4) 즉 솔로몬의 선택은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집)를 건설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 대를 거쳐 선택되어 온 사실을 예표한다.
- (5)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후 이 좁아졌던 성전 건축 계획은 다시 확산되어져 가고 있다(참조, 마 28:20; 행 1:8; 고전 6:19).

10. ㉠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하는 솔로몬과 어떤 관계를 맺으시겠다고 하셨는가?(6절)

- Ⓐ (1)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택하여 당신의 아들로 삼고 당신께서는 그 아버가 될 것'이라고 하셨다. 즉 부자(父子) 관계로 맺으시겠다고 하셨다.
- (2)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창 12:1-3; 17:1-21)을 솔로몬에게 더욱 구체적으로 친근하게 되풀이하신 것으로 신약 성경에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완성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히 1:15).
- (3) 이처럼 하나님은 솔로몬을 그리스도의 예시적인 인물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시 2:7; 눅 3:22)고 말씀하셨다.
- (4)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으므로 '여디디야' (삼하 12:24, 25)라는 이름까지 주셨다.
- (5)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부자(父子) 관계를 형성하시고 지극히 사랑하신다(참조, 롬 8:15; 갈 4:5-7).

11. ㉠ 하나님은 솔로몬의 나라를 견고케 해주시리라는 약속 이전에 어떠한 조건부(條件附)를 제시하셨는가? (7절)

- Ⓐ (1)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당신의 계명과 규례를 힘써 지키기를 오늘과 같이 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나라를 견고케 해줄 것이라고 하셨다.
- (2)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날마다 당신의 뜻에 따라 생활하기를 요구하신다. 왜냐하면 이것이 살아 있는 신앙이기 때문이다(참조, 요일 2:3-5).
- (3)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 것은 위선적인 신앙이며 결국 패망을 자초하는 것이기도 하다(약 2:26).

12. ㉠ 다윗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어떠한 권면을 하였는가? (8절)

- Ⓐ (1)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 중 지도자 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여호와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게 하라'고 권면하였다.
- (2) 왜냐하면 진정한 통치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이다(참조, 롬 13:1-3).
- (3) 사실 인간은 한계가 분명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공정한 판단과 지혜로운 행정을 펼치지 못한다.
- (4) 그러므로 그들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깨닫고 거기에 자신을 맞추어 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 (5) 즉 계명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계명을 힘써 지키며 자신을 반성하는 것이다.

13. ㉠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했던 '너는 네 아버의 하나님을 알고'란 말은 무슨 뜻인가? (9, 10절)

- Ⓐ (1) 이 말은 하나님을 바로 알도록 권면하는 말로서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오늘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라는 말이다.

- (2)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앞날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인간들에게 당신의 지혜를 선사하셔서 날마다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다.
- (3)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는 단순히 한 세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오고오는 세대에 당신의 자녀들에게 공급하시는 영원한 지혜이다.
- (4) 이러한 지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며 또한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그것을 획득할 수도 있다(약 1:5).
- (5) 기독교는 이같이 피상적인 종교가 아니라 사실과 경험의 종교로서 신자 개개인에게 뚜렷이 살아 있는 생명의 종교이다.

14. **㉠** 다윗은 솔로몬에게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는가? (9절)

- ㉠** (1)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고 하였다.
- (2) 여기서 먼저 갖추어야 할 태도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소유할 뿐 아니라 그 계시를 신뢰하며 온 인격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다(참조, 시 36:10).
- (3)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할 때 신앙의 외식이 생기고 미신(迷信)으로 떨어지고 만다(참조, 행 17:23).
- (4) 또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다. 즉 신앙의 지조와 순결을 지키라는 말이다(참조, 대하 15:17;25:2).
- (5) 마지막으로 기쁜 뜻으로 섬겨야 했다. 이것은 신앙의 감정적인 측면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는 적극적이고 궁극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말이다.
- (6) 즉 사사로운 감정과 불평하는 마음을 배제하고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이다.

15. **㉠**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였는가? (9절)

- ㉠** (1) 다윗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찰(鑑察)하시고 모든 사상을 아시는 분'으로 묘사하였다(참조, 창 6:5;삼상 16:7).
- (2)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비밀을 알고 계시며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살피신다(잠 25:3).
- (3) 그분 앞에 우리는 진실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거짓을 행하더라도 그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신다(참조, 갈 6:7).

16. **㉠**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맡겼다. 이때에 솔로몬이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 (10절)

- ㉠** (1) 솔로몬은 단지 '힘써 성전 건축을 행하면' 되었다.
- (2) 사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에 따라 당신의 일을 추진해 가신다. 그런데 가끔은 우리 인간들의 협조를 요구하기도 하신다.
- (3)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이미 그 안에 행함이 포함된 믿음이며 그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 (4) 따라서 인간이 스스로 노력하여 힘쓰는 자체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믿음의 결과이다.

17. **㉠**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해 준 성전의 양식(樣式)은 무엇에 근거한 것인가? (11-19절)

- ㉠** (1) 성전에 관한 모든 양식은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주어진 것들이다(19절).
- (2) 즉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반열, 그 직무들과 집기들, 성전과 그 모든 구조를 위한 양식은 성령께서 다윗에게 전해 준 것이며 문서로 기록되어 솔로몬에게 전수된 것이다.
- (3) 성막을 건축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모양을 계시해 주셨다(출 25:8,9,40).
- (4) 이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체를 두실 곳을 상세히 제시하신 것은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주권에 속한 것임을 보여 주시기 위함이었다. 즉 하나님께서 인

간의 지혜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의지에 따라 활동하시는 분임을 계시하시기 위함이었다.

(5) 이런 의미에서 구약 시대의 성전과 신약 시대의 예배당(교회)은 다르며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도 엄격한 의미에서 삼가해야 한다.

18. **㉠** 솔로몬이 전수 받았던 성전 내부의 양식과 그 기구들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며 그 영적 의미는 무엇인가? (11-19절)

㉠ (1) 왕상 5-7장과 대하 3-5장의 문답 강해를 참조하라.

19. **㉠** 솔로몬의 성전과 궁전을 평면도로 제시하라(11-19절).

㉠ (1) 26장의 **㉠** 11를 참조하라.

20. **㉠** 다윗은 솔로몬에게 어떤 말로 격려하였는가? (20, 21절)

㉠ (1) 그는 솔로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제사장, 레위인들, 공장(工匠)의 협력, 나아가서는 모든 장관과 백성들의 순종을 제시함으로써 격려하였다.

(2) 우리 믿음의 조상들과 그들의 일생을 돌보셨던 하나님은 역시 우리의 일생 동안 우리와 함께 계시 주실 것이며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실 당신의 일이 남아 있는 한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것이다.

(3) 솔로몬이 받았던 이 같은 격려는 여호수아가 받은 것과(수 1:5) 같은 것이며 또한 이 격려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다(참조, 히 13:5).

(4) 하나님은 인간이 먼저 그를 떠나지 아니하는 한(9절) 결코 아무에게서도 떠나지 않을 것이다(참조, 시 9:10; 사 41:17).

연구자료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교회와의 차이점. 구약 시대의 성전과 신약 시대의 교회는 모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셔서 함께 하신다는 점은 같지만 다른 점이 있다. 즉 구약 시대에 있어선 성전 내의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그리고 성소에는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었으며 일반 백성들은 성전의 바깥 뜰에서 있어야만 했다(참조, 히 9:6, 7). 따라서 백성들은 제사장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제사장은 중재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이르러선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참조, 마 27:52) 더 이상 건물이나 장소적인 의미에서의 성전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즉 성도들은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히 4:14)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더구나 성령께서 성도 안에 거하시므로(고전 3:16) 성도들 자신이 성전이 되었다. 교회라는 말의 헬라어는 <에클레시아>로서 이같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뜻한다. 한편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 교회의 신자들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거나 '예배하는 행위'를 '제단을 쌓는다'라고 칭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일이라고 하겠다.

제 29 장 솔로몬의 등극과 다윗의 임종

단락구분 1-5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백성들에게 협조와 헌물을 부탁하다 / 6-9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 헌물하다 / 10-19 다윗의 감사 기도 / 20-22 은 이스라엘이 기쁜 마음으로 제사드린다 / 23-25 다윗을 이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다 / 26-30 다윗의 죽음

1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오히려 어리고 연약하고 이 역사는 크도다 이 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2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며 또 마노와 박을 보석과 꾸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보석들과 화반석이 매우 많으며

3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므로 나의 사유의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4 곧 오빌의 금 삼천 달란트와 천은 칠천 달란트와 모든 전 벽에 입히며

5 금, 은그릇을 만들며 공장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날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6 이에 모든 족장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어른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 감독이 다 즐거이 드리되

7 하나님의 전 역사를 위하여 금 오천 달란트와 금 다리 일만과 은 일만 달란트와 놋 일만 팔천 달란트와 철 십만 달란트를 드리고

8 무릇 보석이 있는 자는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부쳐 여호와와 전 공간에 드렸더라

9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며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니라

10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11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시니이다

12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재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

에 있나이다

13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14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관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15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거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16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17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18 우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시며

19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예비한 것으로 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20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21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일천이요 수양이 일천이요 어린 양이 일천이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22 이 날에 우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우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다시 왕을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23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위에 앉아 부친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 명령을 순종하며

24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25 여호와께서 솔로몬으로 이스라엘 무리의 목전에 심히 존대케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주사 그 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26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7 이스라엘을 치리한 날짜는 사십 년이라 헤

브론에서 칠 년을 치리하였고 예루살렘에서 삼십 삼 년을 치리하였더라

28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으매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9 다윗 왕의 시종 행적이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30 또 저의 왕 된 일과 그 권세와 저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열국의 지난 시사가 다 기록되니라

1. ㉠ 본장의 중요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라.

- ㉠ (1) 본장에는 다윗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 역사를 앞에 놓고 이스라엘 전국에 모금 운동을 벌였던 사실과 그 결과에 대한 기도와 제사가 언급되어 있다.
- (2)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정치적 종교적 안정을 이룩하였던 성웅(聖雄) 다윗의 죽음과 그 뒤를 이은 솔로몬의 등극(登極)이 기록되어 있다.
- (3) 이와 같이 다윗은 최후를 맞으면서까지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 아름다운 봉사를 아끼지 않았다.
- (4) 그의 이러한 봉사와 전생애는 당신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이 땅에 친히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역을 예표한 것이다.

2. ㉠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백성들에게 헌물(獻物)과 협조를 요청한 이유는 무엇인가? (1절)

- ㉠ (1) 솔로몬은 어리고 연약한 반면 성전 건축의 역사(役事)는 큰 것이었기 때문이다.
- (2) 더우기 이 일은 다윗이나 솔로몬의 개인적인 영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돌리기 위한 거룩한 사업이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동참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이다.
- (3) 한편 이러한 일은 출애굽 당시 성막을 지을 때도 요구되었던 것이다(출 35:20-35).
- (4) 이처럼 오늘날 교회를 중심하여 펼치는 하나님의 사업도 마땅히 모든 신자들의 숭선 수범하는 봉사를 필요로 한다(참조, 롬 15:26; 고후 8:1-15).
- (5) 교회는 결코 한 개인의 능력만으로는 존재할 수 없다.

3. ㉠ 다윗은 솔로몬을 어떠한 아이라고 말하였는가? (1절)

- ㉠ (1) 다윗은 솔로몬을 '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오히려 어리고 연약하다' 라고 하였다(22:5).
- (2) 즉 솔로몬은 비록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였으나 아직 나이가 어리며 성품도 모질지 못한 자라는 것이다.
- (3) 솔로몬은 다윗 왕이 말한 대로 자신의 '어리고 연약함'을 깨달아 '중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라고 고백하였다(참조, 왕상 3:7).
- (4) 이처럼 객관적인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자신됨을 바로 아는 자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자이다.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당신의 은혜를 덧입히신다(참조, 왕상 3:11-13; 잠 3:34, 35; 11:2).

4. ㉠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모금 운동을 벌이기 전에 준비해 놓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2-5절)

- ㉠ (1) 다윗은 노략물과 이웃 나라에서 보내 온 선물들(참조, 22:14) 이외에도 금 3천 달란트(약 102.24t)와 은 7천 달란트(약 242.56t)나 되는 막대한 개인 소유를 하나님께 바

쳐 여호와와의 전 건축을 위해 준비하였다.

- (2) 그는 이렇게 좋은 본보기를 백성에게 제시하였다. 그의 이러한 모범은 단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순수한 열정 때문이었다.
- (3) 즉 그의 이러한 열심은 교황 승배자들이 교회를 지어 참회하거나 속죄하려는 의도와는 다르며 더우기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 봉헌한 것도 아니었다(참조, 마 23:23).
- (4)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것이 순수하였기에 그것을 준비하는데 어떠한 수고와 비용도 감수하였던 것이다(시 26:8).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순수한 열정에서 나온 헌물을 기쁘게 받으신다(참조, 눅 21:1-4).

5. **㉠**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란 말은 무슨 뜻인가? (5절)

- ㉡** (1) 이 말은 '여호와를 위해 즐거운 마음으로 헌물을 바치겠느냐'란 의미이다.
- (2) 다윗은 이 말을 통해 백성들에게 마음으로부터 우리나라오는 헌물을 요구하였다(참조, 스 2:68).
- (3) 여기서 우리의 손을 '하나님 섬기는 일을 가득 채운다는 것'은 우리가 오직 그만을 섬기고 우리의 자유로운 의사로 기꺼이 그를 섬기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총의 힘 안에서 그를 섬기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 (4)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기꺼운 마음으로 전념하는 자들은 항상 그 손에 중요함이 깃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이다(참조, 마 6:26-34).

6. **㉠** 백성들은 다윗의 호소를 듣고 어떤 행동을 취하였는가? (6-9절)

- ㉡** (1) 백성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그들의 능력에 따라 헌물하였다(6, 9절).
- (2) 비록 그들은 권고를 받아서 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훌륭한 교훈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성심(誠心)으로 바쳤다(9절).
- (3) 우리가 귀로 훌륭한 권면을 들었을 때 그리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왔을 때 주저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다(참조, 약 4:17).

7. **㉠** 백성들이 여호와와의 전 건축을 위해 봉헌했던 물건은 어떤 것이었는가? (7, 8절)

- ㉡** (1)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 건축을 위해 금 5천 달란트(약 170.4t)와 1만 다릭의 금(약 1,292.2kg)과 은 1만 달란트(약 340.8t)와 놋 1만 8천 달란트(약 613t)와 철 10만 달란트(약 3,408t) 및 기타 보석류를 드렸다.
- (2) 여기서 '다릭'이란 130g 정도의 페르시아 금전을 가리킨다(참조, 스 2:69).
- (3) 이처럼 은 이스라엘은 다윗의 요청에 많은 물자로 응답하였다. 그들은 이런 일들을 역지로 한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하였다(6, 9절).
- (4) 하나님은 이렇게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후 9:7).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연보에 있어서도 적용되는 진리이다.

8. **㉠** 하나님의 전을 위해 거두어진 헌물은 누가 관리하였는가? (8절)

- ㉡** (1) 게르손 사람 여히엘이 이 모든 헌물을 관리하였다(참조, 26:21).
- (2) 그는 헌물을 여호와와의 전 공간에 보관하는 일을 맡았을 뿐이다.
- (3) 즉 그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헌물을 사용하지 않고 단지 바쳐진 그대로를 보관하였다.
- (4) 이것은 오늘날 교회내에서 견혀진 헌금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유용되는 잘못된 헌금 관리에 좋은 지침이 될 것이다.

9. **㉠** 다윗은 백성들의 헌물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9절)

- ㉡** (1) 다윗 왕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 (2) 이 말은 문자적으로 '큰 기쁨으로 기뻐하였다'는 뜻이다(참조, 습 3:17).
- (3) 다윗의 이와 같은 기쁨이야말로 모든 믿는 자들이 지녀야 할 태도이다.

(4) 즉 하나님의 일의 성취를 고대하며 그 일의 완성을 기뻐하는 기쁨이야말로 신자가 누리는 가장 귀한 기쁨이며 행복이다(참조, 삼하6:13-15).

10. ㉠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셔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10-13절)**

- ㉠ (1)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상들을 보호해 주셨을 뿐 아니라 그 조상들에게 베푸신 것처럼 지금도 당신의 은혜를 이스라엘 위에 베푸시기 때문이다(19절).
 (2) 또한 그분은 광대하실 뿐만 아니라 권능과 영광과 위엄이 넘치시기 때문이다(11절).
 (3) 즉 그분은 온 인류를 통괄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4) 더우기 하나님은 만유(萬有)의 주재(主宰), 곧 온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다(12절).
 (5) 이처럼 우리가 찬양을 할 경우 찬양의 대상을 알고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달을 때에만 진정한 찬양을 할 수 있다.

11. ㉠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드렸던 물건을 어떻게 평가하였는가? (14-17절)**

- ㉠ (1)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친 물건에 대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맡김이었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라고 했다(14절).
 (2) 따라서 다윗은 백성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바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3) 사실 성도들이 물질을 소유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순례자로 살아가는 동안 당분간 필요한 것들을 보관하는 것이지 그것을 영원히 소유하는 것은 아니다(15절).
 (4)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재물과 명예를 주께로부터 값없이 선물로 받았으므로 우리가 주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16절).
 (5) 이런 점에서 부와 재능을 자신의 안일과 이익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가장 큰 교만에 속한다.

12. ㉠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어떻게 주장하였는가? (17절)**

- ㉠ (1)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진실되게 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2)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살살이 감찰하신다는 것을 알았다(시 33:13, 14).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직을 주장한다는 것은 성전 건축을 위한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순수하고 간절한 것인가를 대변해 주는 것이다.
 (4)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한 자는 비록 주위의 사람들이 그 정직을 비난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기쁜 삶을 살 수 있다.
 (5) 그러므로 성도란 세상이 지니지 못한 기쁨을 소유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13. ㉠ **다윗은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에게 어떠한 간구를 하였는가? (18절)**

- ㉠ (1)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물질을 바쳤던 백성의 마음을 영원히 변치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다.
 (2) 즉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에 인색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아름다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부탁하였다.
 (3) 사실 인간의 마음속에 선한 계획을 계속적으로 간직하기란 어렵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심히 부패하여 있기 때문이다(참조, 사 1:4; 렘 17:9; 고후 11:3; 딤후 3:2-8).
 (4) 그러므로 우리들은 선한 생각과 공의로운 마음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이다(참조, 빌 4:6, 7).

14. ㉠ **다윗은 그의 후계자 솔로몬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어떠한 간구를 하였는가? (19절)**

- ㉠ (1) 다윗은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였다.
 (2) 여기서 ‘정성된 마음’이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뜻한다.
 (3) 사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킬 수 있을 뿐더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 (4) 하나님을 향한 '정성된 마음'이 없고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며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위선으로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다(참조, 사1:10-17).
- (5)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업을 추진해 가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부터 지녀야 할 것이다(참조, 신 6:5).

15. **㉠** 다윗은 감사 기도를 마치고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하였는가? (20절)

- ㉠** (1) 다윗은 감사 기도를 마치고 온 회중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하였다.
- (2) 이 명령에 대해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머리를 숙여 완전히 부복(俯伏)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왕에게 절하였다(참조, 창 24:26; 출 12:27; 34:8).
- (3) 그들의 이러한 경배는 단순히 외적인 순복이라기 보다는 그들의 마음과 뜻을 완전히 복종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참조, 시 95:6).
- (4) 이와 같이 그들은 입술만의 찬양이 아니라 온 인격을 다하여 하나님께 경배하였다(참조, 시 108:1).
- (5) 우리의 찬양도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온 인격의 움직임이어야 한다(엡 5:19). 이러한 찬양이야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성도 개개인을 은혜 속으로 이끌 것이다(참조, 행 16:24-26).

16. **㉠** 다윗의 감사 기도가 있었던 다음 날 백성들은 무엇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가? (21절)

- ㉠** (1) 백성들은 수송아지 1천 마리와 수양 1천 그리고 어린 양 1천 마리에다가 포도주를 전제(奠祭)로 곁들여 드렸다.
- (2) 이 제사는 화목제(和睦祭)로서(참조, 출 24:5) 하나님과 백성 간의 영원한 평화를 기원하는 제사였다.
- (3) 또 이것은 그들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드린 상징적 행동이기도 했다.
- (4) 왜냐하면 그들은 성전 건축을 위해 많은 재물을 바쳤지만 결코 그 사실을 내세우지 않는 참된 마음이 여기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 (5) 사실 모든 성도들의 매일의 삶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산 제사 바로 그것이다(참조, 롬 12:1). 왜냐하면 성도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하루도 바로 설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한 자들이기 때문이다(참조, 대하 14:11).

17. **㉠** 솔로몬이 두 번에 걸쳐 왕이 되는 절차를 밟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22절)

- ㉠** (1) 옛날 아도니아의 반란으로 인해 급히 서둘러 왕이 되는 의식을 밟았기 때문이다(참조, 왕상 1:5-37).
- (2) 그러나 이제 나라가 평온을 되찾게 되자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정치와 종교의 두 우두머리(솔로몬과 사독)를 임명하게 되었다.
- (3) 여기에서 사독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전(前)대제사장인 아비아달이 아도니아의 음모에 참여함으로써 그 직책을 상실했기 때문이다(참조, 왕상 2:26, 27).
- (4)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두 직책(왕과 대제사장)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주어지는 것으로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밝혀 주는 것이다.
- (5) 그러므로 이 직임을 맡은 자들은 자신의 영예보다는 하나님과 그 백성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 (6) 이와 같이 우리가 교회내에서 부여받은 공식적인 직분도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봉사해야 하는 직책임을 깨닫고 그 직책을 기회로 삼아 섬김받으려 해서는 안 된다(참조, 요 13:12-17).

18. **㉠** 솔로몬이 이스라엘 3대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23절)

Ⓐ (1) 솔로몬이 다윗의 장자(長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참조, 3:19) 다윗의 대를 이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였다(참조, 삼하 7:12; 왕상 2:12).

(2) 이런 이유에서 본질에는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위에 앉아’ 라고 기록되어 있다.

(3) 사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시며 모든 나라의 왕들이 그의 아래 있을 뿐 아니라 특별히 그가 친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삼상 12:12) 솔로몬의 왕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 할 수 있다.

(4) 그러므로 자신의 통치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왕이야말로 그 앞에 형통함이 있을 것이며(23절) 우리는 그런 통치자에게 복종할 의무가 있다(참조, 롬 13:1-7).

19. ⓐ 솔로몬의 왕권이 든든히 서고 그가 이스라엘 왕국사(王國史)에 우뚝 솟은 인물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22-25절)

Ⓐ (1) 물론 솔로몬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다(참조, 왕상 3:12, 13).

(2) 또한 그 이면(裏面)에 있어서 그가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힘써 준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도움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이다(참조, 28:6, 7).

(3) 흔히 구원받은 성도들이 범하는 과오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그 은혜만을 강조하고 자신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4) 하나님은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당신의 법도를 무시하는 자들을 물리치시는 분임을 명심할 때 이러한 과오는 범하지 않을 것이다(참조, 신 5:10; 마 5:19; 요일 2:3-6; 계 1:3).

20. ⓐ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햇수는 몇 년인가? (26, 27절)

Ⓐ (1)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기간은 40년간이었다(27절), 즉 그는 헤브론에서 7년을 치리(治理)하였고 예루살렘에서 33년간을 다스렸다(참조, 왕상 2:11).

(2) 그런데 삼하 5:5에 보면 그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다스렸다고 나온다. 이것은 열왕기 저자와 역대기 저자가 단순히 1년 단위로 통치 기간을 기록한 것임을 보여 준다.

(3) 그러므로 다윗의 통치 기간은 정확하게 40년 6개월간이었다.

(4) 여하튼 그는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안정 속에서 다스릴 수 있었으며 국내외적으로 많은 명성과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5) 그가 이렇게 훌륭한 생애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주의 영(성령)이 늘 그와 함께 하였기 때문이다(참조, 삼상 16:13; 시 23:4).

(6)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인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이시기 때문이다(참조, 시 54:4; 121:1-8; 히 4:16).

21. ⓐ 본장은 다윗의 죽음에 대하여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28절)

Ⓐ (1) ‘제가 나이 많아 늙어도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으매’ 라고 하였다.

(2) 즉 그는 장수했으며 매우 부하게 살았고 하나님과 사람들로 부터 많은 영광을 받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3) 다윗의 죽음에 대해서 왕상 2:10에는 ‘다윗이 그 열조와 함께 누워 자서’ 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죽음이 어떠한가를 보여 주는 말씀이다(참조, 마 9:24; 요 11:11-13; 살전 4:13-17).

(4) 그 후 다윗은 다윗 성(예루살렘)에 장사되었고 그의 무덤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까지도 잘 보존되었다(참조, 시 16:8, 11). 우리는 그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5) 이와 같이 다윗의 생애와 죽음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기에 우리는 그의 모든 행적을 통하여 깊이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다.

22. **㉠** 다윗의 모든 행적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29, 30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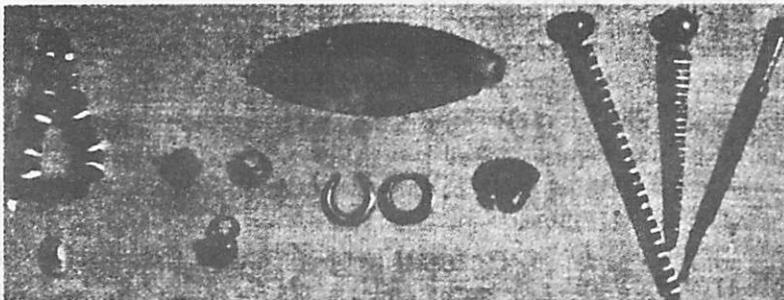
- ㉠** (1) 다윗의 전생애에 대한 기록은 선견자(先見者)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先知者)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모두 기재(記載)되어 있다(29절).
 (2) 이들 자료는 역대기서를 편집할 때 사용된 원(原) 자료들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자료들을 찾아볼 수 없다.
 (3) 이와 같이 다윗의 생애에 대한 기록이 일반 역사서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것은 성경이 결코 비역사적인 책이 아님을 밝혀 주는 좋은 증거이다.

23. **㉠** '온 세상 열국의 지난 시사(時事)'란 무엇을 가리키는가? (30절)

- ㉠** (1) 이것은 다윗이 베니게, 블레셋, 에돔, 모압 등과의 우호적이고 또는 적대적인 관계를 맺었던 사실을 가리킨다(참조, 대하 12:8; 17:10; 20:29).
 (2) 다윗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과 필연적인 접촉을 맺고 살아야만 했다. 그것이 좋은 관계이든 적대 관계이든 불문하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는 부닥쳐야 했던 현실이었다(참조, 삼상 23:1-5; 30:1-20; 삼하 5:7-12; 8:1-14; 10:6-19).
 (3) 그의 이러한 투쟁적인 삶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예표한다.
 (4) 즉 성도들은 그 현주소를 세상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정의와 사랑이 숨쉬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의한 세력과의 접촉이 있어야만 한다(참조, 고전 16:9; 엡 6:12; 살전 2:14-16).
 (5) 만약 이러한 혈전(血戰)이 없는 자가 있다면 그의 신앙 생활에 허점이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참조, 마 5:10-12; 딤후 3:12).

화보자료

패물(佩物). 수사에서 발견된 아래의 핀과 이마에 다는 장식품 및 목걸이, 반지, 귀걸이 등은 B. C. 1000년경의 것인데 지금은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성경에는 본장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 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진하여 각종 보석과 패물들을 바치는 자가 여러 번 언급되어 있다(9절; 출 35:22; 민 31:50-54).